

韓國女性團體活動에 關한 研究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389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977年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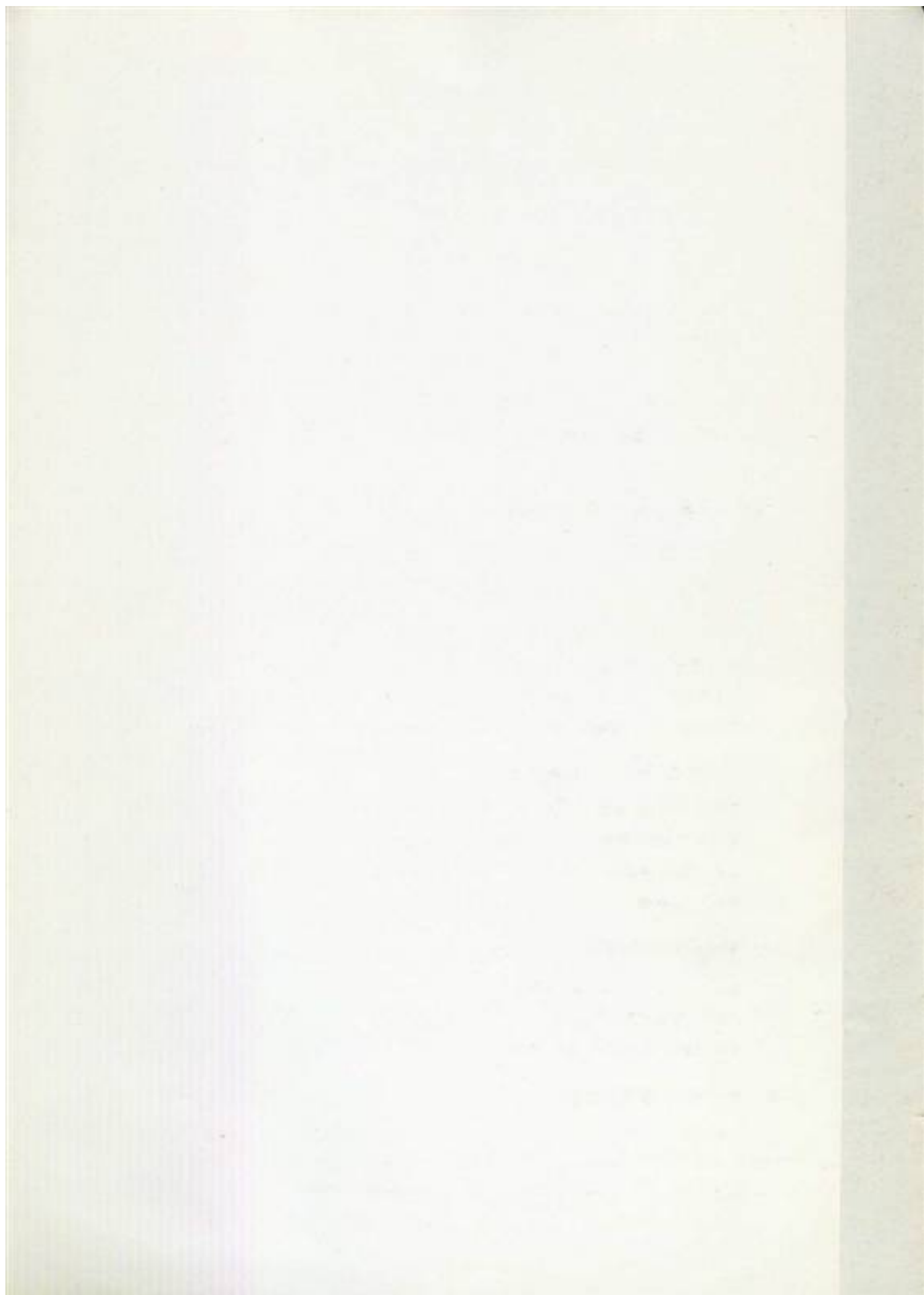
韓國女性問題研究會

911

3892

0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차 례

간행사	박정자
여성문제연구회의 발자취	황신덕... 1
제一부 논문편	
I. 근대 여성단체 활동의 史的 考察	김영경... 7
II. 韓國 女性運動의 問題點	한완상...23
제二부 조사연구편	
韓國 女性團體活動의 現況과 問題點.....	김희순·임미령...33
I. 序	
1. 研究趣旨와 目的	35
2. 研究範圍 및 方法	35
II. 女性團體의 概觀	
1. 女性團體의 生成	38
2. 年代別로 본 女性團體活動.....	38
III. 女性團體 活動 및 組織現況	
1. 團體의 目的과 規模.....	51
2. 團體의 組織과 運營.....	55
3. 團體活動의 機能과 形態.....	63
4. 團體의 指導者	70
IV. 團體活動의 問題點	
1. 會員과 非會員의 一般的 性格	78
2. 會員의 參與形態	86
3. 團體活動에 대한 非會員의 態度	104
V. 期待하는 團體活動의 方向	
1. 內容面에서	119
2. 對象面에서	124
3. 要望事項.....	127

斗 畢

女性團體 一覽表

간행사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급격한 국내외적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祖國近代化와 輸出増大를 위한 國民總和를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들도 社會經濟 構造의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 이외에 각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活動의 領域도 넓히면서 직접으로 進出하거나 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습니다.

經濟的 發展과 生活水準의 向上, 家族制度의 變化, 教育水準의 向上 등으로 여성들의 社會參與는 어느시대, 어느 사회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단체를 통한 奉仕活動과 成人教育에 積極 參與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組織되어 多方面에서 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며 단체활동을 통하여 女性의 地位向上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가의 全體의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 70여개의 여성단체가 組織되어 여러가지 形態와 內容의 事業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는 세미나, 精神教育, 技術講習, 趣味講座的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으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으며 家族法 改定建議, 消費者保護運動, 家族計劃運動은 凡女性團體 事業의 結實이며 成果인 것입니다.

한 여성으로써 여성단체의 지도자로서 여성단체활동에 參與하면서 일찍부터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적자를 내고 싶었으나 이제야 이렇게 結實을 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에 대해 歷史적으로 考察해 보고 現在 活動하고 있는 단체의 現況과 活動狀況, 組織은 어떠한가 회원들의 參與形態 그리고 一般女性들이 보는 여성단체와 단체를 통한 그들의 要求事項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 책자를 통해서 把握되며 나아가서 女性團體의 問題點과 解決點을 摸索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본 研究誌가 나오기까지 財政的으로 後援해 주신 柳仁淳 後援會會長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협조해주신 각 여성단체 여러분과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77. 12.

社団法人 女性問題 研究會 會長 朴貞子

CONTENTS
ORIGINAL ARTICLES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THE EFFECT OF THE DIET ON THE BLOOD SUGAR IN DIABETES MELLITUS
J. H. HOLLAND, M.D., and J. H. HOLLAND, M.D.

지나온 본회의 발자취

—창립 25주년에 즈음하여—

黃 信 德

(女性問題研究會顧問)
(秋溪學院理事長)

(차 례)

- | | |
|--------------------|------------------------|
| 1. 지나온 본회의 발자취 | 5. 가정경제 문제에 초점을 둔 二代회장 |
| 2. 여성문제 연구원 발족 | 6. 제전에 안간힘을 |
| 3. 간판을 바꾼 여성문제 연구회 | 7. 朴貞子 제4대 회장의 원대한 꿈 |
| 4. 가정법률 상담소의 설치 | |

1. 지나온 본회의 발자취

시작할 때 부터 오늘까지 약 四半世紀의 歷史를 가진 본회다. 만가지 조건이 갖가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업적이 어떠한 오늘까지 계속되어 오는동안 대내적으로 실패한 사업도 없지않으나 우리나라 여성운동 역사상 기록되어야 할 사업의 성취도 뚜렷하다고 생각하니 다소의 감회도 없지 않다.

6·25동란으로 부산피난지에서 생겨난 본회, 어쩌면 탄식이 된 여인모양 출산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문제연구원」이었다.

1945년 해방후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지식의 유무도 아랑곳 없이 악몽에서 깨어났다. 더욱이 수천년동안 가정적 사회적으로 남자의 부속물로 취급되어 왔던 여성들의 눈부신 자작은 역사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남녀라는 성(性)의 구별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움터왔다.

한 여성으로서든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헌신적인 결의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전통적인 남녀불평등의 관습과 제도가 이 새로 움터오는 세계적인 조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을 부자유롭게, 억울하게 불행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법률 중 특히 민법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2. 여성문제 연구원 발족

여성문제연구회의 발족은 바로 여기에 촛점이 있었던 것이다. 해방후 몇 년이 못 되어 동족상잔의 6·25로 부산까지 임시수도마저 피난을 갔을 그 무렵, 대한부인회를 비롯하여 몇몇 부인단체들은 일선장병위문과 피난민구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수백만을 헤아리는 동포와 애국지도자들이 이북으로 남치되었다. 가족들의 애타는 통곡을 어루만져주어야 했고 일시에 가족을 전쟁에 빼앗긴 수많은 전쟁고아들의 구호사업이며 피난학생들의 교육문제며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막대한 일들이 산적했다.

여성의 법적지위개선 문제들은 그 때 사회적 상황으로 도저히 손댈 수가 없었다함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법적지위를 시급히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정세에 부딪혔다. 다른아닌 日帝 때 사용하던 法典을 대한민국 헌법에 적당하도록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故人이 되신 김 병로 선생을 위시하여……권위자이신 법률가들로 조직된 법률개편 작업이 착착 진행된다. 우리 모두 상식으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제정이란 국민의 전생활을 규제하는 일이지만 언제나 쉽게 개정되는 일은 아니다. 이 때를 놓치면 또 언제까지 日帝 때의 야만적인 남녀 차별의 민법이 계속 우리 여성을 노예의 처사술에 물들여매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자각 있는 몇 분 지도여성들의 결의를 합치하는데 일사천리로써 진달되었다. 이러한 일에 응감한 우리 동지들은 때를 놓칠세라 발설 10여일만인 1952년 11월 11일 발기총회를 여는 데 성공했으며 여성문제 연구에 뜻을 같이 하는 17명의 발기인 黃信德, 黃愛德, 朴賢淑, 朴順天, 張和順, 李禮行, 趙近洪, 裴景祚, 朴奉愛, 朴仁池, 金順華, 李兌榮, 李經鎭, 吳世任, 金縣賓, 金貴仁, 毛允淑氏와 다음과 같은 취지로 女性問題研究院을 발족시켰다.

고난의 역사 속에 크나큰 사명을 걸어진 한국은 그 가진 바 문제 가운데 새롭고 증대한 것의 하나로서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긴급히 요청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제 이 나라에 삶을 받은 우리 여성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여성이 사회면에 진출한 것은 3·1운동이 그 첫 출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었을 뿐 아니라 전력을 광복운동에 집중하였고 여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 절식상태에 처하여 활발한 운동은 전개치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하여 오랜 봉건사의 제도 하에서 활로를 모색해 온 우리 나라의 여성은 세계 어느 나라의 문명국가 보다는도 그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개척하지 못한 황무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8·15해방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봉건적인 담벽을 뜯고 넘쳐들어온 민주주의 사조는 우리 여성에게도 헌법상에 남자와 같은 권리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면에서 본능에 어긋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실로 여성의 민주적인 지위향상과 발전을 저지하는 것으로서 우리 여성들은 모름지기 안으로 素養을 기르고 밖으로 여성의 가질 바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여성자체의 엄숙한 의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새로운 자각과

작으로 가지고 여성의 주체 의식을 확립시켜 명실상부의 민주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를 창설하고 한국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연구에 전력하고 공헌코자 하는 바이다.

부산에서 1952년 12월에 열린 임시국회는 형법中 남녀상벌령을 적용해 달라는 조문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부산 대한부인회원을 비롯한 각지에서 응원왔던 수백명 회원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당시 국회의원인 박 순천씨와 이 대령, 표 경조씨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한표 차로 통과된 것은, 잘못고 잘못된 것은 시대에 따라 재고할 여지가 있겠으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953년 정부환도와 함께 본회도 환도하여 乙支路 적산가옥 2층에 자리잡았다. 환도後 바로 여성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배우 1차 강좌, 강연,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법적지위가 어떠한다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할은 물론 다른 나라의 여성지위와 비교·연구도하여 많은 동지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이것은 본회의 발기인이며 한국 초대 법률가이신 이대영 박사가 본회 연구부장이며 출판부장을 겸했던 연유와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얻은 탓이다. 수년을 두고 여성의 법적 지위개선을 위한 진정서, 호소문을 작성·발행하며 많은 다른 여성단체 간부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즉 당시 유력한 여성단체들—대한부인회, 여자국민당, Y.W.C.A., 기독교결계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대표들과 회동하여 임시로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 위원회(회장 박헌숙)를 조직, 제동에 힘썼고 여론에도 주력한 효과가 있어서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1960년 1월 1일 신민법중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조항이 통과되었다.

그 당시의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親族相續法上 改正을 要하는 條項

1. 親族範圍를 定하는데 있어서 男女不平等
2. 妻의 同意없는 男便의 庶子入籍
3. 財産相續에 있어서는 男女差別……妻 및 女息의 相續分과 庶子女의 相續分問題
4. 婚姻解消時에 있어서 離婚配偶者에 對한 財産分配 請求權 및 慰籍料, 扶養料의 履行 確保制度의 新設
5. 夫婦間 歸屬未分明 財産에 對한 夫의 所有……夫婦共有
6. 親權行使에 있어서 夫의 優先的地位……父母共同行使
7. 戶主相續에 있어서 嫡出女에 優先하는 庶子의 地位
8. 同性不婚原則 發止
9. 其 他
 - ㄱ. 戶主制度의 廢止
 - ㄴ. 婚姻成立 宣言制度 規定新設
 - ㄷ. 遺留分制度의 新設
 - ㄹ. 夫婦間 同居場所의 協定
 - ㅁ. 協議離婚 當事者의 離婚意思確認制度 新設

二. 家事裁判所 · 設置 必要性

1. 家庭에서 發生하는 事件은 公開裡에 法官의 判決로는 해결하기 困難한 問題이므로 調停과 和解方法이 必要합니다.
2. 논쟁과 응서가 없는 法으로만 子女教育의 요람인 家庭問題를 處理하는 것보다 法律과 科學 特히 醫學, 生物學, 社會學, 心理學 等 諸 科學을 協同해서 對象의 個性을 把握하고 거기에 適合한 家事裁判所 制度가 家庭秩序 維持와 人權保障을 위하여 가장 理想的이라고 봅니다.
3. 우리 社會 實情에서 經濟力없는 家庭事件 當事者와 家族制度 矛盾에서 수없이 人權을 유린 당한 被害者를 救濟할 수 있는 길은 오직 家事裁判所 設置에 있다고 認定합니다.

西紀 一九六二年 七月 日

大韓女學士協會長
大韓어머니會長
大韓家政學會長
大韓女子基督青年會聯合會長
大韓基督教女子節制會聯合會
女性問題研究會長

貴下

3. 간판을 바꾼 여성문제 연구회

본회의 명칭변경의일.....“연구원”, “연구원”이라 지나치게 아카데미하군.....졸업장도 주겠나?” 이 것은 당시 유지감사 중 한 분으로 조선일보 중견직원 총 중인 선생의 말씀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 때 연구원 규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면 회원의 자격도 대학출신으로 두 사람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했고 연구원의 사업도 조사연구를 주로 통계로 내는 일이며 여성관계 서적을 적극 수집하면서 “여성운동사”를 발간하기로 내정했던 일등.....그리고 보니 후원회의 범위, 후원자의 필요, 선전사업 등 연구단을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르게 마련이다.

1955년 회칙을 변경하면서 “여성문제 연구원”을 “여성문제 연구회”로 바꾸고 회원자격이나 사업운영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다.

4. 가정법률 상담소의 설치

자연적으로 법률상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있으나 이용하여야 할 방도를 물어오는 사람이 날로 그 수를 더해갔다.

1956년 8월 25일 여성법률 상담소를 본회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이 태영씨를 소장으로 그 밖에

여러 법률가의 후원을 얻어 정식 출발했다. 확장일로에 들어가 상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한편, 「百問百答」이란 책자와 「가정법률 상담실기」등 출판물을 발간하여 수많은 불우여성의 길잡이가 되었다. 수년간 본회 부설기관으로 상담소를 운영했으나 확장일로에 들어선 상담소는 차차 넓은 장소로 이전되게 되었다. 이곳 저곳으로 3, 4차 이전하는 중 본회와의 관계가 사무상 번거로움으로 1960년 4월 13일 여성문제 연구회로 부터 독립하여 대평로 소재 사무실로 이전 하였다.

5. 가정경제 문제에 초점을 돌린 二代회장

새월은 들어 1964년 2월 19일에는 나의 가정사정과 관계하는 학교일 등으로 본회를 사퇴하였다. 10년 가까이 본회의 책임을 지고 어려운 일, 실수된 결과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잊지못 할 행사 하나를 예로 들면 1962년 11월 11일 본회 10회 창립기념행사 및 가정법률 상담소 설치 6주년 기념행사였다. 전시물로는 한국부인단체의 史的 조사와 수집된 여성관계 잡지였다.

제 2대 회장으로 이 회호 씨가 추대되었다. 이 회호 씨는 부산서 본회 창설 당시에 총무직을 맡아 수고한 연고자일 뿐 아니라 젊고 유능한 지도자로 기대가 있었으므로 이 경일 씨등 부회장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미 여성의 법적 지위문제로 많은 업적도 올렸고 또 시대가 점점 실생활에 눈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절에 착안한 2대 회장은 가정문제에 역점을 두고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등 여러 회원들의 감명을 얻어 시민회관에서 대강연회를 개최, 선전에 주력하는 한편, 본회 부설로 1965년 12월 30일 가정경제 부조형회를 만들어 좌담회·친목회 등으로 적극적 호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조합을 만들어 회원중심으로 소규모지만 가정에 필수품을 공급하는 판매에 착수했다. 분유, 설탕, 간장, 기름, 휴지 등 제조회사와 결탁, 실비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 이일은 부회장 이 경일 씨가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1년이나 봉사하였다. 본 회관에서 시작, 장소를 병문동에 까지 옮기며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나 생존경쟁이 날로 빈천하는 세상에서 어수룩한 순진과 여성회원들의 뜻만으로 성공될 수 없었다. 수고한 보람없이 된 일 중의 하나—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업으로 각 직장 여성의 책임자격인 젊은이들의 모임을 시도한 것이다. 각 직장에서 여성의 활동상황, 애로상황, 보수 등을 공동연구하자는 참뜻은 사업을 매우 흥미롭게 시도했던 일로 값비싸게 평가된다. 그러나 본회로서는 그 이상의 대를 맺지 못했다. 때마침 전문적 여성클럽이 생기 되었기 때문이었다. 별로 본회와의 관련을 아는 이가 없을 지 모르지만 본회 2대 회장의 앞길을 밀어보는 사업의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던 중 불행하게도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의 일시적 실수로 본회로서는 적지않은 자금의 손실을, 또 본회를 후원해주신 유계 몇 분에게 지극히 괴상한 결과가 되었다. 이 일로 많이 상심했고 책임감을 느껴 종시 사표를 내게 된 일도 섭섭하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하는 후진들을 위하여 사실대로 기록하는 바이다.

6. 재건에 안간 힘을

제 3대 회장으로 1976년 김 봉희씨 가 추대되었다.

침도 없고 주인도 없는 허허 빈판과 같이 된 본회, 나는 해산을 주장했으나 인연있고 뜻깊은 몇분, 한 기주씨, 이 에델씨를 비롯 젊은 회원 수십명이 해산에 반대, 재건을 다짐해 주었다. 얼마나 불행 中 다행이라고 마음 호뭇했지만..... 임원회만 있던 회칙을 고쳐 이사회를 두고 재정권, 인사권을 이사회로 물리는 등 규칙을 변경하고 젊은 주머니들을 털어 재출발을 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한기주씨의 공로에 감사한다. 빈함없이 본회 중건으로, 튼튼한 기둥으로 추대하는 바이다.

김 봉희 회장은 재건사업으로 뜻있는 유지회원, 불지들을 규합하기에 전력을 기울였고 능란한 고우원제로 많은 후원자를 동원시키며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부드러운 회회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새 집을 지어야 할 처지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건의 꿈을 키우다가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본 회장직을 사퇴하였다.

7. 朴貞子 第四代 會長의 원대한 꿈

1976년 8월 이러한 다사다난한 입장에 있는 본회에 재건의 큰 뜻을 품고 제 4대 회장으로 朴貞子 氏가 회원이 추대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재건」이라기 보다는 회의원 나름대로 큰 뜻이 있어서 이 고단한 여성단체에 착수한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 바 크다.

개인적 성격으로 보나 국회의원의 사명으로 보아 큰 포부와 시대적 사명감 없이 허락될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 본회의 사명이 중차대함을 예견, 폭넓게 또 깊이있게 착수하는 박회장의 건부를 믿며 포부하는 바 때로 성공될 것을 믿어마지 않으며 더욱 마음튼튼한 것으로는 후원회 회장이신 유인순 여사의 만만치않은 성격과 그의 능력을 소망스럽게 믿는 마음이다.

그 외에 이사, 여러 후원회이사, 현 직원들의 건투하는 모습을 소망스럽게 바라보며 기뻐한다. 본회의 목적인 바가 더 크고, 높고, 길고, 넓게 성공되기를 믿며 25년의 지난날을 회고하는 바이다.

제 1 부 논 문 편

世界名畫

一、世界名畫概論	1
二、世界名畫之分類	2
三、世界名畫之欣賞	3
四、世界名畫之保存	4
五、世界名畫之研究	5
六、世界名畫之介紹	6
七、世界名畫之影響	7
八、世界名畫之地位	8
九、世界名畫之價值	9
十、世界名畫之未來	10

I. 근대 여성단체 활동의 史的考察

김 영 정

(이대·사학과 교수 한국여성연구소소장)

1. 서 론

한국여성의 사회참여는 國難과 더불어 그 역사가 짧지 않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단체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의 일이다. 최초의 여성단체가 탄생한 1898년에서 1930년대까지의 주된 활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여성운동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보다 1세기 이상 먼저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歐美에서는 市民意識의 형성과,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 변동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 스스로가 權利에 대한 자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와 法과 제도를 비판하면서 남녀의 平等을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투쟁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여성들은 개화기의 정치적 전환기를 계기로 개인적 혹은 여성의 權利意識에 앞서 민족적 위기의식을 먼저 경험한 것이다. 그들의 투쟁의 대상은 日帝였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주독립에 있었으므로 남성과의 대결보다는 오히려 개화적 남성들과의 同志的 유대와 협조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여성운동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통찰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스스로의 지위향상이나 權利伸張에 앞서 민족의 운명과 통일시켰다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근대에 와서 여성에 관한 일반적 관심이 높아져서 여러 측면으로 검토, 연구되어지고 있다.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한 논문과 책도 적지 않으며 특히 抗日運動에 관한 연구로서는 여러 편의 논문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筆者는 이러한 기존문헌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의 최초의 모임인 順成會의 탄생으로부터 檀友會의 활동시기까지를 다루기로 하였다. 이들 주요단체의 조직경위와 활동의 내용을 살펴으로써 여성단체활동의 방향모색에 조그만 빛이나마 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2. 여성단체 조직의 배경

1876년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開港과 함께 오던 새국에서 깨어난 한국은 새로운 武器와 제국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列強에게 에워싸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개화주의자들은 현실타개와 富國自強을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첫째 그들이 제시한 것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이었다. 우리 민족이 西歐와 일본에 비해 뒤떨어

진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여성의 교육을 통한 것이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진력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파하였다. 즉 여성은 “人世의 根源이요, 家室의 棟樑이며” 二世인 아동 교육을 담당할 뿐 아니라 우생학적으로 母體의 건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여성을 가꾸어 두는 것이 부당한 일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은 國力과 직결됨으로 여성의 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1888년 개화에 대한 상소를 올린 朴泳孝라든가 「西遊見聞」(1889)을 쓴 徐吉潸같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여성운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여성에 대한 문제집을 지적해 주었다.

그 외에 여성의 계몽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헌한 요소로는 동학사상과 17, 18세기 이래 그리스도교의 전래를 들 수 있겠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유교의 관습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여자의 외출이 극히 제한되었던 당시에 남자가 같이 예배를 본다는지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익히느냐는 등 근대적인 의식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1886년 이화학당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선각자적인 여성지도자 양성에 좋은 비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의 개화·계몽에 직접 큰 공헌을 한 것은 1896년에 설립된 獨立協會와 그 기관지 「獨立新聞」을 필두로 하여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등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동학사상에서 볼 수 있는 남녀평등론의 주장은 甲午改革(1894~5)에서 제도화되었으나 日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대중들의 진정한 호응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히 獨立協會와 같은 선각적인 단체에서는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外勢에 의존하기보다 자주적인 近代化에 있음을 깨달아 직접 여성들의 불평등한 처지를 일깨워주고 수시로 정기토론회와 신문논설을 통해 여자교육의 문제는 물론 과부의 再嫁, 蓄妾 등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고취시켰다.

「獨立新聞」은 근대사회의 확립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과 민주사상을 깨우쳐준 신문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獨立新聞」이 舉論한 문제는 자주독립, 자유민권, 自強개혁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으며 창간호(1896. 4. 7)부터 여성문제를 논설에서 다루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같은 사회단체, 신문 등의 고무적인 활동은 여성들에게 많은 자극과 용기를 불러 일으켰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開港 이후 외부와의 접촉과 개화과의 영향으로 민중들의 意識이 깨워치지는 속에서 최초의 여성단체인 順成會(贊襄會 또는 贊成院)가 설립되었다.

다음 章에서는 順成會의 창립으로부터 1910년을 전후한 여성단체들을 敎國·愛國을 위한 단체와 親日的인 단체로 大別하여 그들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구한말 여성단체의 활동

1) 敎國·愛國 단체

舊韓末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앞서 말한 獨立協會의 계몽운동과 기독교 선교사의 교육활동은 사회단체가 조직되는 데 중요한 산과역을 담당하였다. 특히 여성교육은 민

족의 실력양성과 敎國운동에 직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곳곳에 여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를 후원하기 위한 부인회, 학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된 최초의 것이 順成會(찬양회 또는 양성원)였다. 이회는 1898년 9월1일 北村의 양반층 부인들이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도록 정부에 중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順成會의 여학교 설립을 위한 通文의 내용을 보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교육을 받는 일만이 남녀가 동등해지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여성이 스스로 남녀평등을 제창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회는 남녀 有志의 기부금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順成이라 정하였다. 여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회이므로 順成會, 찬양회, 養成院 등의 이름을 지냈다. 회원은 물론 여자들이 주동이었으나 여자교육을 찬성하는 남자찬성원과 외국여성도 포함되었으며 남자 찬성원장에는 尹致昊가 선출되었다. 이러한 多元의인 회원의 구성은 개화기 여성단체의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국내외의 많은 보조와 찬성 및 지도가 다르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順成會에서는 관립여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學部(오늘날의 문교부)에 상소하였다(1898. 10. 11). 그리고는 정부에서 여학교를 설립할 때까지 자진하여 會의 書記(眞吉堂高氏)를 교사로 하여 학교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정부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여학교 설립안을 否決시켜 버렸다. 여기에는 順成會의 후원기관이었던 獨立協會와 정부의 보수파 세력간의 정치적 알력이 작용하였다고 보아진다. 그 후 順成會는 여러 번 여학교 설립을 건의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순성회의 활동은 1905년 이후 부터 신문記事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활동이 정지된 것 같다. 활동기간이 비록 짧은 하였으나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조직된 근대적인 여성단체로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동등해야 함을 의식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獨立協會가 주관한 萬民共同會와 같은 정치운동에 까지 참여하였던 것이다.

順成會 설립이후 1905년까지 다른 여성단체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899년에 창립된 女友會(一名 女會)가 있다. 이회는 鄭亨澈등 50여명의 교회여성들이 蓄妾반대운동을 위해 덕수궁 앞에서 일주일간 연파데모를 벌였다고 하나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905년부터 1910년은 일본의 침략정세하에 한민족의 敎國意識이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義兵으로,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침략자와 대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6~7년 사이에 설립된 사립학교만도 3,000여개나 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단체활동 역시 敎國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들의 활동에는 아직 소극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한 면도 있었으나, 민족의식의 성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한편 順成會가 이루지 못하였던 관립여학교 설립의 꿈은 1908년 5월 純宗황후의 女子敎育勅命을 받들어 조직된 大韓女子興學會의 발족으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회는 황족부인과 귀족 및 大臣의 부인들로 발기, 조직되어 이들의 후원으로 官立漢城高等女學校(지금의 京畿女子高等學校)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미루어오던 관립여학교의 설립을 서

두르게 된 것은 한국여성들의 근대화나 지위향상 보다는 현모양처를 목적으로 하는 日帝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1906년 6월 초에 秦學新, 高義駿, 秦學胃 등이 설립한 女子敎育會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여자교육을 시행하고자 뜻있는 동지 및 기부인 280여명을 규합하여 조직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여자초등과정인 養閨義塾을 창립하였다.

女子敎育會는 학교설립 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通常會와 아울러 빈번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범사회적인 계몽운동과 여성개화에 앞장섰다. 토론회의 제목을 보면 “婦人의 衣服도 淺色보다 深色이 可”, “婦人이 社會上에 交際하려면 内外아니함이 可하다” 등, 뿌리 깊은 인습의 폐단을 지적,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女子衣冠改良案을 정부에 청원하기도 하고 (1906. 12. 8), 일반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生命保險課의 설치를 위한 시도와 用達株式會社의 설립을 보았다. 한편 고아원과 共立病院을 세워 군인, 순경(오늘날의 순경)과 학생을 반액으로 치료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욕을 보였으나,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였다. 그들은 주로 捐助金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업과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養閨義塾은 문을 닫게 되고, 女子敎育會는 李 鉉卿을 총제로 재조직되었다.

당시에 조직된 대부분의 여성단체와 같이 女子敎育會에서도 고문 또는 贊務員 등의 형식으로 남자들의 후원 또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顯成會이며 남성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당시 여성개화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절실한 요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李 鉉卿을 중심으로 재정비된 會는 新學院(후에 女子普通學院)을 併設하고, 이를 위해 女子普通學院 維持會가 따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 단체는 親目的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1907년 봄 女子敎育會 부속학교로 설립된 女子普通學院은 1908년 초 부지에 허덕이는 女子敎育會로부터 女子普通學院만을 독립시켜 그 유지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同年 6월말 경에는 養源女學校로 개칭하였다.

女子普通學院의 특기할만한 활동은 「女子指南」(1908. 5. 25創刊)을 발행한 일이다. 이것은 여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여성잡지의 효시가 되었으나 아마도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창간호를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외에 교육활동을 하였던 여성단체로는 1908년 12월 大邱에서 자선술 목적으로 조직된 大韓愛國婦人會가 있다. 이 會는 純宗의 下賜金을 기본금으로 하여 고아원을 設施할 예정이었는데 우선 기성 출신인 총무 鄭 上恩의 집에서 고아를 모집하여 교육하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會는 東洋愛國婦人會와는 달리 순수한 애국부인단체였던 것 같다.

그리고 普通學院을 경영하였던 潼關女子敎育會(1907), 女學校聯合獎學會(1909. 6), 女子討論會 등의 모습이 보인다.

한편, 지방에서도 많은 부인회의 설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평양의 여자교육연구회, 남양여자교육회, 삼화향의 유선부인회(1909~10), 平南순천의 부인회는 일선여학교를 세웠고, 白川(1910), 元山(1908), 海州(1910), 金海 화산면 사암리, 咸南 갑산(1910) 등지의 부인회를 볼 수 있다.

1900년(또는 1901년)에 창설된 保護會는 경종 제1교의 안에 조직된 감리교 여성 자선단체이다.

梨花學堂 출신인 黃 扶體가 주동이 되어 敎理研究와 전도활동 및 생활개선에 노력하였으며 1919년 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日本은 乙巳條約 이후 통감부를 통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펴 나갔다. 1907년 9월 사립학교령을 내려 萬民共同會나 國債報償運動과 같은 정치참여운동이 금지되었다. 습邦 이후로는 여성단체 활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범위로 축소되었고 모든 여학교의 교육은 地誌, 역사, 산술 등의 내용보다 먼저 정숙한 현모양처를 위한 순종을 가르쳤으며, 부녀자의 정치문제 간여는 일체 금지하였다.

이같은 식민지 교육정책은 1911년 8월 23일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고, 실제생활과 관련이 깊거나 또는 식민지에서의 생산증가에 필요한 기술교육이나 실과교육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養蠶所와 농업학교 등이 설립되고 이와 더불어 같이 하여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도 생겨났다. 1910년 10월에 설립된 婦人實業商會는 직업이 없는 여성들을 직공으로 모집하여 실업을 강령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목적인 바 養蠶會社는 세우지 못하였다. 이같은 교육정책은 곧 한국인의 지적수준을 낮추고 愚民化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습邦 이전 여성단체활동의 전경은 國債報償運動에 보여준 여성들의 활동이었다고 하겠다.

日帝는 통감부 설치 이후 施政改善이란 이름으로 거액의 차관을 대주었는데 1907년에 와서는 부채가 1,300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의 침략에 반발하고 있던 국민들은 만일 이 國債를 갚지 못하면 국가와 민족이 일본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자주독립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반성아래 일어난 항거운동이었다. 報償운동의 발단은 1907년 2월 대구의 서 상돈, 김 광제 등의 廣文會에서 國債報償을 위해 3개월간 斷煙한 돈을 기부하겠다는 취지서를 공포한데서 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대구여성들도 1907년 2월 23일 남일동에서 「폐물제지부인회」를 결성하고 전국 여성동포에게 徵文을 발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3개월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운동초기에는 親日단체까지도 호응을 보였었다. 報償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나뭇꾼, 술파는 여인에 이르기까지 참여지 않은 이가 없었다.

國債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여성개화운동은 이제 항일구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전국 곳곳에 국제보상에 가담하는 수많은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그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1907.3~1907.6).

대 구 : 남일동 폐물제지부인회

국제보상說選會

대구斷煙償會

서 울 : 부인減煙會

대안동 국제보상부인회

부 산 : 부산항 佐川里 부인회 減煙義捐會

부산 영도 국제보상부인회

삼화항 : 삼화항 폐물제지부인회

창 원: 국제보상부인회

안 성: 안성 楊基洞 부인회

인 천: 掬米積誠會(耶蘇敎부인들이 조직)

선 천: 선천義成會

영흥군: 국제보상 減飯會

안악군: 국제보상 脫還會

낙양군: 義成會

진 천: 국제보상회

청북, 강계: 淸北·江界夫人 汲水報償會

전 주: 애국부인회(실제로는 조직되지 않은 듯 하다)

여성들의 국제보상운동의 참여방법은 주로 폐물捐納과 減餐, 誠米捐納이었다. 이 밖에도 용돈을 절약해서 보상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기존 女子敎育會 등에서 捐金을 거두었으나 그 규모는 적었고 지방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의사표시나 행동화하기는 전례없는 모습이었다. 여성들이 국민으로서 자각과 의무를 깨닫고 국가의 운명이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의식이 근대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제보상운동은 비록 日帝의 농간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나, 한국여성이 최초로 전개한 현실참여, 정치참여 운동이었다고 하겠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1907년을 전후한 수많은 여성단체 조직자 중에 국제보상에 참여한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중요도시의 양반이나, 前官의 부인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아직 전통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다수 여성들이 이 운동에 참여케 하는데 성공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당시 여성단체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앞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제보상운동을 비롯하여 애국·제몽의 여성단체 중요간부들은 거의 모두가 종래의 양반 또는 前官 부인이었는데 反해 親日 여성단체는 親日顯官의 부인이나 처첩들이라는 데 특색이 있다. 이같은, 親日顯官의 처첩이나 이들과 밀접한 新女性의 활동은 정부와의 정적 반향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이었을지는 모르나 일반 대중들과는 유리된 채 영합하는 힘이 미약했다고 하겠다.

그 후 3·1운동 이전까지 여러 여성단체가 조직·활동하였으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지속성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실정으로는 前衛的인 것이었다. 활동의 성격은 松竹會(1913)의 조직을 계기로 점차 抗日을 목적으로 한 단체의 출현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교육, 제몽, 자신의 성격이 그 본래의 성격이라 하겠다.

2) 친일적인 경향의 단체

구한말은 또한 일본이 한국여성의 개화·제몽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어용적 사교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의면치레와 형식위주의 활동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親日的인 여성단체를 따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親日團體의 分類는 조 광래 著, 韓末社會團體史論攷(1972)를 참조하였음).

韓日婦人會는 명칭이 말하듯이 韓日귀족부인들로 구성된 슬로서 1906년 1월에 설립되었다. 嚴

妃를 총계로 표면적인 목적은 韓日兩國婦人の 친목과 귀족여학교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수행의 필요에 따라 조직된 것이었다. 이会是 같은 해 5월에 普信女學校를 개설하고 1907년에는 이를 明新女學校로, 다시 1910년에는 淑明女學校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06년 12월에 발기된 婦人學會는 그 취지에 의하면 여성교육을 학식없는 여자들에게만 그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각 여성회원의 家長(남편)들이 贊務會를 조직하여 부인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회원의 남편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 學會가 처음일 것이다. 이 學會에서는 일요일마다 3시간씩 가정주부에게 필요한 가정·경제·교육·요리·생리학 등의 수업을 제공하였는데 유자부인들과 일본인 여교사가 가르쳤다고 한다.

1907년 4월 申 簾堂, 崔花士 등이 발기한 進明婦人會는 여성의 교육과 殖産 및 女工을 개발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銘心十條를 공포하여 여성회원들이 명심하여 행할 바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전통적 도의를 지키면서 사치배격과 미신타과 등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養園義塾을 지원해 오다가 1907년 6월에는 會館내에 附設시켰다고 한다.

한편 김 태경, 최 성경, 민 현자 등에 의하여 창설된 養貞女子教育會는 女으로서 사회에서 전대받는 것에 항거하여 같은 신분의 여성을 규합하여 養貞女學校를 세우고 교육에 힘썼다.

慈善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로는 1907년 9월 4일에 발기 조직된 慈善婦人會가 있다. 활동면으로는 경성고아원의 재정난을 돕는 한편 藥兒收養所를 설치하였고(1908. 2. 5), 慈惠病院을 설립하고자 청원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藥兒收養所도 1년이 채 못되어 藥兒養育會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밖에 각 여학교 출기 대운동회를 주최하기도 하고 기관지인 「慈善婦人會雜誌」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주요 구성원이 一進會의 간부 부인들로서 一進會의 자매단체인 것 같다.

또한 경성고아원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慈善婦人會(1908. 7. 8 사이에 創立)는 上記한 바 있는 李 鉉卿이 발기한 것으로 임원진이 모두 親日派 부인들이었다. 李 鉉卿 자신도 五臟中 한사람인 李 址鎔의 부인으로서 당시 많은 여성단체를 조직한 활동적인 「신식여성」이었다. 이들은 연설이나 연회를 개최하거나 활동 사진회를 열어 그 이익금으로 경성고아원을 도왔다.

그리고 일본 東洋婦人會의 한국 支部적인 東洋愛國婦人會는 1908년 9월 李 鉉卿, 權 厚子, 鄭松岡 3인이 여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養心女學校를 설립하였으나, 교육보다는 일본부인과 정부 고위관리부인들과의 社交적인 친목활동을 주로 한 것 같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부인위생에 유의하여 婦人病院을 설립하고, 護産院을 부설하는 등의 자선사업을 하였다.

일본의 정책에 부응하는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는 大韓婦人會, 婦人經濟會, 韓日婦人會 등이 있었다. 大韓婦人會는 이미 1905년 7월에 조직되어 있었는데, 여자의 婦德을 함양하고, 자녀의 교육을 보급하고, 여러 자선 사업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주로 여성의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06년 4월에는 「용산 대한부인회 양잠소」를 설치하여 蠶業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자의 외출을 제한하였던 사회 실정으로 초기에는 여성보다 남자강습생이 많았다고 한다.

大韓婦人會가 親日인 색채를 띤 단체이기는 했지만 유교적 관습에 얽매어 실업교육을 전시하던 풍토에서 蠶業을 교육하였다는 것은 경제관념을 통한 자립정신 내지는 독립정신을 길러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여성개화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婦人經濟會는 1909년 7월경 李 鈺卿을 중심으로 大臣 및 實業家의 부인들이 발기한 것으로 우리 나라 여성들의 경제관념이 부족함을 열려하여 實業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성사되어 결성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한편 全南 나주군에 있던 韓日婦人會(羣業婦人會)는 서울의 韓日婦人會와의 관련여부는 알 수 없으나, 1910년 5월경 羣業傳習所를 설립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한다.

그밖에 親日인 단체로는 前述한 바 있는 女子教育會와 大邱妓生組合所(1910)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親日 여성단체들은 거의 모두가 그 조직경위나 위치·목적 또는 활동면에서 무엇이 내세울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표면상으로는 황실의 존영과 여성의 개화, 계몽생활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韓日간의 친선을 도모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韓日 간의 合邦에 찬성하여야 한다는 底意를 품은, 요컨대 敎國을 위장한 명목적 배국적인 日帝의 애찰·주종을 내용으로하는 단체들이었다.

4. 3·1운동 전후 여성단체의 활동

日帝는 한일합방과 동시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은 헌병경찰조직을 통하여 이른바 「武斷政治」를 강행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체제하에서만한 한민족에 대한 경제적 수탈, 사회·문화·사상면에서의 탄압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방이전까지 끊임없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던 여성단체의 종래의 활동은 민족의 다른 단체활동과 마찬가지로 정지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여성교육 역시 二世의 日本臣民化와 日本軍國資本主義의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初級實業教育에 준한 것일 뿐 이었다. 다만 「일본에국부인회 한국본부」라는 이름의 단체가 일본관료부인과 몇몇 일제의 國人 알잡이들의 부인만으로 구성되어 그들의 정책에 호응, 지지하는 약간의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佛敎婦人慈善會」등이 있을 뿐 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정비례하여 한민족의 반일감정은 점차 高潮되어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항일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여성단체로는 平壤에서 조직된 비밀결사단 「松竹會」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梨花學堂 출신이며 당시 평양 崇義女學校 교사이던 黃 愛德이 중심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총명한 학생들을 뽑아 애국사상을 고취시켜 松·竹의 형제의 의를 맺어 비밀히 결사단을 조직한 것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女子商會」라는 소비단체를 조직하여 국산애용·물자절약 등의 포어를 내걸고 활약하면서 이익금과 회비를 거두어 上海·北京 등지의 독립운동단체에 송금하였다. 그들은 또한 해외에서 발간된 「獨立新聞」을 국내에 보급하며, 해외에서 파견된 密使들에게 은선처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애국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 13道에 회원을 파견하여 독립사상을 널리 고취시켰으나 1919년 3월 19일 중심인물 黃 愛德이 체포 구금되자 사실상의 활동은 정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의 항일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니었다. 1919년 2월 8일 동경유학생인 김 마리아 등이 3·1운동 준비를 위한 獨立宣言式을 가진 일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의 어린 여학생들이 만세시위를 하였으며, 기성들과 종교단체에 소속된 여성 그리고 간호원, 여교사, 가정부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방방곡곡의 시장과 거리에서 절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外的인 정세가 불리하였다는 점과 대내적으로 이러한 거족적인 운동을 강력히 압력단체로 승화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당시 지도자들의 소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말미암아 민족개개인의 가슴에 自我의 눈이 뜨이고, 능력을 자각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면서 그 정신적 기반을 굳게 다졌다고 볼 수 있다.

3·1운동 직후 국외로 망명하지 못한 애국지사들은 모조리 검거 투옥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생계가 막연하였다. 이때 여교사 吳玄淵, 吳玄觀 자매와 세브란스 병원의 李貞淑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貞信女學校 학생과 지식여성들을 규합하여 그를 투옥인사와 가족에 대한 후원사업을 목적으로 1919년 3월 중순에 「血誠團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한편 崔淑子·金元慶·金熙王 등이 「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大韓青年外交團」과 더불어 독립운동자금조달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표 金元慶의 上海과전을 계기로 항일 투쟁노선의 단일화를 위해 「血誠團愛國婦人會」와 의전의 접근을 보게되고 두 여성단체는 통합하여 「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운동자금의 모금과 장차 있을 독립전쟁에 대비한 赤十字활동이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평양·대구·개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요도시와 邑에 支部를 설치하여 그 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시켰다. 회원들은 수에품을 만들어 판매한 돈과 회비의 $\frac{1}{3}$ 을 모아 독립운동자금으로 上海에 보냈으나 액수는 쌀 7石 값에 미달인 300원이었다. 이회는 3개월후인 1919년 9월 金마리아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大韓民國愛國婦人會本部」로 개칭하였는데 2개월 조금 지나서 회원은 백수십명으로 증가하고, 임시정부에도 6,000원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커다란 성과의 비결은 독립전쟁에 대비한 전쟁체제로의 개편에 있었다. 部署개편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2명씩의 赤十字長과 決死長制의 신설이다. 당시 민족지도자들은 한민족의 독립을 위하여는 對日獨立戰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어, 임시정부에서는 軍官學校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며, 부상자 치료·구출을 위한 「大韓民國赤十字會」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서울에 總支部를 설치하고 各道에 지부를 그리고 학교와 직장단위로 회원과 대표자를 두었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大韓青年外交團」과 「大韓愛國婦人會」의 회원들이었다.

독립전쟁에 대비한 「大韓民國赤十字會總支部」의 조직과 「大韓民國愛國婦人會本部」의 체제개편은 모두 1919년 9월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고등경찰에 집계된 大韓民國赤十字會總支部 관계자 남녀 77명 중 45명이 「大韓民國愛國婦人會」의 役員 및 회원들이었음을 비추어 이 여성단체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체의 회원구성을 보면, 일본고등경찰에 집계된 80명 중 42명이 간호원을 비롯한 병원관계자이었고, 여학교 교사가 11명이었다. 「血誠團」회원의 평균 연령이 26세인 이 젊은 단체는,

대규모의 조직력과 기민한 활동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방에 그 支部를 설치하는 등 그 무대를 넓히 일반 여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공을 세웠다. 이 점에 있어서 「大韓民國愛國婦人會本部」의 조직력과 활동력은 남성들의 항일단체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大韓愛國婦人會本部」가 활약하고 있는 동안에 平壤에서도 기독교 부인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항일운동을 전개시킨 여성단체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北長老派 교회에서 반장을 지내던 韓 永信이 1919년 6월 하순에 발기하여 조직된 「愛國婦人會」이다. 韓 永信은 義州의 義實女子中學을 졸업후 모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平壤으로 이사와 기독교 신자가 된 여성으로 근대교육을 받은 지도적 위치의 기독교 신자였다. 그의 주장은 독립운동은 남녀가 똑같이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남녀는 다같은 국민이므로 국민 된 의무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에 의하여 조직된 이 단체의 활동방향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회비와 군자금들을 모아 국내의 독립운동 요원을 원조하며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내는 일과 국민들에게 매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이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19년 6월에 平壤西門 밖에서도 감리교와 부인신도들이 중심이되어 「愛國婦人會」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朴 昇一은 平壤紀勿病院內의 감리교 신도로서 간호원 혹은 이와 유사한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李 誠實은 교사이고, 孫 眞實은 임시정부의 議政院議長 孫 貞溫의 長女이었다. 이들은 모두 임시정부를 원조하자는 취지하에 모였으며, 平壤 뿐 아니라 江西·鎭南浦 등지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비밀리에 결사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임시정부에서는 국내의 비밀결사단들을 통합하여 계통성있는 거대한 항일투쟁 세력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의 「大韓民國愛國婦人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요원 金 貞穆, 金 淳一 등의 권유에 따라 8월부터 연합에 관하여 의논하게 되었고, 그 해 11월에는 「大韓愛國婦人會」라는 이름 아래 연합하게 되었다. 이 때에 平壤의 두 교파의 부인회는 중앙본부로 편성되고 지방부인회는 支會로 흡수하는 체제로 조직되었으며, 중앙본부의 役員은 두 교파에서 공평하게 선임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役員의 공평한 선임은 비밀결사의 성명이 되는 人和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첫째 여건이었기 때문이다.

연합은 이루어졌으나 각 支會의 독립성은 중견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합본부가 있는 平壤에서도 나타난다. 즉 平壤內의 長老派와 감리교의 支部는 並存한 채로 한 목적을 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大韓愛國婦人會」는 두 단체의 통합이라기 보다는 點點적으로 되어 있는 서북지방의 애국부인회들을 계통성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체적 기구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이한 조직을 가진 「大韓愛國婦人會」는 1920년 10월 헌병경찰조직에 걸거되기까지 2,107圓의 독립운동 자금을 金 貞穆, 金 淳一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정관연명 32세인 이 단체의 회원구성을 살펴보면, 걸거된 36명 가운데 직업이 알려진 17명 중에 교사가 7명, 전도사 5명, 상인 2명 그리고 학생과 평원이 각 1명이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교사와 전도사는 매일사상을 고취시켜 동지회원을 규합하고, 支會를 증설하는 등의 활동에 적임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大韓愛國婦人會」의 役員중에 植民官僚의 가족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植民官僚들이 모두 親日官僚가 아니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

다.

「大韓愛國婦人會」 이외에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항일여성단체가 정양에 있었다. 즉 「婦人會」와 「潔白團」이 그것이다.

平壤 西門 밖에서 조직된 「婦人會」는 회원이 80명에 이르렀으며, 항일을 위한 비밀문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平壤 崇義女學校의 1920년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그 전후배들이 조직한 「潔白團」은 표상으로는 건도사업과 禁煙禁酒운동 및 여권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내세워 활약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단체 이외에도 지방群小도시에서 조직되어 활약한 여성단체가 많았고 그 대부분이 평안도지방의 비밀결사단이었다.

3·1운동 이후 항일여성단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첫째, 규모면에서 종전의 여성단체와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활동무대가 넓어지게 되고 조직력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활동면에 있어서 한결같이 上海 임시정부와 손을 잡고 상호 협조아래 사업을 전개시켜 왔다는 점이다. 셋째, 새로운 여성 지도층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종전의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친일적인 고관현직의 부인이나 양반집 부녀자이었던 것에 비하여 교사, 간호원, 건도사 등의 직업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적인 특징을 들 수 있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조직된 「大韓民國愛國婦人會」의 활약도 컸지만, 그에 못지않은 규모의 「大韓愛國婦人會」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성비밀결사단이 거의 모두 서북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義烈團」을 비롯한 滿洲의 독립군과 지역적으로 가까웠고,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주로 만주를 통한 육로로 왕래하였으므로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조시대 이래로 서북지방 사람들은 양반관료 체제로부터 소외되었으므로 이조종기 이후 봉건신분층의 붕괴와 더불어 지식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층으로 대두하고자 신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지반색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문화정치」 시대의 여성단체활동

3·1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신문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日帝의 지도자들은 무리 탄압만으로는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그 정책을 제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헌병경찰정치를 병행하여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무단정치」를 지양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치」는 1919년 8월부터 1931년 9월 滿洲事變이 일어난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표면상이나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갖게 되자 민족의 실력양성으로 자주독립을 꾀하기 위하여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 때를 기하여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주축으로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비밀결사대 처럼 자주독립을 구호로 할 수는 없었으나 대신 여권신장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이 시대의 前期에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後期에는 통합단체인 「權友會」를 중심으로 목표와 활동을 단일화하여 활동하였다. 이 때에 중앙과 지방에서 7,80여개의 단체가 다수 조직되었고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신문화운동

을 전개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면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었다.

1) 민족주의자들의 신문화운동

이 시대의 여성단체의 활동은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교육계몽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한말에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달라는 운동이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었으므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교육이 실현되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어느 단체이든 실력양성을 위한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계몽 활동이 사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에 치중한 단체는 「朝鮮女子興學會」와 「朝鮮女子教育會」를 들 수 있다. 「조선여자흥학회」는 東京유학생들이 조직한 친목단체인 「朝鮮女子留學生親睦會」를 개칭(1920년 3월)한 것으로 회원들은 선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방학을 이용하여 국내 중요도시를 순회강연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또한 기관지 「女子界」를 발간하여 유학생 소식과 여성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등의 출판활동도 하였다.

「朝鮮女子教育會」는 1920년 4월 창립되어 通俗婦人講習會女子夜學會를 개설하는 한편, 女子討論會를 주최하여 여성교육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22년에는 「朝鮮女子教育協會」라 개칭하고 회관내에 一年課程으로 女子商業科를 신설하여 實務女性을 양성하였으며, 南鮮순회연극단을 조직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드디어 1923년 11월에는 李王職으로부터 보증을 대부받고 기부금으로 檀花學院을 설립하여 1924년에는 재학생수가 260여명에 이르렀다.

물론은 物産獎勵운동이다. 日帝의 극심한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도시의 중산층이 급속도로 몰락하고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間島 등지로 移住하였다. 이때 민족지도자들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길은 교육과 산업개발에 있음을 역설하여 국산장려운동을 일으켰다. 때마침 새로 들어선 加藤內閣의 緊縮, 절약정책과 병행하여 한민족도 자급자족·국산장려·소비절약·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日貨배척운동이었으며 無抵抗主義에 의한 소극적 반일운동이었다.

이러한 배경속에 「土產愛用婦人會」가 창설되어 여성들의 물산장려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회원은 중류가정 출신의 여성들로서 任員會에서는 치고미·치마를 모두 本木으로 지어입고 모였다. 이들은 다른 물산장려 단체들과 보조를 같이하여 활동하는 한편 회관을 물산장려회관으로 옮겨 「土產愛用婦人商店」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슷한 취지의 여성단체인 「美風會」와 「土產愛用婦人會」는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1923년 9월에 조직된 「大韓女子基督教節制會」는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옹호하며, 술과 담배, 賣淫·賣笑 등 사회 풍토 개선과 국산애용을 목적으로 전국에 19개의 지부를 두어 활약한 기독교 여성들의 단체이다.

「土產愛用婦人會」와 「大韓女子基督教節制會」는 경제적 독립을 꾀하는 물산장려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므로 여성에 의한 경제적 민족주의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종교여성단체의 사회문화 활동이다. 우리나라 단체활동중 비교적 역사가 길며, 그세를 기반으로 하는 이점을 가졌으므로 종교단체의 활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본다.

특히 천도교, 불교, 기독교는 3·1운동에 공헌한 바가 있으므로 그후 민중의 선입과 기대도는 점차 증대하여 갔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서 종교여성단체의 포교를 겸하여 독립은 사회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종교여성단체로서 처음 조직된 것은 「天道敎女子靑年會」로서 1921년 1월 平壤에서 창단되었다. 각 지방에서 女子靑年會가 조직됨에 따라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支會를 설치하면서 「天道敎靑年女子會」, 「天道敎靑年黨女性部」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저급강려운동, 母性保護, 여성의 법률, 경제상의 지위향상, 부당한 결혼과 인신매매등 비윤리적인 악습을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교육계몽활동도 전개하여 여자강습소, 부녀야학회를 후원, 지도하였다.

1924년 4월 서울의 천도교 여성신도들이 조직한 「天道敎內修團」은 전국에 그 지부를 두고 학생 활개선, 교육활동, 농촌여성계몽, 미신타파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구습개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전학단조직, 농촌순회 등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단체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支部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였었다.

1925년 11월 「天道敎內修團」에서 분파한 「天道敎女性同盟」은 한반도의 自治를 주장한 崔麟을 지지하는 단체로서 보다 정치적인 색채를 띤 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는 밖으로는 좌우통합단체 「權友會」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안으로는 자체의 실력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1930년 12월 다시 「天道敎內修團」과 합동하여 「天道敎內該團」을 조직하였으나 滿洲사변 이후 정치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자 단순한 종교단체로 그 활약을 정지하고 말았다.

불교측에서는 1921년 7월 佛敎中央布敎所에서 京城女子文化學院을 설립하여 女高출신 정도의 여성에게 예술·철학·어학을 교수하였으나, 여성단체 「佛敎女子靑年會」가 설립된 것은 1922년의 일이다. 이 단체는 서민층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의 제발을 목적으로 「能仁女子講習會」를 개설하였다.

1922년 6월에는 조선기독교 여자청년회(YWCA)가 조직되었다. 金活蘭·金弼禮 등이 기독교 여성신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女子夏舍會」를 주최하고 사회의 기독교화와 복지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YWCA를 세웠다. 이 단체의 창설당시의 실정 사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보발행 ② 각 지방 청년회 순회강연 ③ 세계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가맹의件 ④ 물산장려 ⑤ 교육기관조직 ⑥ 금연 및 금주운동 ⑦ 公娼제지운동 ⑧ 육아법 ⑨ 雨衣研究改良 ⑩ 기타 弊風娛樂禁止 등이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으로 YWCA는 사회의 기독교화를 도모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한 생활개선·문화계몽 등의 활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농촌 계몽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계 YWCA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친선에 주력하였으며 한국여성의 시야와 활동무대를 넓히는데 공헌하였다.

넷째는, 직업여성단체의 사회봉사활동이다. 직업여성단체의 효시는 1923년 조직된 「朝鮮看護婦會」이다. 이 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기술 및 知的向上을 도모하며 학문적 활동과 간호원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1903년 간호원양성소가 세워진 이래 배출된 간호원들은 민족의 수난기에 치하여서 직업과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왔다. 즉 1907년 韓國軍 해산때 중상자들을 간호하였고,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생명을 건지는데 앞장섰으며 항일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신문화운동기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의 여성단체 활동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의 대부분의 단체가 두가지 유형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에 전력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여성운동면에 있어서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성해방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구호에 그쳤을 뿐 투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2) 사회주의자들의 여성해방운동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918년 공산당이 창립됨에 따라 사회주의 열풍이 일본, 중국 등지로부터 불어와 일부 지식여성들 사이에도 번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 단체인 「北風會」, 「서울靑年會」, 「火曜會」, 「ML당」 등과 유대관계를 맺고 無産大衆의 편에 서서 사회의 기존제도·성별 등 모든 불평등을 철폐하려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여직공들로 하여금 치우개선을 위한 파업을 조종하는 등 여성노동문제와 여성해방운동의 가치를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 여성단체 활동사상 최초의 일로써 민족주의 여성단체와는 사상과 활동면에서 크게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1924년 5월에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인 「朝鮮女性同友會」의 경우 그 論題를 살펴보면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겠다」, 「現狀會와 여성의 위치」, 「여성해방의 원동력」, 「조선여자해방의 첩경이 경제적 독립인가 지식향상인가」 등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비하여 「朝鮮女子敎育會」는 「조선여자의 고통」, 「조선의 폐해」, 「朝鮮女子興學會」의 경우는 「부인위생」, 「우리의 노동」, 「현대사회의 개조는 우리에게」 등 민족주의 여성단체는 비교적 온건하면서 타협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朝鮮女性同友會」는 「부인의 해방은 결국 경제적 독립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조직하에서 경제적 독립을 기대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남성의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인 해방운동은 무산제급 해방운동과 같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사회주의 경제조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이념하에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방에 40여개의 「女子靑年會」를 조직하고 문맹퇴치, 농촌제방, 봉건사상 타도, 농촌에 탁아소 설치 등과 순회강연, 토론, 교양강좌 등의 활동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꾀하였으며, 여성과 庶民편에 서서 근로자를 위한 위로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1924년 조직되어 1927년 「權友會」가 설립하기까지 여성운동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그 당시 사회에 던진 충격과는 지대한 것이었다.

「朝鮮女性同友會」 이외에도 「三月會」, 「朝鮮女性解放同盟」, 「京城女子靑年會」 등 다수의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생겨났으나 離合集散이 잦아 결국 민족주의 여성단체와 통합하게 되었다.

3) 「權友會」의 조직과 활동

1920년대에 있어서 민족주의 단체이든 사회주의 단체이든 그 활동의 궁극의 목표는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둘로 양분된 상황하에서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리하여 1926년 7월 조선일보사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民族單一黨의 결성을 기도

하여 각 분야의 대표 30명이 발기하여 1927년 1월 「新幹會」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과학적 여성들을 역시 합동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일조직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당초 「權友會」의 산파역은 해외에 유학한 여성의 친목회인 「在京女子留學生親睦會」로서 이들은 각기 여성단체를 주도하는 30세 전후의 최고 지성인들이었다. 이론과 주의 주장이 다른 단체와 사람들의 합동단체인 만큼 단일지도체제를 피하고 다원적인 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여성단체가 이에 호응하여 「權友會」의 支部로 흡수되어 처음으로 여성 단일단체가 전국적인 규모로 탄생하게 되었다. 「權友會」는 발족 이후의 활동을 차지하고 결성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활동은 이전의 여성단체 활동의 집약이며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체의 행동강령은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철폐 ②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③ 조혼폐지 및 결혼의 자유 ④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 ⑤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옹호 ⑥ 부인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지불 ⑦ 부인 및 소년공의 위생노동 및 夜業폐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것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여성단체 조직을 바탕으로 전국 방방곡곡 뿐만 아니라 東京, 大阪, 西・北關島 등지까지 조직기반을 갖추었다. “分散的에서 統一的으로”, “自然發生的에서 目的意識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여성적 대중운동을 전개한 「權友會」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2월초 간부들이 체포·기소되었다.

이렇듯 봉건제도와 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여성해방에 선봉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權友會」는 일제의 간고한 방해공작과 첩보방해 등 끊임없는 시련을 받아왔다. 그 중 가장 큰 시련은 解體論이었다. 「新幹會」에 解體論이 표면화한 첫째 이유는 지도층이 악화되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간의 파장이 대두하여 활동이 부진하여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新幹會」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日帝가 支部에 압력을 가하여 解體論을 내놓게 하였다. 셋째는 「新幹會」와 「權友會」를 자신들이 거절화하려는 데 실패한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解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일보의 적극적인 해체반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新幹會」가 해체되자 자매단체인 「權友會」도 1931년 5월 해체되고야 말았다.

3·1운동 이후 「權友會」가 해체되기까지 10여년간 약간의 승리를 얻어놓고 이 민족의 역량을 시험 관찰하여오던 日帝는 1931년 滿洲事變을 기화로 하여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이론과 「문화정치」의 간판을 거두고 출판·집회·결사를 철저히 규제하였다. 약 10여년간 여성문제와 교육·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여성단체들도 그나마 명목도 없게 되고 몇 개의 여성 종교단체만이 종교활동 등 극히 제한된 활동만 하였다. 그 대부분의 단체가 日帝의 식민지 정책에 능가당하는 가운데 신사참례까지 하는 등 곤욕을 치루어야만 하였다.

6. 결 론

구한말까지 국민의 반에 해당되는 여성이 규방에 억류된 채 국력은 쇠퇴일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 때에 여성이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원동력임을 깨달은 개화인사들과 선각적인 일부 여성들이 유대관계를 맺고 여성의 개화와 여성문제의 의식화를 꾀하여 민족의 실력을 향상시

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의 여성운동이 대동하게 된 것이다.

초기부터 「權友會」에 이르기까지의 여성단체 활동의 양상은——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대의 거의 대부분의 여성단체의 활동은 애국운동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대략 교육·자선활동, 항일운동, 신문화운동,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여성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에는 교육·자선활동 등 제물을 위주로 하였고 국권 상실단계에는 항일투쟁에 참여하여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이후 점진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치우개선 등 근대적인 여성운동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신문화운동을 전개하며 단일 여성운동단체인 「權友會」를 조직하면서 일제 치하에 있어서의 여성운동의 大圖圖을 이루었다.

조직면에 있어서 구한말의 단체들은 그 대부분이 그 지역사회의 인물들로부터 구성된 소규모의 단체였으나, 3·1운동을 전후하여서는 그 조직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權友會」에 이르러 한 단체의 이름아래 대동단결하였으며 기타 모든 단체들이 그 산하에 들어와 재조직 편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여성들의 조직력이 발달하였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활동할 만한 특징은 어느 시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특징은 남성 혹은 남성 단체와 자매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후원·지도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체 활동면에 있어서도 항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점은 시대흐름에 따라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단체 발생시기의 시대적인 한계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에 두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단체란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 여성단체 초기부터 “여성의, 여성에 의한” 단체는 있었지만 그 목표가 “여성을 위한” 단체는 없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성적이 한국 여성운동의 전통이 되고 제질화하여 현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진다. 여성단체 설립 8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진정한 여성단체란 어떤 것이며 “여성을 위한”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믿어진다.

II. 韓國女性運動의 문제점

— 여성과 虛偽意識 —

韓 完 相

(前 서울大 教授)

1. 女性問題를 보는 視角

女性問題를 接近하는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生物學的 觀點에서 女性問題를 볼 수 있을 것이며, 文化人類學的 視角에서 女性의 問題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價値觀과 規範의 次元에서 女性의 問題를 接近할 수 있을 것이며, 心理學的 立場에서 女性의 獨特性을 把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法的 視角, 經濟的 側面에서 問題를 接近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同一問題를 놓고 여러 立場에서 考察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女性問題를 權力的 視角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權力的 視角에서 女性問題를 接近하게 되면 權力을 가진 集團의 虛偽意識을 폭로하는 데 까지 이를 수 있다. 權力的 視角에서 여성問題를 照明한다는 것은 女性을 被支配集團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부당하게 억눌러온 集團으로 본다고 함은 여성이 하나의 少數集團(minority)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不當한 權力的 問題가 대두된다. 그리고 부당한 支配集團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곧 支配者의 영향력이 과연 正當한가라고 하는 權力的 正當性의 問題로 나뉘어진다. 만일 男性이라는 支配集團의 힘이 正當하지 않다고 할 때, 女性이라는 被支配集團의 挫折과 鬱悶은 어떠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女性의 그 전통적인 恨의 問題이기도 하다. 만일 男性의 權力이 부당한 데도 女性이 그 不當性을 일찍 깨닫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살펴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虛偽意識의 次元에서 그 원인의 一端을 짚어보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支配集團은 自體의 既得利權을 保存하고 強化하기 위해서 現實態를 자기집단에 유리하게 彩色하여 그것을 體系화한다. 이렇게 彩色되고 歪曲된 現實認識을 虛偽意識이라고 한다. 體系화된 意識이 支配者의 既得利權을 위해 사용될 때 이것을 이데오로기라고 부른다.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서의 이데오로기는 대체로 몇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화려한 修辭의 옷을 입고 있다. 이데오로기의 거짓됨이 진할수록, 그것이 입고있는 修辭의 옷은 겉으로 화려하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支配集團의 權力이 不當할수록 이데오로기의 거짓됨은 짙어지고, 그럴수록 수사의 화려함은 더욱 현란해진다. 둘째로, 이데오로기는 그것이 特定支配集團의 利益만을 관심할수록 全體를 위한 것처럼 꾸며진다. 全人口, 全國民, 全體民族의 安寧과 福祉를 위한 것처럼 꾸며진다. 셋째로, 이데오로기는 현실의 不條理가 支配集團의 權力과 밀착되어 있을수록 特定過去나 未來를 덕없이 내세운다. 民族中興과 傳統의 再發見을 내세우므로써, 어둠

고 괴로운 오늘날의 현실을 가리려고 한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未來를 신기루처럼 부각시켜 사람들의 注意를 그 곳으로 끌려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몇가지 特性을 지니고 있는 虛偽意識은 支配者가 자기의 支配를 계속하려는 限 끈질기게 製造된다. 일단 製造된 것은 相對方에게 受容되도록 巧묘한 方法을 動員한다. 이것이 바로 敎化요, 敎育이다. 보다 직선적으로 表現한다면 이것은 洗腦이다. 敎育, 敎化 및 洗腦를 통해 被支配者가 하위의식을 眞意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支配者의 統治는 쉽게 이루어진다. 즉 弱者集團이 强者集團의 하위의식을 內面化하게 되면, 弱者들의 마음속에 强者의 統治裝置가 설치되게 된다. 强者는 安心하고 弱者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內面化 過程을 통해서 弱者들은 强者의 狀況規定(definition of the situation)의 方式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事物을 보고 判斷하는 方式이 이렇게 同一하게 되면, 支配集團의 支配는 順風에 帆을 단듯 쉽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强者層의 狀況規定 가운데는 强者層의 本質的 優秀性を 부각시키는 것이 核心이 되게 마련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虛偽意識으로 作用하여 强者層의 既得利權을 保護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强者層이 弱者層에게 敎育시키려는 狀況規定 중에서 가장 核心的인 것은 弱者層의 劣等性에 관한 것이다. 被支配者는 支配者에 比해서 本質적으로 弱하고 劣等하기 때문에 마땅히 支配당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黑白문제에 있어서 白人은 원래 黑人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므로, 黑人을 支配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奴隸制度를 지탱시켰던 하위의식이다. 마찬가지로, 女性은 男性에 比해 先天的으로 劣等한 存在임을 내세워서 그것이 女性에게 먹이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男性支配는 可能해지고 그 지배가 오래가게 된다.

나는 女性問題를 支配集團인 男性의 虛偽意識의 視角에서 살펴보려 한다. 어떠한 虛偽意識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女性들을 順從시켰는지를 살펴면서 韓國女性運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2. 家父長制와 男性의 虛偽意識

女性을 하나의 少數集團으로 볼 때 다른 소수집단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數로 보아 결코 少數가 아닌데도 女性은 피해받은 소수집단이었고, 差別받은 소수집단이었다. 그러니 女性은 多數이면서도 그 多數의 힘을 가지고서도 차별받은 소수집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 될 것이다. 둘째로, 가장 오랫동안 少數集團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女性이다. 人類歷史上 女性만큼 長期間에 걸쳐 差別받은 소수집단은 별로 없을 것 같다. 歷史上에 家父長制度가 定着된 후 부터 줄곧 男性에 의해 지배받고 差別받아왔다. 最古의 少數集團이란 것이 두번째 特性이다. 셋째로 많은 소수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자기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 女性이다. 意識化가 가장 늦게되기도 하고, 또 의식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特性이다.

이러한 세가지 특징은 따지고 보면, 男性의 지배욕이 그만큼 강했고, 또 그 支配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무엇보다도 男性의 虛偽意識이 그만큼 說得力이 있었다는 事實을 反映한다. 결국 家父長制가 생긴 이후 女性들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길들여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도 모르게 자기의 劣等性을 하나의 信仰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면 家父長制度에서 男性이 製造한 虛偽意識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修辭의 옷을 입고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위 의식은 그것이 거짓됨이 강할수록 먹혀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萬人들에게 의심없이 受容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기에 허위 의식은 宗教와 倫理의 옷을 입기도 하고 科學의 옷을 입기도 한다.

宗教로 위장한 허위 의식은 오래갈 수도 있고 또한 莫強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宗教는 인간의 窮極의 關心을 充足시키면서 信者들로부터 盲目的 服從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宗教와 倫理의 옷을 입고 있는 虛偽意識은 가장 고요하게 弱者를 다스리게 한다. 男性의 虛偽意識도 이같은 宗教와 倫理의 옷을 입고 있다.

먼저 基督教을 보자. 基督教經典의 創世紀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유대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男權中心體制를 正當化시켜 놓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男性의 허위 의식은 神話의 옷을 입고 엄숙하게 춤추고 있다. 女性은 創造될 때부터 男性의 補助役으로 부각된다. 神이 男性이라는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가 살았을 보이기 때문에 그를 즐겁게 해주고 그를 의문지 않게 해줄 補助役을 創造해야겠다고 決心한다. 女性은 그 決心의 결과로 창조되었다. 그것도 男性의 장비 하나를 뽑아 女性을 창조하였다. 그러니 처음부터 女子는 男子의 부속물로 창조되었다. 女性의 從屬性的의 뿌리는 이렇게 創造에 까지 뻗고 있다. 女性의 創造動機가 그렇고 女性의 創造過程이 그렇다. 神의 뜻을 절대 복종해야 할 信者로서는 이같은 創造의 秩序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 질서에서의 信仰은 절대적 복종을 요청한다. 그만큼 男性의 허위 의식도 그 신앙에 들어서 절대적으로 여성에 의해 수용된다.

유대社會는 철저한 家父長制에 기초하고 있다. 男性의 權限은 絕對的이다. 女性에 의해 도전받을 수 없다. 이른바 유대社會의 열두지파는 모두 막강한 男權中心의 體制이다. 이것이 예수 당시까지 내려온다. 예수 당시만 하더라도 女性은 奴隸와 같은 身分을 가졌었다. 會堂에 出席해도 그 定員數로 취급되지 못했다. 法庭에서 女性은 證人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 使徒 巴울의 書簡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女性은 公共場所에서는 조용해야 하고, 女性은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 예수가 女性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흥미있는 事實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는 女性을 포함한 모든 被支配者, 특히 억울하게 差別받는 少數集團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不當한 支配集團의 虛偽意識과 그 거짓됨과 偽善性을 폭로하였다. 헌장에서 姦淫하다가 잡힌 女性을 끌고 온 男性의 무리들에게 “罪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諭하신 예수의 의식 속에는 간음해도 처벌되지 않는 당시의 男權中心의 慣例에 대한 예수의 批判意識이 스며있음이 틀림없다. 그가 生存時 경험받았던 무리와 거리낌없이 사귀면서 그들과 술을 즐기마시고 음식을 즐겨잡수신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支配階의 허위 의식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罪人과 娼女와 稅吏의 친구였던 예수는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長老들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꾸짖고 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極言을 하시면서 그들을 핏대하였다. 예수는 결국 宗教의 옷을 단단히 입고 있는 당시의 男性의 허위 의식에 도전한 셈이다.

한을 물려 儒敎라고 하는 倫理體系속에 스며있는 男性의 虛偽意識에 注目해 보자. 儒敎는 유대교 못지않게 男權體制를 正當化시킨다. 유교는 家父長制의 倫理的 母胎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으

리라. 유고올리의 문적은 支配者와 被支配者를 날카롭게 나누는 터전에 기초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男女有別이다. 男과 女는 달라야 한다. 여기 다르다는 것이 단순한 機能上의 差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기능상의 差異는 優劣의 差別을 뜻하지 않는다. 그런데 差別은 반드시 優劣이라는 價值判斷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差異는 差別과 다르다. 男女差別은 단순한 기능상의 差異가 아니라 質的인 差別을 의미하는 것 같다. 儒教의 다른 項目을 보면 이것이 差別임을 대변에 알 수 있다. 三從之道를 생각해 보자. 女性은 어릴 때는 아버지란 男性을 따르고 순종하며, 결혼하면 지아비라는 男性에 순종해야 하며, 늙어서는 아들이라는 男性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倫理的 敎訓은 男性支配를 正當化하고 強化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유고의 가르침 중에는 否定的인 言語의 옷을 입고 있는 虛偽意識도 있고 肯定的인 諷刺의 옷을 입고 있는 貶低의식도 있다. 예컨대 “알뜰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極言은 부정적인 言語로 이루어진 남성의 貶低의식을 反映한다. 이에 반해서 賢母良妻라는 表現은 아름다운 諷刺로 장식된 貶低의식이다. 이 두가지 貶低의식 중에 後者が 더 쉽게 먹혀들어간다. 즉 賢母良妻라는 虛偽意識은 女性側에서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이 세 貶低의식인지를 알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母는 賢淑해야 하고, 妻는 良順해야 한다는 것은 母라는 女性도 조용하게 순종적이어야 하고 妻라는 女性도 양전하게 순종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賢이라는 德目과 良이라는 德目이 하나의 普遍的인 德目일때, 이것이 하필이면 母와 妻에게만 적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것이 男性의 虛偽意識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賢父良夫란 表現은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어색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賢母良妻의 價值觀이 오늘날의 젊은 女性들에게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가 있음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效果있는 虛偽意識임을 드러낸다. 내가 여기서 賢母良妻 그 자체가 잘못된 價值觀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賢과 良이 보편적인 가치관일때, 그것이 男女區別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할 따름이다. 만일 그것들이 男性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女性들도 그것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가치관을 그들 스스로 主體的인 힘을 가지고 만들어서 提示해야 한다.

다음으로 科學의 옷을 입고 있는 男性의 虛偽意識을 살펴보자. 여기에 Freud의 立場과 理論이 쉽게 動員된다. 왜냐하면 Freud理論은 “科學的이고 分析的인”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論은 한마디로 女性의 體質的 劣等性, 先天的 劣等性을 合理化시켜준다. 그리고 보면 Freud 자신이 男權中心文化圈에서 살았다. 그의 理論自體도 家父長制度의 產物이다. 특히 그의 超自我(Superego)의 개념은 家父長制下의 莫強한 힘을 갖고있는 父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그의 女性劣等論은 明白하다. 女性은 그 性器의 差異 때문에 男性보다 劣等하다고 한다. 男根羨望 콤플렉스(penis envy complex)라는 개념이나, 男根切斷恐怖(castration-phobia)라는 개념 등이 모두 男性優越性을 드러내 보이는 개념이다. 그의 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理論이나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理論도 간접적으로 女性劣等性을 合理化시킨다. Freud의 弟子인 女性精神分析學者 K. Horney는 新 Freud 學派의 立場을 취하기 하나 女性心理의 劣等性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단지 Freud의 體質決定論의 立場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Horney女史는 女性이 男性에 비해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사랑의 포로가 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女性은 男性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女性劣等性을 다른 方式으로 說明하는 것일 뿐, 그것을 히위외식의 次元에서 새롭게 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女性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男性이 만들어놓은 히위외식은 그것의 거짓됨을 가리고 그것을 진짜 의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종교의 옷, 윤리의 옷 그리고 과학의 옷을 입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옷들을 입고 있는 히위외식을 眞意識으로 女性들이 받아들여 계되면 女性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은 실제로 劣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狀況規定이 갖는 하나의 効力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規定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事實이 되어버린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는 귀신이 존재한다고하는 狀況規定에 따라 웃고 울고 무서워하게 된다.

그렇다면 男性의 히위외식을 오랫동안 受容하게된 이 세상의 女性들은 자기들을 실제로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여 열등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狀況規定의 이러한 効力은 自我的豫見(selffulfilling prophesy)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說明된다. 이 개념은 소수집단에 대한 모든 否定的 偏見의 發生을 說明해 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편견의 事實性을 남제하고 나아가 그 편견을 증명해주는 이른바 客觀的인 資料를 提供해준다. 그리하여 女性의 劣等性도 객관적 사실에 의해 正當化된다. 女性은 실제로 男性에 비해 감정이 不安하며, 論理的 推理力이 약하며 判斷力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종의 科學的 心理檢査를 통해봐도 이같은 현상은 事實로 인정된다.

여기에 男性優越論者들은 또 한번 허리를 펴지고 女性운봉가는 기가 죽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事實(fact)과 眞實(truth) 간의 엄청난 差異를 잘 알아야한다. 미국에서 黑人의 平均 I.Q.가 白人의 그것에 비해 낮다. 이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黑人이 수백년동안 白人에 의해 부당하게 눌려왔던 歷史的 脈絡을 重要視해야한다. 이러한 歷史的 條件 밑에서 오늘의 黑人의 I.Q가 낮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女性이 수천년동안 男性에 의해 支配당해왔고 男性의 히위외식에 의해 敎化되고 洗腦당해왔다는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오늘의 女性劣等性에 관한 객관적 事實을 우리는 해석해야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眞實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잘 알게되면, 오늘의 여성심리와 행동이 설명 남자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點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本質的 差異로 보지 않게된다. 이렇게 사실의 內面構造를 꿰뚫어보면서 이것이 반드시 眞實을 反映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을 깨닫게되면, 男性이 만들어낸 虛偽意識도 날카롭게 폭로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男性이 敎化시키려는 狀況規定을 비판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다. 그리하여 自成的 豫見의 네카니즘을 마비시킬 수있다

3. 韓國女性運動의 問題點

무엇보다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문제점은 韓國女性運動家들이 男性의 虛偽意識의 正體를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것을 날카롭게 폭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만일 女性運動이 이같은 虛偽意識을 제풀어볼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탈레판리즘에 빠지기 쉽다. 하나의 餘暇善用의 일환으로 女性運動이 전개되기 쉽다. 男性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虛偽意識을 폭로할 만큼 意識化되어 있는 女性들이 많다면, 그들은 女性의 문제를 權力的 次元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운동을 결코 심심풀이의 次元에서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權力的 視角에서 보기 때문에 權力을 가진 男性의 慈悲心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성운동은 힘겨진 男性들의 慈悲心에 호소하거나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물론, 한국여성운동은 그 나름대로 뚜렷한 理念이 不足한 것 같다. 男性이 家父長制度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놓은 바림직한 女性像을 代替할 수 있는 새로운 女性像에 대한 뚜렷한 合意를 아직도 한국여성운동가들은 創出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아직도 이 문제의 重要性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다. 女性의 잠재능력과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女性 스스로가 主體的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전엔 賢母良妻가 갖는 順從的인 女性像보다 더욱 발달하고 創造的인 女性像이 提示되어야 한다. 마치 Malcom X가 "검은것이 아름답다"라는 새로운 意識과 自信感을 黑人民權運動에 불어 넣었듯이, 한국여성지도자들도 새로운 의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哲學과 비전이 있는 한국여성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이다.

셋째, 이와 같이 새로운 意識을 가지고, 政治, 經濟, 家族, 教育 등의 制度的 領域에서 女性地位의 具體的 向上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政治的 決定過程에 女性이 대거 참여해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는 여성근로자들은 同一한 學歷條件下에서는 同一한 賃金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격증하는 女性勞動者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그리고 全體消費者的 權益을 위해 그리고 全體捐稅者 國民의 권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家族法에서 나타나는 差別을 撤廢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教育過程에 있어서 性差別의 폐습을 根絶시키기 위해서도 조직적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制度的 改善과 向上을 위한 운동은 女性自身이 男權中心文化에서 해방되고나야, 즉 男性의 虛偽意識을 폭로할 수 있는 水準에 이르러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여성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넷째, 오늘날의 한국여성운동의 지도자들도 男性支配體制下에 귀임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男性支配集團에 接近하는 能力이 있고 그들로부터 慈悲를 받아낼 수 있는 能力이 있기 때문에 女性運動의 指導者가 된다면 한국여성운동은 바림직한 主體的인 女性運動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의식화시키는 일에 가장 진지하고 성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체로 한국여성운동은 경제적 생활이 궁핍하지 않는 中産層과 그 以上の 계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中産層의 利益만을 위한 階級的 運動이 되기 쉽다. 게다가 運動主體가 子女養育에서 오는 기초적인 부담과 경제적 壓迫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中産層 有識者들이기 때문에 잘못다가는 이 운동이 中産層의 餘暇善用을 위한 消費志向의 運動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러한 위험을 항상 경계하면서, 비록 運動主體勢力은 階級的 性格을 띠더라도 그 運動의 目標은 全女性, 특히 억울하게 눌리고 差別받는 人間들의 地位向上에 두어야 한다. 특별히 低賃金에 시달리는 女性勤勞者들의 團結向上을 一次的으로 겨냥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運動主體는 항상 자기를 초월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自

己反省을 위한 意識化教育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섯째, 女性運動은 반드시 女性만을 위한 운동으로 制限되어서는 안된다. 女性이 가장 오랫동안 부당하게 눌려왔던 인간들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女性運動이 必要하다고 한다면 男女가 될 것 없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차별받고 학대받는 모든 인간을 위해 여성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人權運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女性運動이 단순히 反男性的의 運動의 次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눌린자, 가난한자를 위한 人權運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여성운동은 보다 正義롭고, 自由로운 社會構造와 歷史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운동으로 승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날의 한국여성운동이 과거에 비해 보다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그 理念面에 있어서 그렇다. 물론 女性團體의 數나 그 行動프로그램의 幅에 있어서 과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目標과 理念에 있어서는 결코 前進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1927년 男性들의 社會團體였던 新幹會에 자극되어 당시 左·右翼의 女性團體도 合同하여 權友會를 創設하였다. 前 莊卿, 金 活閔, 黃 信德 등 기독교계통과 사회주의계통 여성지도자들이 참가인이 되었다. 이 權友會의 創立趣旨나 그 宣言書를 오늘날의 時點에서 다시 暗昧히 보면, 당시의 이상과 목표가 대단히 主體的이며 民衆的이었음을 대변해 알 수 있다. 그 속에는 歷史를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이 있고, 社會既存構造를 꿰뚫어 보는 意識이 있다. 民衆意識의 具體함을 다음의 引用에서 잘 느낄 수 있다.

“歷史가 있는 후로 부터 지금까지 인류사회에는 다종다양의 모순과 대립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濟動無常하는 人間관계는 각 시대에 따라서 혹은 이 部類에 유리하게 혹은 저 부류에 불리하게 되었나니, 불리한 지위에 서게된 민중은 그 시대의 사회적 서러움을 한껏 받았다. 우리 여성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어왔다. 사회의 모순은 현대에 이르러 대규모화하였으며 결정에 달하였다. ……이 시대와 여성의 지위에는 비록 부분적 향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一片의 환상에 불과하다. 미처 청산되지 못한 舊時代의 유물이 오히려 유리하게 남아있는 그 위에 現代의 苦痛이 겹겹이 가하여졌다. 그런데 조선 여성을 불리하게 하는 각종의 불합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조선사회 전체를 괴롭혀하는 그것과 연결된 것이며, 一步를 進하여는 전제제의 불합리와 依存·合流된 것이니, 모든 문제는 이제 서로 관련되어 따르므로 성취될 수 없게 되었다. ……조선 여성운동의 진정한 의의는 오직 이같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이해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니 우리의 역할은 결코 偏狹하게 국한될 것이 아니다…….”

위의 긴 引用에서 보듯이 당시 여성운동은 깊은 歷史意識, 社會意識, 民衆意識으로 무장되어 있다. 權友會의 행동강령을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철폐, 人身賣買 及 公娼廢止, 農村婦人의 경제적 이익옹호, 婦人勞動의 賃金差別撤廢 及 夜業廢止, 婦人과 少年工의 危險勞動 及 産前·産後賃金支拂 등이 눈에 띈다. 이같은 행동강령은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니, 이같은 목표를 集中的으로 實現하려는 女性團體가 눈에 띄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오늘날 한국여성운동의 落後性이 있는 것이다.

4. 맺는 말

오늘의 한국여성운동은 活性化되어야 한다. 가장 오랫동안 남성에 의해 지배되어 온 여성들이 자기들을 지위가 역사적으로 下向되어왔음을 깊이 인식하여, 그 地位의 向上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法, 政治, 經濟, 宗教, 教育 등 각 制度面에서 부당한 差別을 강요하는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 이같은 制度的 向上을 效果的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女性運動家와 女性運動에 관심있는 女性들은 支配者로서의 男性들이 만들고 다듬어온 虛偽意識의 正體를 똑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폭로하여 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性의 문제를 權力의 視角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權力을 가진 支配者가 그 支配를 계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虛偽意識을 아름다운 修辭로 포장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란한 낱말의 옷을 입고 있는 利위외식이 教化나 洗腦過程을 통해 女性의 마음속 깊이 심어진다는 사실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利위외식의 가면을 벗기고 그 안의 흉칙한 모습을 들여낼 수 있는 洞察力을 가진 여성운동가가 많이 배출되어야만 여성운동의 목표와 이상이 설득력있게 정립될 것이다. 그리고 制度的 改革을 위한 운동도 정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오늘의 한국여성운동은 未熟하다. 그 意識에 있어서나 그 戰略에 있어서 단편적이고 미숙하다. 부족한 歷史意識과 社會意識이 부족하고, 運動戰略도 미숙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50年前의 權友會에 보다 더욱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할 때 오늘의 한국여성지도자들은 自體의 意識化를 위한 과감한 自己教育을 받아야 한다. 지도자들의 反省的 自體訓練이 시급하다. 이러한 교육훈련없이 來日의 보다 바람직한 女性運動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제 二 부 조사연구편

早二版

韓國女性團體活動의 現況과 問題點

研究責任者	金	義	順
研 究 員	任	美	齡

1977. 12.

目 次

I. 序

1. 研究趣旨과 目的
2. 研究範圍 및 方法

II. 女性團體의 概觀

1. 女性團體의 生成
2. 創設年代別로 본 女性 團體活動
 - 1) 啓蒙期의 女性團體(3·1운동 이전까지)
 - 2) 3·1운동 이후의 女性團體(1919년~1945년 까지)
 - 3) 8·15해방 이후의 女性團體(1945년~1950년)
 - 4) 6·25통탄과 괴난기의 團體活動
 - 5) 發展期에 들어선 女性團體
 - 6) 정부기구內의 女性活動

III. 女性團體 活動 및 組織現況

1. 團體의 目的과 規模
 - 1) 創設年代
 - 2) 目的
 - 3) 規模
2. 團體의 組織과 運營
 - 1) 會議
 - 2) 支會와 部署
 - 3) 財政
 - 4) 自體建物
 - 5) 刊行物
3. 團體活動의 機能과 形態
 - 1) 機能
 - 2) 事業形態
 - 3) 事業對象

- 4) 中間指導者의 育成
- 5) 組織의 擴散
- 6) 交流關係

4. 女性團體의 指導者

- 1) 會長의 一般의 特性
- 2) 會長의 資格要件
- 3) 會長의 任期과 選出

IV. 團體活動의 問題點

1. 會員과 非會員의 一般의 性格
 - 1) 年令 教育程度 宗教
 - 2) 結婚關係, 子女關係
 - 3) 職業關係
 - 4) 男便의 教育程度와 職業
 - 5) 家族形態
2. 會員의 參與形態
 - 1) 加入動機 및 加入經緯
 - 2) 團體에 대한 參與意識
 - 3) 會員의 團體에 대한 滿足度
 - 4) 團體內에서의 交流關係
3. 團體活動에 대한 非會員의 態度
 - 1) 女性團體 認知程度
 - 2) 女性團體 非加入理由 및 加入希望意思
 - 3) 女性團體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 4) 非會員들이 보는 女性團體會員

V. 期待하는 團體活動의 方向

1. 希望하는 活動內容 및 프로그램
2. 活動對象
3. 女性團體의 問題點과 要望事項

VI. 要 約

제二부 조사 연구편

I. 序

1. 연구 취지와 目的

日帝治下の 항일운동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또 유학생들의 친선도모에서부터 女性團體活動은 서서히 시작되었다. 태방이 있고 나서 많은 여성단체가 組織되었으며 60年代에는 팔복할만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었다. 社會가 發達함에 따라 여성의 의식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女性들도 직업이나 단체 활동을 통하여 自我를 발전시키며 女性의 地位를 향상시키고 당면한 生活問題를 공통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여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단체활동이 여성의 요구와 사회문제에 민감하여 여성의 지위와 質質向上, 여가선용, 사회봉사, 소비자 보호, 기술습득에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事業을 추진시키고 있지만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지 못하고 비생산단체로서 대부분의 단체가 약체를 못 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단체는 사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유사한 단체들이 존립하여 비슷 비슷한 구호와 目的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여성단체들도 女性生活에 깊이 침투하여 의식을 제우치고 단체활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많은 여성들이 단체를 통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으며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서 또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여성 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능성 및 문제점을 검토·제시해 보려는 目的에서 본 연구는 현재 활동하는 여성단체의 목적과 규모, 조직과 운영, 기능과 형태, 지도자에 관한 구조적 실태파악과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여성단체에 대한 의식구조와 참여형태를 살펴보고 특히 본 연구의 주안점은 단체 실태파악은 물론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여성들의 일반적인 성격과 단체활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이 기대하는 단체활동의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여성단체활동이 대처해 나아가야 할 方向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이 연구를 계획하고 실시해온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方法

1) 연구대상 선정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여성단체에 관한 현황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대상의 범위가 문제있는데 조사의 대상은 각 여성단체와 회원, 그리고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여성(비회원)으로 하였다.

① 단체

여성단체는 국가기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체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구분해서 등록 단체를 中心으로 전국 57개 단체를 단체장 내지 실무직을 직접 인터뷰하였으며 각 단체의 정관, 프로그램, 출판물을 가능한대로 입수하여 분석에 참고하였다.

1. 직접 인터뷰한 등록단체.

부녀보호사업 전국 연합회, YWCA연합회,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대한불교 마야부인회, Zonta 서울 club, 한국자수협회, 자렐회,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여약사협회, 가정학회, 국제식생활 연구회, 구세군가정단, 여성문제 연구회, 소름티미스트 한국연합회, 성조부인회, 송죽부녀 복지회, 대한여성 복지회, 한국주부 식생활 개선지도회, 한국여성 식생활 계몽지도회, 한국 Womans club, 대한 간호 협회, 요산요수회, 3·1여성 동지회, 대한 여학사 협회, 한국여성 문화 생활회, 한국여성 크리스찬 club, 한국 꽃꽂이 협회, 대한 적십자사 부녀 구호봉사부, 가정법률 상담소, 재향 군인의 중앙본부 부녀위원회, 중앙부인회, 대한 조산협회, 여성저축생활중앙회, 부용회, 재향 군인회향군 부녀회,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국제여성 송공연합,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한국 식생활 개발연구회, 대한 여의사회, 대한여성 항공협회, 주부클럽 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한 미용사 협회 (47개 단체)

2. 직접 인터뷰한 비등록 단체

가사원, 성북구어머니회, 한국기독교강로회여성신도회 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강로회여성신도회 전국연합회, 대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 간호보조 협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새마을 봉사회, 새한주부회, 전문 직업 여성클럽, 카톨릭 여성연합회, 천도교 여성회본부, (10개 단체)

② 회원

57개 여성단체를 단체의 기능 및 목적別 (1. 직업 기능별 단체 2. 종교단체 3. 국민 식생활 개선 단체 4. 민간의료 단체 5.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 6. 회원의 친목 및 봉사단체 7. 연구단체)로 분류하여 각 단체에 가입해서 소속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질문지를 배부, 208명이 회수 되었으며 그 중 종교단체에서의 회수율이 가장 높았다.

③ 비회원은 서울시 各 洞의 生活수준을 上, 中, 下로 구분하여 (上은 성북구 성북동, 中은 서대문구 용암동, 下는 동대문구 전농동) 各 洞에서 100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여성 300명을 직접 방문 인터뷰하였다.

2) 연구범위

① 단체

단체는 단체의 목적, 규모, 조직, 운영, 기능, 형태별로 구조파악을 하면서 기능 및 목적에 의한 단체실태, 단체와 규모, 창설일자, 사업형태와 단체의 제정에 의한 단체활동을 파악하고 지도자의 일반적인 성격과 선출방법, 임기, 자격 등을 물어 단체에서의 역할과, 단체에서의 지도자 기능을 파악하려고 했다.

② 회원과 비회원

회원과 비회원은 일반적인 성격과 기대하는 단체활동의 방향을 동시에 설정하고, 회원들은 단체활동에의 참여동기와 참여형태, 비회원은 여성단체의 인지도부와 단체활동에 대한 그들의 태

도를 파악하려고 했으며, 단체의 필요 여부와 가입의사를 물어, 단체활동의 사업과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3) 연구경과

1977년 5월 한국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定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발행한 여성단체 부처별 현황이라는 취자를 입수하고 그 외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각 여성단체 명단을 입수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회원은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각 단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 비회원은 서울시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정하고 연구기간을 7개월로 잡았다.

단 연구단계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	1977. 5. 10日— 6. 10日
설문지 작성	6. 11日— 6. 20日
예비 조사	6. 21日— 6. 25日
설문지 완성	6. 26日— 7. 10日
면접원 orientation	7. 15日— 7. 16日
본조사	7. 17日— 8. 31日
조사 통제처리	9. 1日— 10. 30日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1. 1日— 12. 1日
인쇄	12. 2日— 12. 15日

면접원은 단체와 회원, 비회원을 구분하여 이화여대, 서울여대 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기계에 의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특히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4) 연구의 제한

① 조사기간 중에 모든 여성단체를 인터뷰하지 못한 것은 시일이 촉박하여 조사기간이 한창 무어울 때이고 각 단체가 거의 문을 닫고 휴가중인 때여서 면접이 어려워 57개 단체에 그쳤다.

② 회원은 각 소속단체가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시기라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회원이면서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제외된 점은 이 연구의 큰 문제점이다.

③ 洞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II. 여성단체의 개관

1. 여성단체의 生成

한국 최초의 女性團體의 成立時期를 언제로 보아야 하느냐에는 고찰의 角度, 方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一般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습의 단체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가 언제 조직되었으며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단편적인 資料를 종합하여 볼 때 女性이 조직활동을 처음 시작한 年代는 1896년에서 1898년 사이인 것 같다. 대체로 근대적 意味의 사회단체의 成立이 1896년에 組織된 獨立協會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면 社會團體의 成立은 舊韓末 開化思想의 導入 및 이의 受容問題가 擡頭되기 시작한 以後로부터 1910年 韓日合邦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政治的인 소용들이 속에서 政治的, 教育的, 啓蒙的, 愛國의 活動을 目的으로 내세운 結社의 모습이 增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은 創設되었다가 離合集散되었기 때문에 名稱上의 數가 곧 실제의 活動을 意味하지 못하는 경우가 許多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狀況속에서 成立되었을 初期의 女性團體의 活動이란 더 이상의 數術을 要하지 않는 일임은 自明한 것이다.

그러나 成立 初期의 啓蒙, 親睦 등의 소극적인 活動目標은 日帝壓制라는 韓國的인 特殊事情을 克服하려는 모습이 짙게 되었고 이어 8.15民族解放 獨立의 獲得은 좀 더 具體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을 지고 긴 眼目에 立脚한 계획에 따라 組織된 團體의 出現을 可能케 해주었고 오늘날에 數多한 女性團體의 成立을 가져온 것이다.

2. 창설 시대별로 본 女性團體活動

(1) 계몽기의 여성단체 (3.1운동 이전까지)

독립협회 창설을 전후해서 100여개의 단체가 생겨났으나 그 중에서 政治, 社會, 教育團體로서 규모에 있어서나 活動面에 있어서나 團體의 구실을 한 것이 50개 정도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따라 단체가 雨後竹筍같이 생겨났다가 그 壽命이 길지 못하고 사라지는 등 무수한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여성단체도 이런 태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따라서 女性이 獨立的인 存在로서 認定받고 나아가서 對等한 立場에서의 社會活動을 할 수 있기에는 상당히 오랜 동안의 전통을 겪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女性自身이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資質의 具備이 큰 문제였었다. 다음의 10個團體는 단체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機能별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가. 教育運動團體

ㄱ. 東洋愛國 婦인회

회장 李鉉卿을 비롯해서 11名の 任員으로 구성되어 女子敎育과 文明의 進歩를 目的으로 捐助金과 入會金으로 운영된 단체다.

ㄴ. 女子敎育會

女子의 敎育發達을 目的으로 捐助金으로 운영된 會로서 李鉉卿을 총재로 하여 8名の 任員과 5名の 評議員으로 조직 蒙昧無智한 女性敎育의 必要를 높이 부르짖으며 계몽, 敎育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다.

ㄷ. 進明 婦인회

1906年 嚴紀에 의해 설립된 進明 女學校의 母體로 건당이 설립될 때까지의 준비역할을 하고 학교창설후에도 계속 여성敎育과 啓蒙에 힘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로는 梨花學堂초기 출신이며 1900年代를 전후해서 학당 내외에서 많은 단체를 조직 지도한 바 있는 黃挾禮氏가 嚴紀를 도와 進明女學校 창설에 힘썼고 學監으로 눌러 일한 이유로 미루어 조직활동에 조예가 깊은 그가 리드하였을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나. 慈善 단체

ㄱ. 保護會

1900年 창설된 婦人자선 단체다. 貞洞 제 1교외 안에 있는 감리교 婦人단체로서 63名の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체는 이화학당 초기 출신인 黃挾禮氏가 조직 지도하였으며 기독교 계몽이니 만지 幹部가 거의 학당출신이었던 모양이다.

ㄴ. 慈惠 婦人會

李鉉卿의 發起로 慈惠事業과 孤兒院協贊事業을 目的으로 當時勢道家였던 李完用의 夫人 趙氏를 總裁로 해서 會長, 副會長, 評議長 등 15名の 任員과 20名の 評議員으로 構成組織되었다. 同會 會員들의 남편 지함으로 보아 當時 最高位의 大爵夫人 中心으로 社會事業을 展開했으리라고 짐작될 뿐이며 자세한 활동은 알려진 바 없다.

ㄷ. 慈善婦人會

會의 名稱이 明示해 주듯이 捐助金으로 慈善事業을 目的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會長 閔貞子를 비롯한 총무, 評議長 등 5名の 任員과 14名の 評議員과 약 200여명의 會員으로 구성되었다.

同 會에서는 비록 2號(1908.7-8月)에 그쳤지만은 순 한글로 會報(慈善婦人會 月報)를 발행하여 慈善에 관한 論說文藝 作品들을 실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慈善心을 발위하도록 한 것은 特記할 만한 일이다.

다. 社會 文化團體

ㄱ. 顯成會

1898年과 1896年 사이의 창설로 추측되는 단체로 民族思想으로 한국개화에 앞장섰던 독립협회 支의 官民合作 萬民共同會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주회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外出이 자유롭지 못하던 당시에 전보적인 회합에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그 당시의 前衛적인 여성들이 모인 단체로 간주된다.

ㄴ. 女友會(一名 女會)

分明 團體라고 불른 妥當치 않으나 당시의 狀況속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어서 紹介의 무고지 한다.

1899年 8月 高宗反對運動을 展開할 것에 찬동하는 鄭亨淑 中心의 50人 女性들이 高宗皇帝제 薨 後宮을 물리치신 후 公卿大夫로부터 職官末職까지 高宗廢止令을 내리시라는 上疏를 올리고 그 하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덕수궁 포터문 앞에서 「一夫二室 德美之 失倖倫之道」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일주일 간의 連座デモ를 벌였던 것이다. 비록 實效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男女同權, 一夫一婦의 家族倫理의 改善確立을 표방했던 사실은 當時로서는 상당히 異彩로운 행동이었다.

ㄷ. 大韓婦人會 韓日婦人會

1908年 高宗께서 외국유학에서 돌아온 3女性을 親히 叱咤하셨는데 그때 이 모임의 주체가 대한 부인의 한일 부인회, 각 여학교로 되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대한 부인회는 사회 문화단체의 성격을 띠었고 한일 부인회는 한국 日本 여성의 친목을 도모한 단체였다.

ㄹ. 獨立思想, 啓蒙團體

ㄱ. 松竹秘密決死團(一名 松竹會)

1913年 梨花學堂 中等科 출신(1924年 大學科卒業)으로 平壤 崇義女學校 敎員으로 奉職하던 黃愛德(황애스더, 황애덕)이 同僚인 金敬姬, 安貞錫, 李孝德 등과 같이 충명한 학생들을 모아 비밀히 지도, 愛國思想을 啓發하며 松, 竹의 兄弟의 義를 댈어 秘密決死團을 組織, 적극적인 愛國運動을 展開했던 단체다. 표현적으로는 「國產愛用」, 「物資節約」등의 標語를 내걸고 「女子商會」라는 소비단체를 조직하여 그 利益金과 會費(月 30錢)를 거두어 上海, 北京에 있는 독립단체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調達했고, 海外로 부티오는 독립신문의 傳遞, 海外派遣密使에게 隱身處를 提供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活動을 전개하는 한편 全國各道에 會員을 派遣獨立思想을 鼓吹시켰다. 決死團의 特徵은 橫的인 數의 把握이나 會員相互間의 이름, 신분관계등을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收納會費總額으로서 그 數를 파악할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19年 3月 19日 中心人物이었던 黃愛德이 체포되어 獄苦를 치루게 되므로써 事實上의 活動은 停止되었다.

ㄴ. 指導者

이상의 10個 단체 중 慈惠婦人會의 발기인이며 총무이고, 女子敎育會의 발기인이고 총재이며 東洋愛國婦人會의 발기인이며 회장이고 大聖敎會, 부인회원 부장이었던 李鈺卿氏의 活動은 括目할만하다. 그는 內部大臣을 歷任한바 있는 李址鎰氏의 婦人으로서 女性解放과 “女性の 社會的 平等權”이라는 論說로서 그의 女性運動의 基本자세를 엿보이게 한다. 女性の 社會活動 組織이 없던 荒無地에 團體를 조직한 데포인물로 李鈺卿氏, 사회종교계에서의 黃扶體씨를 들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당시에 지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믿으나 그 이상은 알 길이 없다.

(2) 3.1운동 후의 여성단체 (1919-45)

여성들은 3.1運動으로 그들도 가정에만 묻혀 있을 수 없다는 민족적인 自覺이 싹트게 되는 커

다단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조선여자로서 하여금 社會의 一員으로서의 個性의 自覺을 增加시켰고 男子와 協力할 수 있다는 精神을 부여해 준 것이었다. 물론 이것이 婦女問題解決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政治的 解決을 目的으로 하는 女性活動이었으므로 婦女運動 그 自體는 아니지만 女性들이 婦女運動을 展開할 수 있는 直接間接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3.1運動이라는 民族抗爭이 失敗한 이후 國內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民族運動의 展開를 위한 일대 啓蒙運動이 일어났고, 특히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 圖文版新聞의 發行이 시작되는 등 청년 사회단체들의 結社는 制限된 범위였지만 政治活動을 展開할 수 있었던 형편이었다.

이러한 時代的 背景속에서 組織된 1920年代의 여성단체는 대체로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조국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社會的 政治的 目的을 띤 愛國團體, 다음으로 「女性解放」을 표방하는 순수부녀운동단체, 마지막으로 宗教活動을 통하여 女性의 교육보급, 文字啓蒙, 生活改善 등을 목표로한 단체 등으로 區分될 수 있다. 즉 日帝植民地統治를 克服, 獨立을 爭取해야 한다는 祖國解放, 獨立運動의 적극적인 支援을 목표로 하는 「血誠團愛國婦人會」를 비롯한 數多한 愛國 婦人會의 組織과 이러한 政治的, 時代的, 性格에 左右됨이 없이 婦女 자신의 解放을 이룩해야 한다는 뚜렷한 意識을 표방했던 朝鮮女性 同友會(1924)의 創立을 비롯하여 大衆을 포함한 전체부녀운동을 전개시키려고 했던 「權友會」의 發足(1927)으로 까지 發展해 갔다. 「女性解放」을 표방하는 순수부녀운동 단체의 成立, 또 「부녀운동」이란 旗幟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기독교 정신의 함양을 근본 目的으로 하여 生活改善, 文字啓蒙 등 지식보급에 끊임없는 노력과 착실한 공헌을 오늘날까지 해오는 基督教女子青年會(YWCA)의 創立도 모두 이 時期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9년 3.1運動을 계기로 1930年代에 이르는 동안 상당히 많은 數의 단체가 조직되었으나 그 命脈은 오래지 않고 YWCA를 비롯한 한 둘만이 오늘날까지 存續해 올 뿐이며 1930年代로 부터 解放前까지는 日帝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 社會敎化 施設로서 實施組織되었던 各道婦女會가 存在했을 뿐이다.

가. 獨立運動支援團體

1. 大韓民國愛國婦人會

1919년 4월 上旬 主로 基督教人으로서 3.1民族抗爭으로 投獄된 人士들과 그 家族을 援護하고 一面으로 上海臨時政府援助를 目的으로 吳玄觀(載寧明信女學校敎員), 吳玄州(郡山 메리블렌敎員), 李貞淑(세브란스 병원 간호원)이 中心이 되어 組織한 「血誠團愛國婦人會」와 거의 同時 같이 해서(1919년 5월) 당시 貞信女學校 敎員이던 金馬利亞와 梨專敎員 朴仁德이 中心이되어 上海臨時政府를 支援할 目的으로 조직한 「大朝鮮 獨立愛國婦人會」가 統合하여 補強發足한 「愛國婦人會」가 당시 會長은 金馬利亞였고 代表는 朴仁德이었으며 後日 同會에는 1919년 5월에 辛義卿, 李專淑 등 20여명의 貞信女學校 敎員들이 中心으로 組織되어 獨立軍 支援을 위한 誠金獻納과 政府要人と 國內人士(志士)들과의 비밀연락 등을 맡아서 활동해 오던 「京城愛國婦人會」가 合流되었다.

同婦人會는 平壤, 釜山, 光州 등 19區의 支部로 부터 提出 送金된 747圓中 300圓을 1919년 8월에 이어서 同年 10월 2,000圓의 補助金을 會長 金馬利亞의 名義로 上海臨時政府에 運達하는 등 독립

운동을 적극 후원했다.

同會는 「大韓青年外交團」과 밀접한 關係(同團총무 李秉澈은 同 婦人會 顧問)를 맺고, 相互連絡 下에 獨立을 宣傳해 오다가 1919年 11月 上旬頃 慶北警察府에 捕獲되어 金馬利亞, 辛義熙, 吳玄觀, 張善禧를 비롯한 23人의 간부가 12月 28日 大邱감옥에 투옥됨으로써 그들의 活動은 정지되게 되었다.

ㄴ. 愛國婦人會(平壤)

蘇平壤聯合長老派의 韓永信을 中心으로 加盟會員에 勸을 바쳐 독립운동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하고 排日규합, 군자금 모집, 排日思想鼓吹, 決死隊조직, 獨立運動志士의 원조를 目的으로 1919年 6月 下旬에 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고 한편으로 耶蘇金 監理派 中心의 애국부인회가 上海臨政의 원조와 독립운동을 展開할 目的으로 거의 同時에 組織되었다.

以上の 平壤 中心의 兩愛國婦人會는 同年 11月 上旬, 合同, 그 조직을 확대하고 支部를 設置하여 軍資金 募金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로 2,400원의 軍資金을 募集하여 1920年 5月 兩次에 걸쳐 上海臨政에 送達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20年 10月 15日 平南警察部에 捕獲되어 吳信道(총무) 安貞錫(본부회장), 黃永信(부회장) 등 다수의 간부와 회원 모두 45名이 체포 구속 送局되므로써 그들의 活動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ㄷ. 大韓婦人青年團

1920年 4月 平南平原郡에 본부를 두고 獨立運動의 전개와 軍資金을 募集하여 上海臨政을 원조하고 排日思想을 고취할 目的으로 活動하다가 同年 10月 中旬에 江西警察署에 依하여 李載德을 비롯한 다수의 단원이 檢舉投獄되었다고 한다.

ㄹ. 江界女子青年團

그 組織年度, 目的, 活動期間등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으나 「大韓青年團聯合會 第二次總會」(비밀회의 1920年 4月 19日)의 「軍資金募集及義勇隊員募集血戰敗行決議」(사건누설로 실천되지는 못했지만) 決死的團員 부담인원 1名과 외동경비 및 부담경비액이 2,000원이었던 것이므로 미루어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獨立運動을 支援했던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上記團體 以外에도 平北 定州郡耶蘇會禮拜堂에서, 또 1920年 4月 서울 建池洞 에베당에서 各己 愛國婦人會를 組織, 독립운동의 지원, 排日思想의 鼓吹를 目的으로 活動했다는 많은 記錄을 發見할 수 있으나 이상에서 밝힌 단체들 보다 그 活動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므로 일일이 그 說明을 略하지만 결코 그들의 活動을 가버이 평가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나. 政治理念 團體

ㄱ. 朝鮮女性同友會

1924年 5月 鄭鍾鳴, 許貞淑, 丁七里, 朴元熙씨등 사회주의 여성들이 發起人이 되어 「婦人의 解放」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하였으며 이는 서울 청년회 화요회, 北風會, ML당등 4개 공산당 계열 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진 단체이다.

各 地方에 40餘의 女子青年會를 組織하고 문맹퇴치, 농촌계몽, 봉건사상타도, 농촌에 박아소설치등과 순회강연, 토론, 교양강좌를 가질 뿐 아니라 신문 잡지를 통하여 정당한 여론을 환기

시키는 한편 女性의 資質向上과 女子도 男子와 同等한 文化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여성과 대중시민 면에서 근로자를 위한 위트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전위적 활동을 展開하였다. 이 단체는 한국여성 단체활동 중 저소득 여성 근로자, 서민의 인권옹호는 물론 지도자들이 뚜렷한 女權意識으로 움직인 최초의 여성단체라 하겠다. 1927年 좌우합작의 여성단체 통합을 시도, 보다 광범위한 조직운동을 전개하려는 權友會가 새로 조직되게 되어 解體된다.

ㄴ. 朝鮮女性解放同盟

「朝鮮女性同友會」創立당시 北風, 서울 兩派의 人物을 총망라 했으나 점차 内部의 암투가 생겨 당초는 北風派가 強大化되어도 各派는 침묵을 지켜오다가 마침내 1925年 1月 서울파가 그들의 自衛策으로 金貞淑, 崔貞淑, 朱月山 등 26名의 人物을 中心으로 北風派 세력을 견제키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ㄷ. 中央女子青年同盟

1926年 12月5日 京城女子青年同盟과 京城女子青年會가 合同된 統合團體이다. 京城女子青年同盟은 1925年 1月25日 朱世竹, 許貞淑(이상 火曜派) 金弼順씨 등 7名이 中心이 되어 組織한 단체로 여성의 해방을 내세운 社會主義를 실행하는 여성단체이다. 京城女子青年會는 1924年 2月 朝鮮女性同志會를 脫退한 서울파의 朴元熙, 金浦準씨 등이 中心되어 조직한 단체이다. 1926年 8月 東京 유학생 李賢卿이 三月會派人物 그리고 東京에서 돌아온 黃信德씨 등과 협의한 결과 合同하기에 이르렀다.

ㄹ. 프로테타리아 女性同盟

1926年 1月 3日 金寶玉, 林松哈, 玄愛羅씨 등이 서울派 北風派의 派爭을 떠나 엄정중립을 지키려는 의미에서 조직한 단체이다. 처음에는 「朝鮮女性解放同盟」이라고 하였으나 서울派에서 항의, 결국 無產階級 女性을 해방한다는 目的으로 상기한 명칭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

ㅁ. 權友會

「中央女子 青年同盟」의 結成은 局部的 運動을 止揚 全民族의 大同團結運動의 先驅的 役割의 結成이었지만 女性運動의 全體的 單一協同運動을 펴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단체의 創立을 必要로 했다.

따라서 1927年 2月 15日 民族左派共產主義者들의 大同團結로 部分的 경제운동으로 부터 全民族的 政治운동을 展開할 目的으로 「新幹會」가 組織되었고 그 姊妹團의 結成을 促求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中央女子 青年同盟」組織에 主動役割을 擔當했던 李賢卿一派의 「在京城東京女子留學生親睦會」가 4月 17日 「女子外國 留學生懇談會」를 개최(조선일보사 樓上에서) 당시 여성지도자들 60여名이 參席했다. 이 자리에서 統一婦人團體設立을 논의, 權友會創立이 구체化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背後에는 우선 「朝鮮女性同友會」가 解體를 宣告했고 이어서 同會의 朝鮮內는 물론 間島, 東京등지에 散在해 있던 支會들도 이에 호응했고 특별히 「同友會」계통의 婦女運動에 대해서 보수적 태도를 취해오던 基督教系統의 호응은 同會의 창립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었음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創立준비 委員으로 金活蘭, 朴元熙, 劉英俊, 俞廷輝, 丁七星, 黃愛德 등 15名을 선출, 10여일간에 50여명의 發起會員을 얻어 1927年 5月 27日 京城 基督教 青年會館에서 300여 會員中 90여명이 參席, 千餘觀衆의 贊助속에서 創立總會를 개회하므로써 과거의 分散의 운동에서 統一을 지도정신으로 하는 조선 姊妹全體女性의 力量을 鞏固히 하여 全面的 運動을 展開해 갈것을 趣旨로 내세운 「權友會」가 結成되었다.

同會의 綱領에서 표방한

1. 朝鮮女子의 鞏固한 團結을 期하고
2. 朝鮮女子의 地位를 向上할 것.

등은 朝鮮女性 運動의 大同團結을 期하여 “分散의 運動에서 統一의 運動으로” “自然生長의 運動에서 目的意識的인 運動으로” 전개하려는 朝鮮婦人運動의 劃기적인 전환을 意味하는 것이다.

同會는 委員制로 庶務, 宣傳組織部, 敎養部, 調查部 등으로 分擔, 活動을 展開했는데 그들이 내세운 行動綱領은 다음과 같다.

1. 女性에 對한 社會의 法律의 一切 差別撤廢
2. 一切 封建的 因襲과 迷信 打破
3. 早婚廢止及結婚의 自由
4. 人身賣買及公娼廢止
5. 農村婦人의 經濟的 利益擁護
6. 婦人勞動의 賃金差別撤廢及産前産後賃金支拂
7. 婦人及 少年工의 危險勞動及夜業廢止

組織初期에는 이와 같은 行動綱領의 宣傳과 支部組織에 힘을 기울여 1928年 제 2회 定期總會까지는 支會가 40個로 3,4회 定期總會에는 70여개로 朝鮮各地는 물론 北間島 및 東京, 京都, 大阪 등지로 그 조직을 擴大, 婦女運動 및 民族運動을 展開해 왔고 그중 特記할 만한 活動은 1929年 光州學生運動에 參加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1930年 2月 新幹會解體의 餘波로 8월에 개최된 執行委員會에 10여명이 參席했고 이어 中央委員會에서 趙信聖을 대표로 선출했으나 (1937年 현재 平壤支部를 유지했다고 함) 往年의 意氣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1930년에 이르러서 同會에는 新幹會 解消派와 合流, 同會의 解消, 非解消, 時期尙早의 三派의 鼎立을 招來하여 意見의 不統一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問題의 解決을 爲한 제 4회 총회를 召集했으나 解消派의 숨은 방해공작과 中央幹部間의 內紛의 氣運을 짐작한 地方代表들의 不參으로 流會를 거듭하여 正式解體宣言도 하지 못한채 自然消滅되었다. 불과 5년간 존속된 단체이지만 불안정하였으나 女性解放이라는 뚜렷한 意識속에서 大衆을 包含한 全體의 運動을 展開했던 代表的인 女性運動團體였고 이들의 社會主義的 色彩은 훗날 祖國 光復以後 左翼婦女運動의 主體로 右翼婦女들은 敎育事業에 主力하여 그 세력이 繼承된다.

同會에서는 機關誌로서 〈權友〉라는 잡지를 菊版으로 1929年 5月 그 創刊號를 내었다. (편집, 발행인 丁七星) 주로 女性地位向上을 위한 記事를 많이 취급했다고 하나 月刊이라는 記錄이 있

올론 총발행호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 교육, 계몽단체

7. 基督教女子青年會(YWCA)

1922年 6月 右翼의 女性의 大同團結이라는 民族主義의 自由思想의 背景下에 千百萬 조선여성 의 기독교적 品性을 啓發하고 靈의 知的 德의 행복의 증진을 目的으로 會長 金活蘭을 中心으로 조직된 종교적 사회단체다.

「婦人解放」이란 표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나 기독교정신의 함양으로 智德體의 三育과 기독교 奉仕정신 사랑의 福音 傳播을 선양을 토대로 한 生活改善, 文字啓蒙 등 부인 계몽운동에 多大한 貢獻을 하면서 현재까지 存續해오고 있다. YWCA는 또한 世界 YWCA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그 친선에 주력하여 한국여성으로 하여금 그 눈을 국제적인 넓은 곳으로 물리게 하였다. 同會의 創立당시의 實踐事項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會報發行
2. 各地方青年巡迴講演及宣傳講演
3. 萬國女子基督教青年聯合會加盟의件
4. 物產獎勵
5. 教育機關組織
6. 禁煙及禁酒運動
7. 公娼廢止運動
8. 育兒法教育
9. 雨衣研究改良
10. 其他弊風娛樂禁止運動等이다.

4. 朝鮮女子教育協會

1920年 4月 創立된 것으로 「檀花學園」을 設立, 英語, 音樂講習所를 設치하고 女性教育에 이바지하여 1924年 현재 在學生數가 260餘名이었다고 한다. 同會는 女子教育思想의 普及과 地位 向上을 위하여 1921年 10月 金美理士등 7人의 연사들이 2次에 걸친 전국 순회강연을 行했다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여성계몽 교육에 공헌한 바 적대했음을 알 수 있다.

二、京城女子青年會

1922년 4월 가정부인會 主對象으로 하여 그들의 교양과 地位向上을 目的으로 敎育, 庶務, 社會의 三部를 두고 「女子學園」이라는 常設夜學部를 高等準備科, 英語科 등이 있었고 慰安部를 設置하여 納涼婦人見學園, 一般家庭婦人 및 노동 부녀들에게 위안회를 열어주는 등의 活動을 했다고 약 100여명의 會원을 가졌었다고 한다.

四、佛教女子青年會

1922年 一般青年女性들이 불교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한편 佛敎의 完旨을 선전하여 布敎의 實을 얻고 동시에 相互親睦向上을 저도함을 目的으로 창립하였다. 同會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能仁女子學園」을 경영하여 주야간으로 보통교육을 實施했다.

口. 女子苦學生 相助會

1922年 4月 1日 100餘의 會員相互間의 協助로 苦學의 便宜를 도모할 目的으로 寄宿부를 設置하고 寄宿舍를 소유하는 등 활발한 活動을 하는 한편 수시로 전국 순회 강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후 1924年 11月 北風會와 결합했다고 한다.

Ⅱ. 大韓女子基督教節制會

1923年 9月에 組織 현재에 이른다.

「節制生活은 우리의 福」이라는 구호를 표방하고 禁酒, 禁煙, 物質節約과 國產愛用, 惡習改良, 生活의 近代化, 創造的 精神生活, 소비조합운동들을 벌이고 매년 地方에 흩어져 있는 19個 支會와 지도자를 모아 全國大會를 개최한다. 서울에는 無依託少女를 收容技術을 지도하는 愛友館이 있고 節制少女館, 愛光園등의 施設을 가지고 지방과 大衆속에 파고 들어간 여성 운동이다.

본 社會風土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實質的인 活動을 전개하는 단체로서 1937年 世界基督教節制會聯合會에 入會했으며 현재 여귀옥씨를 대표로 약 1,000名의 會員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라. 직업기능 단체

ㄱ. 朝鮮看護協會

1923年 5月 12日 李貞愛를 中心으로 50餘의 회원 상호간의 기술 및 知的向上을 도모하며 학문적 활동과 아울러 간호원 訓練중진을 도모코자 조직된 현재의 「大韓看護協會」의 前身으로 우리나라 職業女性團體의 嚆矢라고 할 수 있다.

以上이 3.1운동 이후 1945年 祖國光復을 맞이하는 기간까지 成立되었던 단체의 大體이다.

檀友會의 解消以後로 日帝의 滿州侵略과 中國本土侵略이 계속되는 1930年代에는 全面的인 戰壓을 加해 움으로 부녀 운동을 전개하여도 단체의 活動은 地下化된 抗日勢力에 參加하거나 가능한 범위의 계몽에 主力하는 部類로 分散하여 소극적인 活動을 계속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부녀 운동은 좌절되었던 것이다. 다만 YWCA등 몇개의 단체가 그 命脈을 이어왔고 社會教化施設 補助단체로서의 官制 부인회가 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3.1民族抗爭을 通하여 民族解放이라는 문제의 解決이 先行한 연후에 女權의 擴張, 解放 등의 婦女問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부녀의 광범한 無識層을 상대로 한 文盲退治運動, 文化啓蒙運動이 急先務였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참다운 意味의 獨自의 婦女의 社會的 政治的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本格的인 婦女운동의 實現은 實로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 時期에 조직된 婦女團體運動의 核心을 民族解放鬭爭과 女權運動 女性運動과 連結되어 있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女權鬭爭發生期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 8.15解放以後(1945—50)

日帝治下에서 비롯된 韓國女性婦女운동은 男性으로 부녀의 解放이라는 女權運動에 앞서 民族解放이 先行되는 다시 말하면 女性運動이 아닌 愛國運動이었다.

그러나 1945年 8月 15日의 解放은 한국 여성으로 하여금 政治的, 社會的, 法的(국제法 제외)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外的인 解放이었다. 그렇지만 과거의 法制에 依해서 固定되었던 여성의 低下된 地位는 法律上的 변화에 依해서도 그리 쉽게 改正되지는 못했다. 과거에 가

졌던 여성에의 偏見習慣과 固定觀念이 그리 쉽게 바뀔수 없었고 더욱 女性 스스로의 資格과 實力의 不足은 男女의 機會均等を 강제하는 등 가지가지의 過渡期的 混亂을 빚어냈다.

이 期間 동안은 大韓民國政府樹立이라는 政治的인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하였기 때문에 女性들의 政治參與라는 大命題下에 몇개의 政治運動團體가 조직되고 한편으로는 學究的인 面에서의 學術團體의 조직도 이뤄지게 된다.

본장 이 時期는 近代國家의 仍胎期라는 時代的인 감각이 女性團體組織面에도 如實이 엿보인다.

가. 정치 이념단체

ㄱ. 朝鮮女子國民黨

朝鮮女性의 實質을 向上하여 政治經濟 社會의 地位를 확보하여 民族國家建設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目的으로 1945年 8月 18日 任永信을 委員長으로 李承晚博士夫人을 高문으로 하여 13名의 任員이 中心이 되어

1. 全國民의 要求에 依해서 실현된 政體를 支指한다.

2. 우리는 男女平等權利를 주장한다는 내용의 강령과 一致團結, 賢母良妻, 全勞力의 國家提供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右翼勢力 특히 李承晚博士의 政治路線에 적극 추종할 것을 다짐했다. 그 결과로 4名이 民衆議院 議員에 被選되기도 했고 信託統治反對啓蒙會에 主力, 女性의 地位向上에 적극 노력하며 정부수립 후에는 長官, 國會議員에 被選, 任命되는 등 參政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그들의 民主的 思考方式에 따른 政治活動은 점차 변질되어 自由黨 末期에는 同黨의 산하단체化하여 自由黨세력 확대에 參與, 失勢되게 되었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최초의 女子政黨이라는 점 특기할만하다.

ㄴ. 朝鮮婦女總同盟(建國婦女同盟後身)

1945年 8月 17日 劉英俊(委員長) 朴順天(부위원장) 黃信應(집행위원)등 16名의 女性지도자들이 中心이 되어 다음과 같은 강령을 표창하고 「建國婦女同盟」을 中央女子商業學校에서 조직한 정치 단체이다.

그러나 1947年 2月 11日 「朝鮮婦女總同盟」이라고 改稱, 1,500萬 조선 여성을 총망라한 총집결 단체이며 「民族統一戰線」슬하의 유일한 民主主義 婦女團體라고 선언, 좌익운동 단체로 변질 되었다.

즉 1945年 12月 28日 三相會議 결정이 발표되자 全幅的인 지지를 표명했고 李承晚博士의 대한 민국 정부수립안을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의 음모라고 적극 반대하였다.

따라서 大韓民國政府樹立後 非合法團體로 인정되어 解散당했다. 會員들은 越北 또는 地下工作隊로 活動하거나 右翼으로 전향했다.

나. 女性의 地位向上 團體

ㄱ. 獨立 促成愛國婦人會

1945年 9月 朴承浩(委員長)中心으로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세우고 조직한 婦女運動 단체다.

1. 母國에 自主獨立을 促成한다.

2. 女性의 地位向上을 도모한다.

3. 世界平和의 공헌을 期한다.

ㄴ. 韓國愛國婦人會

1945年 俞廷卿을 위원장으로 梁美拿(부위원장), 朴明희(文化) 崔以權(선전)등이 中心이 되어 다음과 같은 강령下에 조직한 여성단체이다.

1. 知能을 啓發하여 自我向上을 期함.
2. 民族共榮의 社會건설을 期함.
3. 女權을 擴充하여 男女共立을 期함.

以上の 두 단체는 1946年 9月 統合 「大韓愛國婦人會」로 개칭, 국가를 위한 奉仕, 民族文化의 向上, 女性地位向上에 이바지할 것을 目的으로 再發足했으나 自由黨이 조직되자 본래의 目的을 이탈, 그 山下 단체로서 有名無實한 단체로 되었다.

다. 직업, 기능별 단체

ㄱ. 朝鮮科學 女性會

1949年 2月 10日 國立 서울 醫科大學 衛生學敎室을 근거로 宋霽(위원장) 孫致貞(부위원장)등 9名의 任員이 中心이 되어 조직된 최초의 여성 학구 단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綱領을 표방했으나 그후에 活動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음은 유감이다.

1.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新知識과 교양과 學識의 向上을 圖하고 結合하여 質的 朝鮮科學體勢의 확립을 期함.

2. 本會는 生活, 文化, 社會, 衛生, 大衆啓蒙등의 제사업을 通한 經國에의 寄與와 아울러 全般여성 대중의 政治적, 經濟적, 社會적 지위의 向上을 期함.

3. 本會는 조선여성 學識의 進흥을 위한 諸勞力과 함께 國家 및 社會에 依한 그 自己의 保有를 期함.

ㄴ. 大韓家政學會

1947年 5月 가족제치 衣食住生活改善問題를 研究할 目的으로 조직된 學識단체로서 현재는 家政學 全般에 걸친 研究를 하며 月例發表會의 개최, 國際家政學會와의 交流를 맺어 좀 더 활발한 學究活動을 전개, 會誌를 發行하는 순수여성 學識 단체다.

ㄷ. 大韓助產員協會

1946年 創立된 것으로 母子保健 사업, 助產事業, 家族計劃事業을 하고 있으며 특히 助產員 倫理敎育을 重點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以上이 民族解放이라는 기쁨과 大韓民國 政府樹立이라는 政治的, 社會的 激動期에 조직된 단체의 大體이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이들 단체의 성격 自體의 공통적인 點은 조국의 광복은 곧 女性解放의 成就를 의미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여기에 力點을 두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6. 25와 피난지에서의 團體活動

韓國政府가 수립됨으로써 어느정도 安定된 상태에서 女性活動이 가능

하여 지던 때에 6.25가 일어나서 단체활동이 불가능하여진다. 그리고 피난지 大邱 釜山에서는 敎會내지 사회복지 단체들이 총동원되어 살한 피난민, 고아들에 對한 敎護事業으로 여성단체가 본연의 活動은 업두도 못낼 판이었다. 그러나 대한 여자청년단이 1950年 9月 창설활동하게 된다. 전쟁이 진행되는 마당에서 女子靑年들의 훈련이나 계몽활동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休戰協商이 進行되는 1952年 11月에 여성문제의 조사 연구를 目的으로 黃信德씨를 中心하여 女性問題研究院이 창설된다. 여지껏 熱과 뜻으로만 여성 단체활동을 추진해오던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女性問題研究院이 당시의 시국관계로 여성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도록 재정적, 인적 구성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치더라도 그 시도는 의욕적인 전향한 것이었다.

6.25동란으로 가족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다. 소위 拉致未亡人, 戰災未亡人, 軍警未亡人, 그리고 父母, 오빠를 잃고 가족의 生計를 이 끌어가야 하는 미혼여성들이 생계를 꾸려가면서 女性의 社會認識과 아울러 경제적 독립이 바로 女權伸張의 길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것도 이때이다. 그리고 폐회에서 봉족의 처참한 피해상에 직면하므로 自由속에 放心되고 利己로 찾던 思潮가 봉사정신을 발휘하게끔 되는 것은 전쟁의 所産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성단체의 활동은 침체되나 여성이 강하게 社會的 役割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5) 발전기에 들어선 여성단체

1953年 7月 休戰이 성립되어 還都를 하나 정부, 민간, 학교할 것 없이 복구사업에 몰두하게 되어 당분간 여성단체활동은 小康狀態로 들어갔다. 그러나 간간히 孤兒事業내지 戰災未亡人의 援産場, 직업보도사업등이 保社部傘下에서 활발히 진행된다.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4.19, 5.16이 큰 變革, 특히 5.16혁명에는 모든 단체를 해소시킴으로 당분간 단체활동이 정지되었다가 民政으로 옮겨지면서 계몽적이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그리해서 1963년서부터는 사회문화 분야만이 아니라 직업·학술·職業輔導 분야에 걸쳐 雨後竹筍 같이 여성단체가 창설되고 특히 1965년을 起點으로 여성소비자 보호운동이 일어나 비로소 여성단체가 경제면에 그 활동의 영역을 넓힘으로 活動範圍이 生活과 직결된다. 還都後인 1953년부터 1968년까지 15년 동안에 생긴 여성단체는 1959년에 발족한 韓國女性團體協議會를 비롯해서 40개 단체에 달한다.

社會文化 단체도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가 증가할뿐 아니라, 女記者클럽, 女流文學人會등 다양스러운, 個性이 강한 여성단체가 생긴다. 이 기간에 특기할 점은 서울 YWCA와 YWCA 연합회가 본자리에 웅장한 회관을 지어 여성활동의 광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회관의 수입으로 보다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재정확보를 위한 一石二鳥格의 건물을 완성한 셈이다.

軍政時 朴正熙 最高議長에서 여성활동의 광장으로 마련한 여성회관을 民間단체에 無償으로 委託 운영케한지 얼마 안되어 그 건물을 정부가 국가소유로 하여 自營하게 된 것은 民間 단체 육성에 과오를 범한 사실이었다. 여하튼 어려운 여건임에서도 최근에 와서 여성단체는 활동규모에 있어서 발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지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형편이다.

(6) 정부기구내의 여성활동

정부내 여성활동기구로는 保社部婦女局, 그리고 서울시婦女課가 있으며 성격은 다소 다르나 女軍, 女警을 들 수 있다. 保社部 婦女局은 1946년 9월 14일 美軍政시대에 婦人局으로 출발(初代局長 高鳳京氏) 정부수립과 동시에 婦女局이 된다. 1963년 12월 16일 婦女兒童局으로 개칭, 兒童課에 婦女課를 두었다가 1967년 2월 11일 兒童課에 아동계, 양호계, 부녀과에 부녀계와 생활개선계를 두었다.

정부기구속에는 단 한 사람의 女子理事官인 婦女局長이 있다. 그러나 정부기구가 개편되거나 축소될 때마다 存廢의 歧路에서 헤매야하는 부녀국은 預算도 적지만 역대부녀국장이 그 기능을 충분히 펴수 없고 개성을 발휘하기 어렵도록 정부안의 남자관리의 이해와 힘조가 적은 部署이다. 保社部산하 여성단체를 감독하는 부녀국은 때와 국장의 人物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支援보다 감독이 심하다는 정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65년 부녀국은 상담소를 비롯한 2,285개의 婦女福祉 시설과 전국 不遇여성을 위해서 29개소의 自立更生 직업보도소를 開設, 직업보도를 하고 있다. 淪落女性 선도사업으로 양재, 편물봉의 기술습득과 母子保護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8개도시에 여성회관이 있어 여성들의 활동광장으로 쓰여지고 있다.

예산은 적지만 많은 복지사업과 민간단체와 정부사이에서 유일한 다리역할을 하는 부녀국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좀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주어져야 한다는 여성들의 소리를 정부는 경청하여 활발하게 일하는 부녀국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市婦女課(初代課長 金誠賢氏)는 1947년 6월 內務部 소속으로 발족하였다가 1951년 市社會局으로 移營되어 현재에(현과장 최남형氏)이른다.

서울市 규모나만치 婦女局처럼 복잡하지는 않고 孤兒院, 養老院을 비롯해서 근로여성분야에 이르기까지 복지활동이 활발하다. 민간여성단체와 보다 더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야 함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官과 민간단체의 협동과 유대가 긴밀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성활동의 성과가 한층 큰 것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女軍은 1950年 9月 6日 申性模 國防長官 當時 創設, 金賢淑少領이 초대 女軍部長으로 위임됐다. (女軍部가 後에 處가 됨)女軍 창설의 동기는 6.25를 당하고, 萬國軍을 勝利로 이끄는 길은 여자도 싸워야 한다는 信念에서 國軍의 한 부서로 출발한 女軍은 初期에는 일반훈련을, 얼마후에는 女性에 적당한 打字, 텔레타이프, 경리·행정면에 중사하도록 기술을 습득케하고 한편으로는 간호의 전문분야에서 軍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데 현재 5代女軍處長인 金 順德大領은 女軍 第1期生이다.

女警은 1947年 3月 美軍政治下에서 女子警察이 創設되어 初代 警務官으로 高 鳳京氏(初代 女警課長)가 그리고 初代 女子警察署長으로 梁 漢拿氏가 임명됐다. (創設時 女警數 600名)

1957年 8月 15日에 女子 警察署制度가 廢止되기는 하였으나 女警은 그대로 存續, 창설시부터 하던 일인 送迎保護, 淪落女性 善導, 女性被疑者檢舉 등에 임하는 등 女性이 해야 할 分野를 담당, 현재에 이른다.

Ⅲ. 女性團體活動 및 組織現況

現在 活動하고 있는 女性團體의 所存地와 관계 부처에의 등록여부를 살펴보면서 한국 여성단체의 활동 및 조직 現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1〉에서 보면 단체의 소재지가 서울에 55단체, 지방에 2개 단체로 전체의 96.4%가 서울

〈표 Ⅲ-1〉

단체의 소재구

단 체 소 재 구	단 체	%	단 체 소 재 구	단 체	%
중 구	23	40.4	도 분 구	3	5.3
종 로 구	16	28.1	시 대 문 구	1	1.8
영 동 포 구	2	3.5	성 북 구	3	5.3
성 동 구	—	—	마 포 구	1	1.8
동 대 문 구	2	3.5	지 방	2	3.5
용 산 구	1	1.8	강 남 구	1	1.8
관 악 구	2	3.5	합 계	57	100

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는 중구에 23단체, 종로구에 16단체로 전체의 69.4%가 서울의 中心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각단체가 機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소극적인 活動과 도시中心의 사업내용, 활동대상의 제한점을 안고 있으며 각 단체의 지부가 있다하나 대부분 지방의 대도시에 두고 있다. 각 여성단체는 앉아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탈피하여 농어촌 여성과 근로여성을 위한 사업, 도시의 여유를 농촌의 바쁜 생활에 옮기는 적극적인 사업을 벌여야겠다.

〈표 Ⅲ-2〉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에 가장 많은 여성단체(16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문공부(11단체), 문교부(7단체) 순서로 등록되어 있다. 비등록단체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사회부에는 직업 및 기능별 단체와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고 민간외교단체는 외무부와 문교부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60%가 비등록단체이고 회원친목을 위한 단체의 $\frac{1}{3}$ 가량이 비등록 단체로 되어있다.

1. 團體의 目的과 規模

1) 創設年代

女性團體가 生成되기는 1900年 전후였으나(1) 創設하여 現存까지 活動하고 있는 여성단체 가운데 1948(정부수립)年 以前에 창설된 단체가 12단체로 전체의 21.4%, 정부수립 이후 1960年 까지 11 단체로 17.9%, 1960年代가 23단체로 40.3%, 1970年 이후가 11 단체로 19.3%이다.

(1) 本研究誌 Chapter Ⅱ 참조

(표 II-2)

등록부처별 여성단체의 수

등록부처	보건 사회부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중공부	농수산부	교육부	문공부	비등록 단체	Total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 수
직업기능별 단체	6							1	1		8
종교 단체	1								3	6	10
국민식생활개선 단체							4				4
민간외교 단체		1				2					3
여성외교위향상	2				1				1	1	5
의원외전목	6					2			4	6	18
의원외전목(지역제한)	1		2			2			1		6
연구 단체						1			1		2
기 타				1							1
Total	16	1	2	1	1	7	4	1	11	13	57

정부수립 이후 1960년까지 단체창설이 침체되었던 까닭은 그 사이 6.25사변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던 때문으로 보여지며, 1960年初 國內의 革命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개선으로 여성들도 자극을 받게 되고 國外的으로는 Woman Power를 부르짖는 女性解放運動에 부응하여 여성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단체의 수요가 활동의 적극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침체되었던 한국 여성단체가 1960年 후반기에 國內外的으로 자극을 받아 단체창립을 서두르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표 II-3)에서 보면 종교단체는 이미 1948年 이전에 70%(7개 단체)가 창설되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여성들의 食生活에 까지 단체가 침투하여 국민식생활개선단체 등이 出現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한국 여성단체의 활동은 종교단체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단체활동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표 II-3)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창설年代

단체의 기능 목적	직업 기능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 생활 개선 단체		민간외교 단체		여성외교 위향상		의원외 전목 단		의원외 전목사 단 (지역 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창설年代																				
1948년 이전	2	25.0	7	70.0	—	—	1	33.3	—	—	1	5.5	1	16.7	—	—	—	—	12	21.1
1949—1960년	2	25.0	1	10.0	—	—	—	—	2	40.0	4	22.2	1	16.7	1	50.0	—	—	11	19.3
1961—1965년	—	—	1	10.0	—	—	—	—	1	20.0	3	16.7	1	16.6	—	—	—	—	6	10.5
1966—1970년	3	37.5	1	10.0	1	25.0	2	66.7	2	40.0	3	16.7	3	50.0	1	50.0	1	100.0	17	29.8
1970년 이후	1	12.5	—	—	3	75.0	—	—	—	—	7	38.9	—	—	—	—	—	—	11	19.3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1	100.0	57	100.0

2) 目 的

단체활동의 방향과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단체가 公的으로 표명하는 목적을 고찰하여야 한다. 目的은 사실상 한 단체의 원대하고 포괄적인 것으로서 지향하는 바 이것 자체가 각 단체활동의 구체적 성질과 내용을 대체적으로 방향지워준다 하겠다. 그러나 각 단체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면 목적은 원대하고 바람직하게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알찬 사업활동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목적이 너무나 방대하고 종합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구체적이고 협소한 것이 있기도 하다.

〈표 Ⅲ-4〉에 의하면 회원의 친목을 위한 단체가 25개 단체로 가장 많고 연구단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는 불과 12%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의 여성단체가 친목, 봉사 위주의 단체활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각 단체의 회원 평균연령은 직업기능 단체와 연구단체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연령층은 대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

여성단체의 目的 중에서 여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교양 및 자질향상을 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상호친목을 내세우지 않는 단체들도 단체활동의 결과로써 상호친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으로 공통적인 것은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물

〈표 Ⅲ-4〉 회원의 평균연령에 따른 단체의 기능 목적

단체의 기능 및 목적	30세이하		31세—39세		40세—49세		기 타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직업기능별 단체	2	50.0	4	14.3	1	4.8	1	25.0	8	14.1
총 계 단체			6	21.4	4	19.0			10	17.5
국민식생활개선단체			4	14.3					4	7.0
민 간 외 교 단체	1	25.0			2	9.5			3	5.2
여성의 지위 향상			2	7.1	2	9.5	1	25.0	5	8.8
회 원 의 친 목			11	39.3	12	57.1	2	50.0	25	43.9
봉 사 단 체										
연 구 단 체	1	25.0	1	3.6					2	3.5
Total	4	100.0	28	100.0	21	99.9	4	100.0	57	100.0

론 모든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국가사회의 요청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그 취지를 두고있긴 하지만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은 모든 단체활동의 근본적인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3) 규 모

각 여성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의 수효를 창설당시와 현재, 그리고 가입회원 중에서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수로 구분하여 단체의 기능 및 목적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창설당시 회원 100名 미만으로 시작했던 단체가 30개 단체 (52%)이고 회원 10,000名이상으로 창설했던 단체

는 1개 단체(1.8%)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회원 10,000명이상의 단체가 16개 단체(28%)로 늘어났고 회원 100명 미만의 단체는 9개 단체(약 16%)로 소규모의 단체로 시작했던 한국의 여성단체가 창설 이후 꾸준히 회원수를 늘여왔다고 하겠다.

(표 Ⅲ-5)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회원수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 및 기능별 단체						종교 단체			국민 생활 개선 단체			민간 의료단체			여성의 지위 향상		
	① 창설 당시 회원수		② 현재 가입 회원수		③ 현재 활동 회원수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100명 미만	6	75			112.5	5	50		3	30	1	25			3	100	133.3	133.3
101-500명			112.5		337.5	2	20	2	20	1	10				133.3	133.3	2	40
501-1,000명			337.5		112.5		2	20		1	25		2	50				1
1,001-5,000명	112.5				225				1	10	2	50	1	25		133.3	133.3	
5,001-만명			112.5				2	20	1	10			2	50				
만명 이상			337.5		112.5		4	40	4	40			3	75				
무응답	1	0.5					3	30								1	20	
Total	8	100	8	100	8	100	10	100	10	100	4	100	4	100	3	100	5	100
	N=8						N=10			N=4			N=3			N=5		

단체의 기능 및 목적	회원의 친목 분 사 단체			회원의 친목 분 사 단체 (자적제한)			연구 단체			기 타			Total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실수	%	실수
100명 미만	9	50	527.8	733.3	233.3		233.3	1	50			1	50	1	100
101-500명			527.8	211.1	422.2	116.7	233.3	116.7	1	50					11
501-1,000명			1	5.5	1	5.6		116.7		1	50				1
1,001-5,000명			316.7	316.7	116.7	233.3	3	50		1	50	1	50		4
5,001-만명	211.1		211.1		116.7	116.7									3
만명 이상	1	5.5	527.8	316.7									1	100	1
무응답	1	5.5			116.7										1
Total	18	100	18	100	6	100	6	100	6	100	2	100	1	100	57
	N=18			N=6			N=2			N=1			N=57		

〈표 Ⅲ-5〉 일반 여성들도 사회참여 의식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향상, 핵가족 제도에서 오는 生活의 간소화 등으로 여성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각 여성단체는 증가하는 회원들을 얼마만큼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 자신 내지는 그들이 團體에 가입한 데 대해 소기의 目的을 성취시킬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분석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겠는데 단체에 가입을 해놓고 실제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이 많다. 이런 경향은 회원이 많은 단체에서 나타나는데 민간 의고단체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 연구 단체는 회원의 규모가 작은 반면에 실제 활동회원수도 가입회원수와 거의 비슷하다. 즉 단체활동의 목적이 뚜렷하고 소규모의 단체일수록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만 하고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은 데 각 여성단체들은 회원의 규모에만 치중하지 말고 단체의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내용을 女性들이 希望하는 方向으로 전개하되 이념있는 활동으로 회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회원의 규모에 의한 단체의 사업형태를 보면 대규모단체에서 교육강습을 많이 하고 소규모 단체에서는 세미나, 연구등을 위주로 하며 회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봉사활동은 각 단체가 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록 참조)

2. 團體의 組織과 운영

어느 단체이건 확고한 조직이 짜여져 그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된다면 그 단체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한국의 여성단체가 어떠한 조직으로 짜입세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會 議

각 단체의 조직운영을 분석하는 方法으로 회의의 종류와 빈도를 관찰하여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다. 각 단체마다 회의의 명칭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本研究에서는 총회, 이사회, 실행 위원회로 분류해 보았다. 총회, 이사회에서는 단체의 결정사항과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단체의 기능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실행위원회는 실질적인 단체의 활동내용을 연구·검토하고, 각 부서회의, 지부장회의, 재정회의 등이 여기에 속하며 기타 회의는 이 모든 회의를 제외한 단체마다 필요시에 소집하는 모임이라 하겠다.

각 단체마다 총회는 거의 1년에 1회씩 개최하고 있는데 (43 단체), 총회를 열지 않는 단체가 3개 단체로 이들은 이사회를 총회에 대신하고 있다.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여는 경우는 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긴급히 결정지를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표 Ⅲ-6〉

총회에서는 연간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의 제회를 세우고 회장선출 등을 인준하기도 한다. 〈표 Ⅲ-7〉에서 보면 이사회는 45.6% (26단체)가 1개월에 1회씩 소집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하는 단체도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단체는 총회에서 이사회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Ⅱ-6〉 총회의 횟수

총 회	실 수	%
1년에 1회	43	75.4
2년에 1회	6	10.5
3년에 1회	1	1.8
1년에 1회 이상	2	3.5
기 타	2	3.5
없 다	3	5.3
Total	57	100.0

〈표 Ⅱ-7〉 이사회의 횟수

이 사 회	실 수	%
1년에 1회	2	3.5
2 "	4	7.0
3 "	2	3.5
4 "	6	10.5
5 "	1	1.8
6 "	2	3.5
10 "	2	3.5
11 "	2	3.5
12 "	26	45.6
안한다	8	14.0
수시로	2	3.5
Total	57	100

〈표 Ⅱ-8〉

〈실행 위원회 횟수〉

실행위원회	실 수	%
년 1회	2	3.5
" 2 "	3	5.3
" 3 "	1	1.8
" 10 "	1	1.8
" 12 "	13	22.8
月 2회	1	1.8
" 3회	1	1.8
" 3회이상	3	5.4
안한다	30	52.6
수시로	2	3.5
Total	57	100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단체가 30단체 (52.6%)이고 月 1회이상 소집하는 단체는 17단체 (29.8%)이다.

〈표 Ⅱ-8〉

이상에서 보면 회의를 자주 갖는다고 그 단체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연구할 터인데 여성단체의 회의 빈도수가 너무 적으며 특히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단체가 50%이상이라는 현상은 한국여성단체 조직의 운영이 회의를 통한 민주적 운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겠다.

2) 支會와 부서

단체활동이 대도시에서 있어서는 이웃별 또는 區域別로 조직을 分散시켜 소집단적 활동으로서 여성의 生活에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한편 中小都市 또는 農村地域으로 그 지회를 확장하고 育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Ⅱ-9〉를 보면 지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48개 단체 (84%), 지회가 없는 단체가 9개 단체 (16%)로 거의 모든 단체가 지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中央會를 中心으로 서울과 지방 해외에 지회를 설치하여 유대를 갖고 있다. 전체의 반정도(45.6%)가 서울과 지방에 지회를 두고 세미나, 교육,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있는데 여성단체도 그 조직을 대규모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회의 설치와 회원의 규모와는 별다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체의 목적별로 볼때 국민식생활 개선단체가 지방에만 지회를 설치하고 있다. 창설年代가 오래된 단체일수록 지회의 분포가 광범위한데 이것은 단체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면서 지회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탄직한 경향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외에 지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인데 이러한 단체는 거의 대부분 해외에 中央會가 있고 한국에는 支會의 성격을 띠며 조직이 국제적인데다 유대도 진밀하다. 국제친선과 봉사활동을 주로하면서 회원자격도 제한을 두고 있는 단체가 많고 몇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다. 그 이외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 일본등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도 있으나 그 유대는 친선방문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Ⅲ-9〉

창설年代에 따른 지회의 유무

창설年代 지회의 유무	1948년이전		1949-1960		1961-1970		1970년이후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서울에만 있다			1	9.1	3	13.0	1	9.1	5	8.8
지방에만 있다					3	13.0	3	27.2	6	10.5
서울과 지방	8	66.7	6	45.5	10	43.5	2	18.2	26	45.6
서울과 해외					1	4.5			1	1.8
서울, 지방, 해외	4	33.3	2	18.2	3	13.0	1	9.1	10	17.5
없다			2	18.2	3	13.0	4	36.4	9	15.8
Total	12	100.0	11	100.0	23	100.0	11	100.0	57	100.0

〈표 Ⅲ-10〉

〈단체의 年間 재정에 따른 지회의 유무〉

단체의 재정 지회의 유무	100만원이하		101만 —500만		501만 —1,000만		1,001만 —5,000만		5,000만원이상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서울에만 있다	2	20.0	2	15.4	—	—	—	—	—	—	1	12.5	5	8.8
지방에만 있다	1	10.0	3	23.1	—	—	1	7.7	—	—	1	12.5	6	10.5
서울과 지방	3	30.0	4	30.7	7	77.8	7	53.8	2	50.0	3	37.5	26	45.6
서울과 해외	1	10.0	—	—	—	—	—	—	—	—	—	—	1	1.8
서울, 지방, 해외	1	10.0	1	7.7	1	11.1	3	23.1	2	50.0	2	25.0	10	17.5
없다	2	20.0	3	23.1	1	11.1	2	15.4	—	—	1	12.5	9	15.8
Total	10	100.0	13	100.0	9	100.0	13	100.0	4	100.0	8	100.0	57	100.0

지회의 유무와 단체의 재정과는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회가 없는 단체가 재정이 적게들며 또 서울에만 지회를 두고 있는 단체도 年間재정이 500만원 이하이다.

국제적조직·전국적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일수록 재정이 많은 것은 재정과 지회의 유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회와의 유대를 44개단체(77%)가 갖고 세미나, 교육, 봉사 등의 活動을 벌이고 있다. 〈표 Ⅲ-11〉

지회와의 유기적 관계 및 相互協同하는 方法에는 프로그램지원, 연구세미나, 지부장회의, 지도자훈련 등으로 支會와의 유대를 갖는게 바람직하나 활발하지 못하며 支會와의 유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 11-1)

사업형태에 따른 지회와의 유대

사업형태 지회와의 유대	세미나		강습		취 방 분 류		자 매 결 연		상 담		연 구		교 육		정 시 자 회		전 학		봉 사		Total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없다	2	20.0			1	25.0	1	100.0													4	7.0
있다	8	80.0	6	66.7	2	50.0			3	100.0	2	66.7	10	90.9	1	100.0			12	85.7	44	77.2
비례			3	33.3	1	25.0					1	33.3	1	9.1			1	100.0	2	14.3	9	15.8
Total	10	100.0	9	100.0	4	100.0	1	100.0	3	100.0	3	100.0	11	100.0	1	100.0	1	100.0	14	100.0	57	100.0

〈표 11-2〉에서 보면 부서의 유무는 부서가 없는 단체가 19단체로 38.3%, 부서가 있는 단체가 36단체로 63%인데 5개 부서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단체가 17단체로 약 30%에 달한다.

사업형태에 따른 부서의 분류를 관찰하면 세미나, 교육, 강습을 주로하는 단체가 부서의 분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전학을 주로하는 단체는 부서를 분류하지 않고있다. 단체가 활동내용에 비하여 부서의 분류를 다양하게 하고있는 데 한명의 실무자가 1개 이상의 부서를 맡고있는 단체도 있다.

(표 11-2)

사업형태에 따른 부서의 유무

사업형태 부서의 유무	세미나		강습		취 방 분 류		자 매 결 연		상 담		연 구		교 육		정 시 자 회		전 학		봉 사		Total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인 수	%
5개 부서이하	3	30.0	2	22.2	2	50.0			1	33.3	1	33.3	4	36.4					6	42.9	19	38.3
5개 부서이상	4	40.0	4	44.5			1	100.0	1	33.3	1	33.3	3	27.2	1	100.0			2	14.3	17	29.9
없다	2	20.0	3	33.3	2	50.0			1	33.3	1	33.3	4	36.4			1	100.0	5	35.7	19	38.3
무응답	1	10.0																	1	7.1	2	3.5
Total	10	100.0	9	100.0	4	100.0	1	100.0	3	100.0	3	100.0	11	100.0	1	100.0	1	100.0	14	100.0	57	100.0

3) 年次경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려면 조직이 확고해야하고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活動을 전개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곤란을 받고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재정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단체들의 年次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1-3〉

재정액을 101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쓰는 단체와 5,000만원까지 쓰는 단체가 각각 13단체로 22.8%이고 100만원 미만은 쓰는 단체가 10개 단체로 17.6%, 501만원에서 1,000만원을 쓰는 단체가 9단체로 15.8%를 차지하며 5,000만원 이상을 쓰는 단체가 4개 단체로 14%이다.

재정액 100만원 미만의 단체는 회원의 규모가 작으며 5,000만원 이상을 쓰는 단체는 많은 회

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둬들이는 회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되는 제정과 회원수가 많으므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지는 대규모화에서 제정되는 제정으로 회비에의 제정의존도가 높으며 회원의 부담이 많아지고 사업활동이 소극적이기 쉽다.

창설年代에 따른 단체의 제정은 창설年代가 오래된 단체일수록 제정액이 많고 近年에 창설된 단체일수록 제정액을 적게 책정하고 있다.

〈표 Ⅱ-13〉 회원수에 의한 단체의 年제정

회원수	100명미만		101—500명		501—1,000명		1,001—5,000명		5,001—1만명		10,001—10만명		10만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00만원미만	1	11.1	5	55.6	3	33.4			1	16.7	—				10	17.6
101만—500만	3	33.4	2	22.2	2	22.2	1	12.5	1	16.7	4	33.4			13	22.8
501만—1,000만	1	11.1			2	22.2	3	37.5	—		3	25.0			9	15.8
1,001만—5,000만	2	22.2			2	22.2	1	12.5	2	33.2	3	25.0	3	75.0	13	22.8
5,000만이상							1	12.5	1	16.7	1	8.3	1	25.0	4	7.0
무응답	2	22.2	2	22.2			2	25.0	1	16.7	1	8.3			8	14.0
Total	9	100.0	9	100.0	9	100.0	8	100.0	6	100.0	12	100.0	4	100.0	57	100.0

각 단체는 회비, 창조금, 사업수입금, 기본재산 수입금, 정부기관 보조비 등으로 제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회비만으로 제정을 충당하는 단체는 8개 단체로 14.3%, 창조금만으로 충당하는 단체가 3개 단체, 사업수입금만으로 충당하는 단체가 1개 단체, 정부기관 보조비로 충당하는 단체가 1개 단체이다.

회비만으로 단체가 유지된다면 회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단체 또한 회원들을 수용하기에 벅할 것이다. 〈표 Ⅱ-14〉에서 관찰해보면 단체의 제정에 충당되는 회비의 비율은 제정의 충당에 회비가 거의 보편이 되지 않거나 회비를 전지 않는 단체가 15개 단체, 1—39%를 차지하는 단체가 18개, 40—69%를 충당하는 단체가 8개, 70—99%를 충당하는 단체가 6개, 회비로만 충당하는 단체가 8개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별로 보면 직업·기능별 단체의 50%가 회비로만 단체의 제정을

〈표 Ⅱ-14〉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회비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 단체		종교단체		국민성 정단체		민간교회		여성의 자위향상		회원의 친목, 봉사 단체		회원의친목 봉사단체 (자격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0(%)	2	25.0	—	—	1	25.0	1	33.3	3	60.0	5	27.7	1	16.7	1	50.0	1	100.0	15	26.4
1—39%	1	12.5	6	60.0	2	50.0	1	33.3	1	20.0	4	22.2	2	33.3	1	50.0	—	—	18	31.6
40—69%	1	12.5	2	20.0	—	—	1	33.3	—	—	2	11.1	2	33.3	—	—	—	—	8	14.0
70—99%	—	—	—	—	1	25.0	—	—	—	—	5	27.8	—	—	—	—	—	—	6	10.5
100%	4	50.0	2	20.0	—	—	—	—	1	20.0	1	5.6	—	—	—	—	—	—	8	14.0
무응답	—	—	—	—	—	—	—	—	—	—	1	5.6	1	16.7	—	—	—	—	2	3.5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1	100.0	57	100.0

충당하고 있는 데 이들 단체는 회원수도 많고 대부분의 회원이 자봉가입하게 되어있다.

단체의 재정을 찬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보면 전혀 찬조금이 없는 단체가 20개 단체, 1-30%를 찬조금으로 충당하는 단체가 22개 단체, 31-60%를 충당하는 단체가 6개 단체, 61-90%를 충당하는 단체가 4개 단체, 100%찬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단체가 3단체이다. 단체의 목적별로 보면 연구단체와 직업기능별 단체의 일부가 찬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표 Ⅱ-15〉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찬조금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활개선단체		민간외교단체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의 복지 향상		회원의 친목 봉사단체 (자제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참조금																				
0%	5	62.5	5	50	1	25	1	33.3	2	40	6	33.3							20	35.1
1-39%	2	25	3	30	2	50	2	66.7	1	20	11	61.1	1	16.7					22	38.6
40-69%			2	20	1	25							2	33.3	1	50			6	10.5
70-99%									2	40			2	33.3					4	7.0
100%	1	12.5													1	50	1	100	3	5.3
무 응답											1	5.6	1	16.7					2	3.5
Total	8	100	10	100	4	100	3	100	5	100	18	100	6	100	2	100	1	100	57	100

각 단체가 찬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단체 자체가 찬조금에의 의존을 탈피하려고 하거나 찬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지며, 초창기에 부정확한 찬조금에 의한 활동에서 이제는 회비, 사업수입금, 기본재산수입금으로 단체와 재정이 대체되어가고 있음이 보여진다.

단체의 목적에 의한 사업수입금을 보면 39단체가 사업수입금이 전혀 없으며 1개 단체만이 단체의 전체 재정을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의 비생산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각 단체가 활동하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기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 해 나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표 Ⅱ-16〉

〈표 Ⅱ-16〉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사업수입금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활개선단체		민간외교단체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의 복지 향상		회원의 친목 봉사단체 (자제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0%	6	75	7	70	3	75	2	66.7	5	100	10	55.5	3	50	2	100	1	100	39	68.4
1-39%	1	12.5	3	30	1	25					6	33.3	2	33.3					13	22.8
40-69%							1	33.3											1	1.8
70-99%											1	5.6							1	1.8
100%	1	12.5																	1	1.7
무 응답											1	5.6	1	16.7					2	3.5
Total	8	100	10	100	4	100	3	100	5	100	18	100	6	100	2	100	1	100	57	100

기본재산수입금이 전혀 없는 단체가 39단체로 69%를 차지하며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입금이 있는 단체가 16단체이다. 대부분의 단체(69%)가 고정된 수입금이 없다는 것은 단체운영의 불안정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Ⅱ-17〉

(표 Ⅱ-17)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기본재산수입금

단체의 기능 및 목적 기본재산수입금	직업기능 별		종교단체		국민 식생활 개선단체		민간외교 단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의 친목 봉사단체		회원의친목 봉사단체 (자격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0%	8	100	5	50	3	75	2	66.7	3	60	13	72.2	3	50	1	50	1	100	39	68.5
1-39%	—	—	1	10	—	—	1	33.3	1	20	1	5.5	1	16.7	1	50	—	—	6	10.5
40-69%	—	—	1	10	—	—	—	—	1	20	3	16.7	1	16.7	—	—	—	—	6	10.5
70-99%	—	—	3	30	1	25	—	—	—	—	—	—	—	—	—	—	—	—	4	7.0
100%	—	—	—	—	—	—	—	—	—	—	—	—	—	—	—	—	—	—	0	—
무 응 답	—	—	—	—	—	—	—	—	—	1	5.6	1	16.6	—	—	—	—	—	2	3.5
Total	8	100	10	100	4	100	3	100	5	100	18	100	6	100	2	100	1	100	57	100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 보조비를 받고있는 단체가 9단체이고 전혀 받지않는 단체가 46단체로 80%가 전혀 보조금을 못받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로는 국민식생활 개선단체가 정부의 식생활 제도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으나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단체수나 활동에 비해 너무나 미비하다. (표 Ⅱ-18)

(표 Ⅱ-18)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기타 기관보조비

단체의 기능 및 목적 기타 기 관보조비	직업기능 별		종교단체		국민 식생활 개선단체		민간외교 단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의 친목 봉사단체		회원의친목 봉사단체 (자격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0%	8	100	9	90	1	25	2	66.7	4	80	15	83.3	5	83.3	1	50	1	100	46	80.7
1-39%	—	—	1	10	2	50	1	33.3	1	20	1	5.6	—	—	1	50	—	—	7	12.3
40-69%	—	—	—	—	1	25	—	—	—	—	—	—	—	—	—	—	—	—	1	1.7
70-99%	—	—	—	—	—	—	—	—	—	—	—	—	—	—	—	—	—	—	0	—
100%	—	—	—	—	—	—	—	—	—	—	1	5.6	—	—	—	—	—	—	1	1.8
무 응 답	—	—	—	—	—	—	—	—	—	—	1	5.5	1	16.7	—	—	—	—	2	3.5
Total	8	100	10	100	4	100	3	100	5	100	18	100	6	100	2	100	1	100	57	100

단체의 재정충당을 회비에 전히 의존하지않는단체가 15개단체, 관조금에 전히 의존하지않는 단체는 20개단체, 사업수입금이 없는 단체는 39단체, 기본재산 수입금이 없는 단체가 39단체, 기관보조비를 전히 받지않는 단체가 46개 단체이다. 각 단체의 재정을 보조금과 자체충당기금과 구분해 보면 보조금에 의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곳이 9개단체, 자체충당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3개 단체이다.

이상에서 보면 여성단체도 점차로 자체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표 Ⅱ-19)

단체의 재정에 따른 자체건물의 유무

단체의 재정 자체 건물유무	100만원 이하		101만-500만		501만-1,000만		1,001만-5,000만		5,000만 이상		무 응 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있 다	4	40.0	3	23.1	4	44.4	6	46.2	4	100.0	4	50.0	25	43.9
없 다	6	60.0	10	76.9	5	55.6	7	53.8	—	—	4	50.0	32	56.1
Total	10	100.0	13	100.0	9	100.0	13	100.0	4	100.0	8	100.0	57	100

4) 자체진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가운데 자체진출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25개 단체인데 일반적으로 창설年代가 오래되고 단체의 재정이 많은 단체에서 자체진출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Ⅲ-19>

단체의 사업활동을 전개하려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방이 필요하게 된다. <표Ⅲ-20> 에서보면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3개 단체이며 1개 이상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54개 단체로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사무실이 없는 단체는 단체장의 사택을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위한 방의 유무를 보면 전체의 53%가 프로그램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사가 있거나 회원을 위한 모임이 있을 때는 방을 빌려서 하고 있다. <표Ⅲ-21>

<표Ⅲ-20> 단체의 재정에 따른 사무실수

단체의 재정	100만원 이하		101만-500만		501만-1,000만		1,001만-5,000만		5,000만 이상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사무실수														
0개	1	10.0	2	15.4	—	—	—	—	—	—	—	—	3	5.3
1개	8	80.0	10	76.9	6	66.7	6	46.2	1	25.0	5	62.5	36	63.2
2-4개	1	10.0	1	7.7	3	33.3	6	46.2	2	50.0	1	12.5	14	24.5
5개 이상	—	—	—	—	—	—	1	7.6	1	25.0	2	25.0	4	7.0
Total	10	100.0	13	100.0	9	100.0	13	100.0	4	100.0	8	100.0	57	100.0

<표Ⅲ-21> 단체의 재정에 따른 프로그램방의 유무

단체의 재정	100만원 이하		101만-500만		501만-1,000만		1,001만-5,000만		5,000만 이상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프로그램방														
있	5	50.0	1	7.7	4	44.4	9	69.2	3	75.0	5	62.5	27	47.4
없	5	50.0	12	92.3	5	55.6	4	30.8	1	25.0	3	37.5	30	52.6
Total	10	100.0	13	100.0	9	100.0	13	100.0	4	100.0	8	100.0	57	100.0

자체진출은 물론이요 사무실과 프로그램을 위한 방을 확보하는 것은 단체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주고 있다.

5) 간행물

대부분의 단체가 몇가지의 인쇄물을 간행하고 있다. 간행물이 단체활동을 연속적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회원들은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 조직체로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표Ⅲ-22> 회원수에 따른 간행물 발간

회원수	100명미만		101-500명		501-1,000명		1,001-5,000명		5,001명 이상		10,001-10만명		10만 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간행물발간																
예	3	33.3	3	33.3	3	33.3	6	75.0	5	83.3	8	66.7	4	100.0	32	56.1
아니오	6	66.7	5	55.6	6	66.7	2	25.0	1	16.7	4	33.3	—	—	24	42.1
무응답	—	—	1	11.1	—	—	—	—	—	—	—	—	—	—	1	1.8
Total	9	100.0	9	100.0	9	100.0	8	100.0	6	100.0	12	100.0	4	100.0	57	100.0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단체가 32단체로 단체의 절반이상이 간행물을 내고 있으며 단체의 재정이 큰 단체가 간행물 발간을 더 많이 하고있다. 특히 회원수가 많은 단체는 간행물로의 회원들의 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느낄 수 있게하고 있다. <표 Ⅱ-22>

단체의 재정이 많은 단체와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단체에서 간행물 발간을 많이 하고 있다. 단체의 목적별로 봤을 때에 직업기능별 단체와 종교단체에서 간행물을 내고있다.

단체가 내고있는 간행물의 종류에는 주간, 월간, 년간, 계간 등으로 분류되는데 주로 월간을 내는 단체가 많고(10개 단체) 격월간 또는 연간으로 간행물을 내는 단체가 5개 단체이다. 사업형 특별로 간행물 종류를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단체가 50%이상을 월간으로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행물의 크기나 내용은 각 단체마다 다르며 주로 단체의 회보나 사업활동을 위한 책자를 많이 내고 있다. <표 Ⅲ-23>

<표 Ⅲ-23>

사업형태에 따른 간행물 종류

간행물종류	세미나		강습		위문발문		자제결연		상담		연구		교육		진시·바자회		전학		봉사		Total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집수	%
주간	1	14.3																			1	3.0
월간	1	14.3							1	50.0	1	100.0	5	55.6					2	28.6	10	30.3
격월간	1	14.3	1	25.0									2	22.2					1	14.3	5	15.2
계간	1	14.3															1	100.0	1	14.3	3	9.1
년 2회													1	11.1							1	3.0
연간	1	14.3			1	100.0			1	50.0			1	11.1	1	100.0					5	15.2
분기간행물			2	50.0															1	14.3	3	9.1
무응답	2	28.6	1	25.0			1	100.0											1	14.3	1	3.0
Total	7	100.1	4	100.0	1	100.0	1	100.0	2	100.0	1	100.0	9	100.0	1	100.0	1	100.0	7	100.1	33	100.1

3. 단체활동의 기능과 형태

각 단체가 公的으로 제시하는 위치와 목적은 단체의 조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이다. 그러한 위치와 목적만으로 각 단체의 기능과 활동의 형태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다. 어떠한 원칙아래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전개시키며 많은 분야에 걸쳐 조직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활동의 업적을 기반으로 여성단체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단체활동의 기능

일반적 단체로서의 여성조직활동은 그들의 主目的과 主活動을 廣義의 成人敎育과 사회봉사에 두고 있으며 사회운동, 연구활동,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단체가 여러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몇가지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여성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계몽시키려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여기에서 여성단체의 기능을 성인교육과 사회운동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본다. 현대사회에서 성인교육은 중요한 것이

며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國內外의 정치적 변화, 과학과 기술의 발달, 生活수준의 향상과 문화 생활에의 의욕과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흐름 속에서 個人은 학교교육에서 얻은 知識 및 意識에 계속 의존할 수 없는데 우리 교육제도에서는 成人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각 여성단체에서는 강연회 및 강좌 등으로써 여성대중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성인교육을 위한 기능으로 보서는 약간 미흡하긴 하나 지금의 수준에서 좀더 알찬 지식과 생활기술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단계로 끌어올린다면 성인교육의 역할을 여성단체가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단체활동이 회원과 일반여성들을 교육하는 것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에서이다. 그 변화한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기도 하며 사회관계 및 제도상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집단적 실천운동과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 및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여성단체는 소비자 보호운동, 가족법 개정안 등으로 그 구실을 하고있다 하겠다. 여성단체의 사회운동 중에서 사회봉사가 그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봉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회속에 살고있는 개인들로서는 언제나 실천해야할 책임이고 현실적 요청이다. 사회봉사와 같은 일머리 자선사업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심을 베푸는 것으로 실시되어왔다. 이러한 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우리의 인식도 점차로 바뀌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봉사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사회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다 포함하는것이 여성단체다.

봉사활동은 사회사업기관을 설치로 설립, 운영하거나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도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단체의 회원들이 이러한 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도와주는 방법 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 활동영역 또한 광범위하나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사업형태

단체활동의 意義는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形式과 方法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형태에서 고찰해 보려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주로 하는 사업에는 세미나, 강습, 위문, 자매결연, 상담, 연

(표 Ⅲ-24)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따른 사업형태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 단체		종교단체		국민생활 개선 단체		민간외교 단체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의 복지향상 단체		회원친목의 봉사 단체 (자조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사업형태																				
세 미 나	3	37.5	2	20	—	—	—	—	2	40	—	—	3	50	—	—	—	—	10	17.5
강 습	1	12.5	2	20	3	75	—	—	—	—	3	16.7	—	—	—	—	—	—	9	15.8
위 문 방 문	—	—	1	10	—	—	2	66.7	—	—	1	5.6	—	—	—	—	—	—	4	7.0
자매결연	1	12.5	—	—	—	—	—	—	—	—	—	—	—	—	—	—	—	—	1	1.7
상 담	1	12.5	—	—	—	—	—	—	1	20	1	5.5	—	—	—	—	—	—	3	5.3
연 구	—	—	—	—	—	—	—	—	1	20	1	5.5	—	—	1	50	—	—	3	5.3
교 육	—	—	1	10	1	25	1	33.3	—	—	5	27.8	1	16.7	1	50	1	100	11	19.3
전시·파자의	—	—	1	10	—	—	—	—	—	—	—	—	—	—	—	—	—	—	1	1.7
전 학	1	12.5	—	—	—	—	—	—	—	—	—	—	—	—	—	—	—	—	1	1.8
봉 사	1	12.5	3	30	—	—	—	—	1	20	7	33.3	2	33.3	—	—	—	—	14	24.6
Total	8	100	10	100	4	100	3	100	5	100	18	100	6	100	2	100	1	100	57	100

구, 교육, 전시바자회, 전학, 봉사활동 등이 있는데 단체와 목적별로 사업형태를 관찰하면 연구 단체는 연구와 교육이 각각 50%이고 국민식생활 개선단체는 강습과 교육을 통해서 회원을 확보하고 아직까지는 식생활 제봉단체로써 연구나 세미나의 사업은 하지않고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 단체는 상담, 연구, 세미나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있어 단체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III-25>

단체의 회원규모에 의해서 사업형태를 고찰해보면 회원 1,000명 이상의 단체에서는 강습, 교육, 전시회등 대외적인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있는데 많은 수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원 1,000명이하의 단체는 세미나, 위문, 연구형태의 사업으로 소규모 회원이 참석하여 다같이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주로하고 있음이 나타난다<표 III-25>.

<표 III-25>

회원수에 따른 사업형태

사업형태	회원수		100명 미만		101-500명		501-1,000명		1,001-5,000명		5,001만 명		10,001-10만명		10만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세 미 나			4	44.5	3	33.3	1	12.5	1	16.7	1	8.3					10	17.5
강 습	2	22.2	1	11.1					1	12.5			5	41.7			9	15.7
위문 방문	2	22.2	2	22.2													4	7.0
차예 결연											1	16.7					1	1.8
상 담	1	11.1							1	12.5			1	8.3			3	5.3
연 구	1	11.1	1	11.1	1	11.1											3	5.3
교 육	1	11.1	1	11.1					3	37.5			2	16.7	4	100.0	11	19.3
전시·바자회													1	8.3			1	1.8
전 학					1	11.1											1	1.8
봉 사	2	22.3			4	44.5			2	25.0	4	66.6	2	16.7			14	24.5
Total	9	100.0	9	100.0	9	100.0	8	100.0	6	100.0	12	100.0	4	100.0	57	100.0		

3) 事業對象

단체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活動의 대상을 <표 III-26>과 같이 분류해 보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27개 단체로 가장 많다. 단체회원 中心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단체가 20개 단체이며 도시중하층 여성과 도시중상층 여성, 농어촌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펴나가고 있는 단체가 10개 단체이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회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대개의 단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수 1,000명 미만의 단체에서는 지역적인 여성을 활동대상으로 삼고있는데 회원의 규모가 여성단체의 활동대상 제층을 결정짓는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제정의 규모가 적은 단체에서는 상대제층을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을 국민전체나 단체회원으로서 하는 단체에서는 제정과 관계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데 대체로 단체의 제정형편에 적합한 사업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형태에 따른 사업대상을 보면, 국민전체를 단체회원으로 상대하는 단체는 많은 대상을 수

〈표 Ⅲ-26〉

회원수에 따른 상대계층

상대계층	회원수 100명미만		101-500명		501-1,000명		1,001-5,000명		5,001-1만명		10,001-10만명		10만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정치	3	33.3	2	22.2	3	33.3	3	37.5	6	100.0	7	58.3	3	75.0	27	47.4
단체회원	1	11.1	5	55.6	4	44.5	4	50.0			5	41.7	1	25.0	20	35.1
도시중상층여성	1	11.1			1	11.1	1	12.5							3	5.3
도시중하층여성	3	33.4	1	11.1	1	11.1									5	8.8
농어촌여성	1	11.1	1	11.1											2	3.5
Total	9	100.0	9	100.0	9	100.0	8	100.0	6	100.0	12	100.0	4	100.0	57	100.0

용할 수 있는 세미나, 강습, 교육, 봉사활동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여성을 대상으로한 단체는 위문, 방문활동을 주로 하고 도시의 중상층 여성을 상대로 하는 단체는 세미나, 강습, 상담, 봉사활동을 골고루 하고있다(표 Ⅲ-27). 상대계층을 제한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그렇지 않은 단체보다 막연하지 않고 실질적이고도 호소력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 Ⅲ-27〉

사업형태에 따른 상대계층

사업형태	세미나		강습		위문방문		자매결연		상담		연구		교육		전자·자회		전학		봉사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정치	3	30.0	4	44.5			1	100.0	1	33.3	1	33.3	7	63.6			1	100.0	9	64.3	27	47.3
단체회원	6	60.0	2	22.2	1	25.0			1	33.3	2	66.7	4	36.4	1	100.0			3	21.4	20	35.1
도시중상층여성	1	10.0	1	11.1					1	33.3											3	5.3
도시중하층여성			2	22.2	1	25.0													2	14.3	5	8.8
농어촌여성					2	50.0															2	3.5
Total	10	100.0	9	100.0	4	100.0	1	100.0	3	100.0	3	100.0	11	100.0	1	100.0	1	100.0	14	100.0	57	100.0

4) 중간지도자의 육성

여성단체활동도 이제는 기능적으로 分化된 조직을 이루고 각 부서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직업적 실무자들을 必要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단체활동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타개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지도층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각 단체에서는 중간지도자를 발탁해서 단계적으로 지도자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간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44개단체(77%), 안하고 있는 단체가 12개단체(21%)인데 각 단체가 중간지도자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훈련方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표 Ⅲ-28). 이것은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서 단체들 사이에 힘을 모아 중간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습회의 기회를 마련하고 단체활동의 지도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의를 개최하고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단체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미나, 협의회 등을 갖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한다.

〈표 Ⅱ-28〉

중간지도자 훈련여부

중간 지도자 훈련		실 수	%
한	다	44	77.2
안	한	12	21.1
무	응	1	1.7
Total		57	100.0

단체가 기능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단체실무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유급실무자를 확보하고있는 단체가 전체의 75%이며 이중에서 3명이하의 유급실무자를 두고 있는 단체가 23개 단체로 대부분이다. 약 25%의 단체가 유급실무자를 두지 않고 봉사활동, 위문방문을 주로하고 있는데 단체의 재정도 빈약한 실정이다.

유급실무자를 10명이상 두고있는 5개 단체는 전국의 조직과 부서의 기능이 전문화되어 있으며 사업내용도 성인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체계있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표 Ⅱ-29〉

〈표 Ⅱ-29〉

단체의 재정에 의한 유급자수

단체의 연재정	100만원이하		101만—500만		501만—1,000만		1,001만—5,000만		5,000만원이상		무 응 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유급자수														
3명 이하	3	30.0	6	46.2	6	66.7	3	23.1	1	25.0	4	50.0	23	40.3
4—10명	1	10.0	1	7.6	2	22.2	8	61.5	—	—	3	37.5	15	26.3
10명이상	—	—	—	—	—	—	1	7.7	3	75.0	1	12.5	5	8.8
없 다	6	60.0	6	46.2	1	11.1	1	7.7	—	—	—	—	14	24.6
Total	10	100.0	13	100	9	100.0	13	100.0	4	100.0	8	100.0	57	100.0

5) 조직의 확산

소수의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지회를 설치하고 있다. 지회의 육성과 확산은 그 지역 사회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단체활동의 범위를 도시는 물론 인근 農漁村地域까지 확대시키는 目的아래서 이뤄져야겠으나 지금까지는 中小都市에 있는 지회자체가 그 지역사회의 요청에도 제대로 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각 단체는 機構를 強化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단체활동의 관심을 농어촌 부녀자들에게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도시에 있는 지회를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근 농어촌까지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하면서 지회를 적극 지원해야겠다.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 차이를 좁히는 역할은 도시민들이 앞장서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계속 유기적 활동을 전개시켜가야 한다.

〈표 Ⅲ-30〉에서 보려는 조직의 확산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가 70%이다. 단체의 재정별로 확산

〈표 Ⅲ-30〉

단체의 재정에 의한 조직의 확산계획

단체의 재정	100만원이하		101만—500만		501—1,000만		1,001—5,000만		5,000만원이상		무 응 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조직의 확산														
예	5	50.0	8	61.5	8	88.9	11	84.6	3	75.0	6	75.0	41	71.9
아 니 오	5	50.0	5	38.5	1	11.1	2	15.4	1	25.0	1	12.5	15	26.3
무 응 답	—	—	—	—	—	—	—	—	—	—	1	12.5	1	1.8
Total	10	100.0	13	100.0	9	100.0	13	100.0	4	100	8	100.0	57	100.0

계획을 관찰해 보면 재정규모가 적은 단체일수록 확산계획이 없으며 재정규모가 큰 단체의 80%가 확산계획을 갖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의 확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단체의 목적에 따른 조직의 확산계획은 살펴보면 주로 전문적인 단체들이 조직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단체에서는 약 50% 정도가 확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직의 확산과 아울러 각 단체의 회원증모 방법은 (표 Ⅲ-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단체의 홍보활동이나 매스물을 활용하는 단체가 3개단체이고 가입회원을 통해서 증모하는 단체가 24개단체이다. 여성단체도 이제는 소극적인 폐회활동에서 탈피하여 자체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일반여성에게 여성단체를 인식시키고 회원으로 흡수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단체의 목적별로 회원증모를 보면 직업기능별단체는 거의 자동가입으로 회원증모에 가장 소극적이라 하겠으며 국민서생활단체는 요리강습을 통해서 회원을 증모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증모는 가장 이상적인 증모 방법이라 하겠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에 참석하므로써 여성단체를 인식하게 되는 일반여성 중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여성을 회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각 단체는 교육, 강습, 프로그램 이용이 회원에 한해서라는 제한을 두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원이 되는 경우 그들에게 단체는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겠다.

(표 Ⅲ-31)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회원의 증모운동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서생 단체		인간관계 단체		여성 위생 단체		회원 모집 단체 (자력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홍보활동에스름	1	2.5	—	—	1	25.0	—	—	—	—	1	5.6	—	—	—	—	3	5.3
가입회원이용	2	25.0	3	30.0	0	—	1	33.3	5	100.0	11	61.1	2	33.3	—	—	24	42.1
프로그램이용	1	12.5	3	30.0	2	50.0	—	—	—	—	2	11.1	—	—	2	100.0	11	19.3
스스로 가입	—	—	2	20.0	—	—	—	—	—	—	4	22.2	2	33.3	—	—	8	14.0
자 동 회 원	3	37.5	1	10.0	—	—	—	—	—	—	1	16.7	—	—	—	—	5	8.8
기 타	1	12.5	—	—	1	25.0	2	66.7	—	—	1	16.7	—	—	—	—	5	8.8
무 응 답	—	—	1	10.0	—	—	—	—	—	—	—	—	—	—	—	—	1	1.7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57	100.0

6) 교류관계

여성단체가 많아지고 각 단체의 활동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각 단체 사이의 상호연락 유대를 맺기 위하여 문제의 공통해결과 일관성있는 운동을 위해서 자연히 교류를 갖게 된다. 각 단체의 편익을 중요하고 단체별로 노력하기보다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自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女性들로서 國際교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57개의 단체 가운데 77%(44개 단체)가 국내외 타여성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별로 교류관계를 관찰하면 단체의 목적이 학술적인 단체일수록 교류를 잘 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 연구단체, 종교단체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나 국민식생활단체, 회원의 친목봉사단체들은 약 50%가 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 목적이 넓이 학술적인 단체의 교류도가 높다는 것은 여성단체가 지도자의 친교에 의한 교류에서 벗어나 단체의 활동이나 기능에 의한 교류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Ⅱ-32).

(표 Ⅱ-32)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타여성단체와의 교류

단체의 기능 및 목적 타여성단체와의 교류	직업기능 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활 개선단체		민간외교 단체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 의 친목봉사 단체 (자 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한	6	75.0	10	100.0	2	50.0	2	66.7	5	100.0	13	72.2	3	50.0	2	100.0	1	100.0	44	77.2
단	2	25.0	—	—	2	50.0	1	33.3	—	—	5	27.8	3	50.0	—	—	—	—	13	22.8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1	100.0	57	100.0

(표 Ⅱ-33)에 의하면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는 56.8%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타단체와의 교류를 하고 있다.

각 단체는 정책건의타단이 사회적인 문제점을 단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협의회를 통하여 共同行動을 취하며 共同名義로 압력을 加하면 그만큼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한 단체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Ⅱ-33)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교류단체명

단체의 기능 및 목적 교류단체명	직업기능 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활 개선단체		민간외교 단체		여성의 지위향상		회원의 친목봉사 단체		회원의 문화봉사 단체 (자 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단체협의회	4	66.7	6	60.0			2	66.7	2	50.0	7	53.8	3	100.0	1	50.0			25	56.6
각 여성 단체	2	33.3	4	40.0	2	100.0	1	33.3	2	50.0	6	46.2			1	50.0	1	100.0	19	43.2
Total	6	100.0	10	100.0	2	100.0	3	100.0	5	100.0	13	100.0	3	100.0	2	100.0	1	100.0	44	100.0

(표 Ⅱ-34)에서 관찰해보면 본회 업무유대를 위해서 교류하는 단체가 10개 단체, 범여성운동을 위해서 교류하는 단체가 9개 단체, 단체의 유기적 활동을 위해서 교류하는 단체가 7개 단체, 친목이나 학술교류를 위해서 교류하는 단체가 4개 단체이다.

여성단체활동이 과거의 친목위주의 교류에서 기능적인 업무유대를 위한 교류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체의 유기적 활동과 범여성운동을 위해서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단체가 각기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단체활동이 점차로 국제적인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표 II-34〉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교류하는 이유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		종교단체		국민식생활개선단		민간외교단체		여성외교단체		의원외교단체		의원외교단체(자)		연구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교류하는 이유																		
단체의유가적활	2	33.3	—	—	1	50.0	—	—	2	40.0	1	7.7	—	—	1	50.0	7	15.9
법 이 성 문 통	1	16.7	1	10.0	—	—	1	33.3	2	40.0	3	23.1	—	—	1	50.0	9	20.5
본의 업무 유대	—	—	4	40.0	1	50.0	1	33.3	—	—	4	30.8	—	—	—	—	10	22.7
전문 학술 교류	1	16.7	2	20.0	—	—	—	—	—	—	—	—	1	33.3	—	—	4	9.1
무 용 답	2	33.3	3	30.0	—	—	1	33.3	1	20.0	5	38.4	2	66.7	—	—	14	31.8
Total	6	100.0	10	30.0	2	100.0	3	99.9	5	100.0	13	100.0	3	100.0	2	100.0	44	100.0

〈표 II-35〉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의한 국제교류

단체의 기능 및 목적	직업기능		종교단체		국민식생활개선단		민간외교단체		여성외교단체		의원외교단체		의원외교단체(자)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제교류																				
한 다	7	87.5	8	80.0	1	25.0	3	100.0	4	80.0	7	38.9	4	66.7	2	100.0	—	—	36	61.2
안 한 다	1	12.5	2	20.0	3	75.0	—	—	1	20.0	11	61.1	2	33.3	—	—	1	100.0	21	36.8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1	100.0	57	100.0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가 36개 단체(61.2%), 안하는 단체가 21개 단체(36.8%)이다. 단체의 목적별로 교류단체를 보면 국민식생활개선단, 의원의 전문봉사단체가 국제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있

다. 국제교류를 하는 단체는 대부분 전문적인 단체나 민간외교단체로서 연구, 세미나 위주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표 II-36〉에서 보면 미국(5단체), 일본(4단체)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인 제반교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국제적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의 지회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국제교류

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中央會와의 교류는 물론 인접국의 支會와도 꾸준히 교류관계를 지속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4. 女性團體의 指導者

女性團體도 하나의 社會集團으로서 각 團體들이 設定하고 있는 具體的 目標가 女性地位向上이건, 社會奉仕이건, 宗教活動이건, 特殊 福利活動이건, 혹은 會員간의 親睦도모이건간에 이 團體들에 參與한 女性會員들이 각각의 共通의 關心과 目標아래 結束되어(一定期間) 持續的인 相互關係를 맺게 된다. 이때 각 團體의 目的하는 바를 效果的으로 成就해 나가려면 集團內에 組織關

係가 이루어지며 集團構成員간에 地位와 役割이 주어지게 된다. 이 때 會員 個個人의 役割도 중요하지만 이들 會員들과 더불어 團體를 效果의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團體의 指導者의 役割이 중요한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 이다.

韓國女性團體는 發生初期에는 活動目的이 啓蒙, 慈善, 教育 등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出現했으나 三·一運動 以後 八·一五解放 以前까지는 民族解放戰爭이 촉발했고 女性解放과 연결되는 女權을 위한 鬭爭은 서서히 展開되기 시작하였다. 當時와 같이 大衆의 教育水準이 낮은 社會 狀況下에서 그들의 無知와 蒙昧를 깨우치기 위한 啓蒙과 教育活動을 하기 위해서 少數의 뜻있는 女性先覺者들이 活動을 이끌어 왔다.

이 時期의 指導者는 個人的 力量이 卓越하고 指導者의 人格과 權威가 絶對的이며 모든 會員들은 그의 強力한 統率力아래 그를 中心으로 뭉쳐 이끌어 온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라 하겠다. 프로그램 展開에 있어서도 強力한 指導者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推進力에 의해서 되어지며 그의 指示에 따라 犧牲, 奉仕하는 열성있는 會員들에 의해서 活動이 유지되어 왔다고 보겠다.

그러나 8·15 民族解放의 偉大 感激이 제 가시기도 전에 6·25動亂의 쓰라린 경험 등은 거처 오늘에 이르기까지 女性들의 意識水準도 대단히 높아졌으며, 時代變遷과 女性들의 意識變化에 따라 女性團體活動 또한 새로운 內容과 方向을 추구하게 되었다.

團體活動의 目標과 機能이 變化함에 따라 指導者의 機能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指導者의 資質도 變換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대상 女性團體의 指導者에 대해서 ① 會長의 一般的 特性(個人的 資質面 除外), ② 會長의 資格要件 및 ③ 會長의 任期와 選出方法을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會長의 一般的 特性

① 年齡 :

團體를 이끌어 나가는 會長들의 年齡이 어떠한가를 <表 Ⅲ-37>에서 보면 50세이하가 28.6%, 51~60세가 37.5%, 61세이상인 33.9%로 나타나 女性團體指導者들은 대부분 50대전후의 年齡層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특히 66세 이상의 年齡層이 14.3%나 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女性團體의 指導者들은 年齡에서 오는 指導力과 創設당시부터 參與해온 個人的인 影響力이 탁월한 指導者들이라고 보아진다.

<표 Ⅲ-37> 會長의 年齡 構成

연	명	실 수	%
50세이하		16	28.6
51-55세		8	14.3
56-60세		13	23.2
61-65세		12	19.6
66세이상		8	14.3
Total		57	100.0

<표 Ⅲ-37> 會長의 教育 程度

학 령	실 수	%
중졸이하	—	—
고졸정도	10	17.9
대졸이상	47	82.1
Total	57	100.0

② 教育程度

會長들의 教育程度는 82.1%가 大學을 卒業했거나 혹은 그 以上の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고,

高卒이 17.9%로 모두가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女性團體가 運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7)

특히 이들의 年齡構成이 50대 전후이며 50대 以上이 7割이 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女性團體의 指導者들은 教育面에서 該當世代 중에서도 극히 少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보아진다.

③ 職業 :

女性團體의 指導者의 대부분은 專門職에 종사하고 있음을 (표 II-38)에서 알 수 있으며 특히 教育界에 종사하는 比率이 가장 높다. 또한 현재 職業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개 專門職에 従事했었던 사람들이었음이 調査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부기해 두고자 한다.

〈표 II-38〉 회장의 직업

직업	실수	%
교육자	11	19.3
단체장	2	3.5
의사	3	5.3
약사	1	1.7
정치가	4	7
기타	6	10.5
없다	30	52.6
Total	57	100

〈표 II-39〉 會長の 結婚關係

결혼관계	실수	%
기혼	50	87.7
미혼	6	10.5
사별	1	1.8
Total	57	100

④ 結婚關係 :

女性團體指導者들의 대부분인 87.5%가 既婚이고 未婚指導者 10.7%, 死別 1.8%로 나타나(표 II-39) 女性團體活動과 家庭의 양립을 잘 지탱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會長の 資格要件

對象 女性團體의 會長들이 會長되기 전에는 각 단체와 어떠한 紐帶관계가 있었는지, 各團體에서는 會長の 機能을 어느 정도까지 委任하고 있는지, 각 團體가 要求하는 指導者의 類型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 한다.

① 團體와의 紐帶(會長 되기前)

對象 女性團體 57個中 60.7%가 초대회장과 現會長과는 다르다고 하였고 初代會長이 現存의 會長인 단체가 39.4%로 비교적 지도자의 交替가 많았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現存의 會長들이 會長이 되기 전에는 각 該當團體와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표 II-40) 전체적으로 創設者인 경우가 28.1%, 會長團의 一員이었던 경우가 42%, 平會員이었던 경우가 14.0%,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경우가 15.8%로 대부분이 소속단체와는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創設年代가 현재에서 가까울수록 創設者가 현재까지 會長職에 있으면서 團體를 이끌어 왔음을 同表에서 알 수 있다.

(표 II-40)

創設年代別 團體와의 關係

창설년대 단체와의 관계	1948년이전			1949-1960			1961-1970			1970년이후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창 설 자				3		27.3	8		34.8	5		45.4	16		28.1
회 장 단	7		58.4	3		27.3	12		52.2	2		18.2	24		42.1
경 회 원	4		33.3	2		18.1	2		8.7				8		14.0
없 다	1		8.3	3		27.3	1		4.3	4		36.4	9		15.8
Total	12		100.0	11		100.0	23		100.0	11		100.0	57		100.0

團體의 目的과 指導者의 團體와의 關係는 (표 II-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相關성은 알 수 없으나 다만 國民식생활개선단체 등 최근에 조직된 단체의 경우에 創設者가 會長직에 미달하고 있고 會員의 親善, 奉仕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인 경우에 組織과는 전혀 關係가 없었던 人士가 會長職에 임하는 비율이 他 場合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41)

단체의 기능 및 목적 단체와의 관계

창설년대 단체와의 관계	직업기능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활 개선단체		민간의료 단체		여성회 지위향상		회원의 친목회		회원의 친목회 (지위향상)		연구단체		기타		Total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창 설 자	2	25.0	2	20.0	3	75.0	0		3	60.0	6	33.3	—		—		—		16	28.1
회 장 단	3	37.5	6	60.0	—		3	100.0	2	40.0	5	27.8	3	50.0	1	50.0	1	100.0	24	42.1
경 회 원	3	37.5	1	10.0	—		—		—		1	5.6	2	33.3	1	50.0	—		8	14.0
없 다	—		1	10.0	1	25.0	0		—		6	33.3	1	16.7	—		—		9	15.8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1	100.0	57	100.0

② 會長의 役割

會長의 團體에서의 役割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본 것이 (표 II-42)다. 一般적으로 女性 團體의 長은 形式的인 地位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일을 그 밑에 있는 총무나 幹事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本 調査에서는 會長이 實務까지 총지휘하는 比率이 66.6%로 가장 높고 명예직이라는 團體가 12.3%, 會長은 團體를 총괄한다, 최종 중요안건만 처리한다가 각각 10.6%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단체의 長은 실질적인 일까지 맡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

創設年代別 會長의 役割

창설년대 단체에서의 역할	1948년이전			1949-1960			1961-1970			1970년이후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명 예 직	2		16.7	2		18.2	2		8.7	1		9.1	7		12.2
단 회 총 총괄	3		25.0	—			3		13.0	—			6		10.6
최종 중요 안건만	1		8.3	3		27.3	1		4.3	1		9.1	6		10.6
실무까지 총 지휘	6		50.0	6		54.5	17		74.0	9		81.8	38		66.6
	—			—			—		4.3	—			—		
Total	12		100.0	11		100.0	23		100.0	11		100.0	57		100.0

또한 團體가 創設된지 오래된 경우에는 會長의 實務담당 정도의 比率이 낮고 創設된지 얼마

지 않을수록 회장의 役割범위가 넓다고 보아진다.

이는 設置된지 오래된 단체는 本 制度에 올라 그만큼 組織內의 機能分化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단체의 機能이나 目的에 따라 會長의 役割이 어떠한가를 <표 Ⅱ-43>에서 보면 宗教團體와 친목·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團體의 경우에 會長의 實務參與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團體의 目的이 특수한(專門性을 띤) 경우에는 역시 該當分野에 特別 밝은 사람이 會長에 임하여 實務까지도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표 Ⅱ-43) 단체의 기능 및 목적별 회장의 역할

단체의 기능 및 목적 회장의 역할	직업기능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단체		민간외교단체		여성외교단체		회원외교단체		회원외교단체(자조)		연구단체		기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명예직이다	112.5	2	20	—	—	—	—	—	—	—	211.1	116.7	—	—	1	100	7	12.3		
단체를 증진	112.5	2	20	—	—	—	—	—	—	—	15.6	116.7	—	—	—	—	5	8.8		
회중중요인전반	—	—	—	—	—	—	—	—	1	20	422.2	116.6	—	—	—	—	6	10.5		
실무까지총체	675.0	6	60	4	100	3	100	4	80	1161.1	3	50	2	100	—	—	39	68.4		
Total	8	100	10	100	4	100	3	100	5	100	18	100	6	100	2	100	1	100	57	100

會員數가 많고 적은 데 따라 會長의 役割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참조).

③ 會長의 資格要件

會長에 대한 團體의 期待는 무엇인지 즉 어떤 類型의 指導者를 원하는지는 團體의 方向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표 Ⅱ-44>는 會長의 資格要件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57個 對象단체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개 단체에서는 團體의 指導者의 資格에 制限을 두지 않고 있다. 나머지 41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저도자의 要件은 ① 會員이나 理事라야 한다는 團體와의 유대관계를 들고 있고 ② 인적,

(표 Ⅱ-44) 단체의 기능 및 목적에 따른 회장의 자격요인

단체의 기능 및 목적 회장의 자격요인	직업기능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단체		민간외교단체		여성외교단체		회원외교단체		회원외교단체(자조)		연구단체		기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원이어야함	7	87.5	6	60.0	1	33.3	1	33.3			4	20.0	1	16.7					20	36.9
이사	1	12.5	1	10.0					1	100.0			2	33.3					5	9.3
인적사회적경성(有)							1	33.3			9	45.0	1	16.7					11	20.4
재력이있어야함											1	5.0	1	16.7					2	3.7
지식이있어야함			1	10.0	1	33.3					2	10.0	1	16.7	1	50.0	1	100.0	7	13.0
학식이있어야함					1	33.3	1	33.3											2	3.7
기타 무응답			2	20.0							4	20.0			1	50.0			7	13.0
Total	8	100.0	10	100.0	3	99.9	3	99.9	1	100.0	20	100.0	6	101.0	2	100.0	1	100.0	54	100.0

※ 1개 이상의 응답단체 있음.

16단체는 자격 요건없다.

사회적 명성이 있어야 ③ 리더십 있어야 ④ 그 외에 학식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단체가 직업기능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인 경우, 회원이어야 한다고 하는 단체가 많고 친목·봉사단체인 경우에 사회적 명망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女性團體는 일부 특수층 부유여성들의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설年代가 오래된 團體에서는 會員이어야 한다는 반면 創設된지 얼마되지 않은 團體에서는 指導者 個人의 人格과 社會的 名聲 및 leadership이 있어야 하고 財力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창설초기에 團體의 운영에 필요한 자질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표 Ⅲ-45>

<표 Ⅲ-45> 창설年代에 따른 회장의 자격요인

창설年代 회장의 자격요인	1948년 이전		1949~1960		1961~1970		1970년 이후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원 이 타야 한다	7	50.0	3	37.5	7	31.8	3	30.0	20	36.9
이사 "			2	25.0	3	13.7			5	9.3
인격, 사회적명성有	1	7.1	1	12.5	5	22.8	4	40.0	11	20.4
재력이 있어야 함			1	12.5	1	4.5			2	3.7
리더십이있어야함	1	7.1	1	12.5	4	18.2	1	10.0	7	13.0
학식이 있어야 함	1	7.1			1	4.5			2	3.7
기 타 무 응 답	4	28.6			1	4.5	2	20.0	7	13.0
Total	14	99.9	8	100.0	22	100.0	10	100.0	54	100.0

※ 16단체는 자격요건 없음.

會員의 數가 많은 團體에서는 會長의 資格은 會員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會員數가 적은 단체일수록 指導者 個人의 사회적 명성, 財力을 요구하는 것 같다. <표 Ⅲ-46>

<표 Ⅲ-46> 회원수에 따른 회장의 자격요인

회원수 자격요인	100명 이상		101-500명		501-1,000명		1,001-5,000명		5,001-10,000명		10,001-10만명		10만명 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원 이 타야 한다	2	28.6	4	57.1	4	40.0	2	20.0	2	28.6	6	60.0			20	36.9
이사 타야 한다	1	14.2			2	20.0	1	10.0	1	14.2					5	9.3
인격, 사회적명성有	3	42.9			1	10.0	4	40.0			1	10.0	2	66.6	11	20.4
재력이 있어야 함	1	14.2			1	10.0									2	3.7
리더십이있어야함			1	14.2	2	20.0	1	10.0			2	20.0	1	33.3	7	13.0
학식이 있어야 함							1	10.0			1	10.0			2	3.7
기 타 무 응 답			2	28.6			1	10.0	4	57.1					7	13.0
Total	7	100	7	100	10	100.0	10	100.0	7	100	10	100.0	3	100	54	100.0

3) 會長의 任期와 選出

韓國女性團體의 指導層은 대개 과거부터 10여년씩 固定되어 왔고, 解放以前에 創設된 團體도 會長 交替가 있기는 했으나 現指導層의 主要 擔當者들은 대부분 解放以前부터 活動해온 사람들이 많다. 그 후 創設된 團體의 경우에도 創設者가 오랫동안 會長職에 연임하여 組織의 安定을 꾀해 왔다고 보겠다.

本 研究에서는 女性團體의 指導者의 交替와 關聯된 事項으로 會長의 任期와 選出方法을 알아봄으로써 團體運營이 어느 정도 合理的으로 運營되어 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① 會長의 任期

대부분의 各 團體에서는 會長의 任期를 定하고 있고 任期制限을 두지 않는 團體도 12.3%나 된다(표 Ⅲ-47). 年限은 2년이 가장 많고(42.1%) 그 다음이 3年, 그 다음이 4년이상의 순서이며 6年으로 定해 놓은 단체도 있었다.

〈표 Ⅲ-47〉 創設年代別 會長의 任期

창설일자 회장의 임기	1948년 이전			1949-1960			1961-1970			1970년 이후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2년	6		50.0	5		45.4	9		39.1	4		36.3	24		42.1
3년	3		25.0	1		9.1	8		34.8	2		18.3	14		24.5
4년이상	3		25.0	3		27.3	4		17.4	2		18.2	12		21.1
없 다	—		—	2		18.2	2		8.7	3		27.3	7		12.3
Total	12		100.0	11		100.0	23		100.0	11		100	57		100

〈표 Ⅲ-48〉 단체의 기능 및 목적별 회장의 임기

단체의 기능 및 목적 회장의 임기	직업기능 별 단체		종교단체		국민식생 활개선단		민간외교 단		여성 의 지위 향상		의원 의 친목단		의원 의 친목단 (자 제한)		연구단체		기 타		Total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실	%
2년	5	62.5	4	40.0	—	—	2	66.7	—	—	8	44.4	4	66.6	—	—	1	100.0	24	42.1
3년	3	37.5	3	30.0	1	25.0	—	—	3	60.0	3	16.7	1	16.7	—	—	—	—	14	24.5
4년	—	—	3	30.0	1	25.0	1	33.3	—	—	4	22.2	1	16.7	2	100.0	—	—	12	21.1
없다	—	—	—	—	2	50.0	—	—	2	40.0	3	16.7	—	—	—	—	—	—	7	12.3
Total	8	100.0	10	100.0	4	100.0	3	100.0	5	100.0	18	100.0	6	100.0	2	100.0	1	100.0	57	100.0

또한 〈표 Ⅲ-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創設된 지 오래된 場合에 會長의 任期年限이 짧으며, 創設年代가 얼마되지 않은 단체에는 會長의 任期年限을 길게 정하거나 혹 制限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보아 設立된 지 얼마 안되는 團體에서는 創設者를 中心으로 組織의 成長과 安定에 주력하는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團體의 目的에 따라 會長의 任期가 어떠한가를 〈표 Ⅲ-48〉에서 보면 직업기능단체, 民間外交團體, 특정인들의 친목단체인 場合에 任期를 短期間으로 定하는 경향이 있다.

團體의 規模에 따라 會長의 任期年限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 참조)

② 會長 選出方法

대부분 團體들이 2年~4年の 會長任期를 定해 놓고 있는데 任期가 다 되었을 때 어떠한 節次에 의해 交替하는가는 團體運營을 理解하는 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표 Ⅱ-49〉에서 보면 57個 團體 가운데 會長의 任期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7個 團體를 제외하면, 85%가량이 投票節次에 의해서 會長을 選出하고 있고 나머지 경우에도 理事會에서 指名하고 있어 女性團體에서의 指導者 交替는 民主的인 節次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표 Ⅱ-49〉

創設年代別 會長選出方法

창설年代 회장선출방법	1948년 이전		1949-1960		1961-1970		1970년 이후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
투표에 의해서	10	83.4	9	81.8	17	73.9	6	54.5	42	73.7	
부회장에서 자동으로					1	4.3			1	1.7	
이사회에서 지명			2	18.2	2	8.7	2	18.2	6	10.5	
기 타	2	16.6			3	13.1	3	27.3	8	14.1	
Total	12	100.0	11	100.0	23	100.0	11	100.0	57	100	

IV. 團體活動의 問題點

이제까지의 女性團體活動은 少數의 女性들이 個人的인 力量이 卓越한 指導者를 中心으로 活動을 하기 때문에 그 活動範圍가 극히 制限되어 있고 內容에 있어서도 全體 女性을 意識한 事業內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世間的 評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女性들간에도 女性團體活動에의 參與가 극히 制限된 階層에서만 가능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각 단체의 會員으로서 參與하고 있는 女性들을 대상으로 女性團體에의 參與狀況과 滿足度등을 把握하는 한편 특히 女性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을 對象으로 그들이 團體活動에 參與하지 않은 理由와 女性團體에 대한 認識程度를 把握하여 봄으로써 當代의 一部參與者 中心의 活動을 止揚하고 凡女性的인 活動으로 擴大·發展시켜야 하는 時代的인 要請에 부응하는 活動方向 摸索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 會員과 非會員의 一般의 性格

女性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사람과 參與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그들의 一般的인 特性을 ①年齡, 教育程度, 宗教 ②結婚關係와 子女關係 ③職業 ④男便에 관한 事項 및 ⑤家族形態面에서 比較 分析해 보려 한다.

대상 會員에 관해서는 기능 단체에서 45名, 봉사·친목 단체에서 95名, 종교 단체에서 68名으로 부터 收수한 資料를 利用하였고 非會員은 앞서 調査對象者 選定에서도 밝힌 바 있는 시내 성북동, 용암동과 진농동에서 각각 100명씩 收수한 資料에 依하였다.

1) 年齡, 教育程度, 宗教

① 年齡構成:

會員과 非會員의 年齡을 보면 <표 N-1>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會員은 29세 以下 年齡層이 非會員보다 많으며 40~49세 層의 비율이 낮다.

<표 N-1> 會員과 非會員의 연령구성

구분 연령	會 員		非 會 員	
	실 수	%	실 수	%
29세 이하	69	33.2	68	22.6
30~39세	52	25.0	83	27.7
40~49세	50	24.0	97	32.4
50세 이상	37	17.8	52	17.3
Total	208	100.0	300	100.0

또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성격이 기능단체인 경우에 젊은 층의 會員으로 구성되어 있고(29세 이하가 82.2%) 친목, 봉사, 종교 단체인 경우에는 年齡이 많은 會員의 比率이 높아짐을 <표 N-2>에서 알 수 있다.

<표 N-2> 會員의 소속 단체별 연령구성

연령	소속단체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
29세 이하	37		82.2	14		14.7	18		26.5	33.2
30~39세	3		6.7	31		32.6	18		26.5	25.0
40~49세	2		4.4	34		35.8	14		20.5	24.0
50세 이상	3		6.7	16		16.9	18		26.5	17.8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100.0

이러한 事實을 보아 女性團體의 活動은 젊은 층의 參與를 위주로 展開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되며 參與하지 않는 女性들의 年齡層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內容으로 事業을 展開함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② 教育程度 :

教育程度에서 會員과 非會員의 差異를 본 것이 <표 N-3>이다. 會員의 경우 약 60% 가량이 大卒以上이고 高卒도 30.8%로 고등 교육을 받은 女性이 9割 가량인 데 비해 非參與女性의 경우는 大卒以上이 初級大를 포함해서 30% 정도이며 고졸이 27.7%로 高等教育을 받은 比率이 60% 정도로서 教育程度가 높은 사람들의 團體活動參與가 현저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N-3> 會員과 비會員의 教育程度

구분 教育程度	會 員		非 會 員	
	실 수	%	실 수	%
중졸이하	24	11.5	125	41.7
고 졸	64	30.8	83	27.7
초 대 졸			16	5.3
대졸이상	120	57.7	76	25.3
Total	208	100.0	300	100.0

※ 會員의 경우 大卒에는 初大卒도 포함됨.

會員들의 소속 단체가 기능단체인 경우에 教育水準이 가장 높고(大卒 이상의 73.3%) 봉사·친목 단체인 경우에 다소 낮음을 <표 N-4>에서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참여 女性들의 教育程度를 地域別로 分類해 보았더니 <표 N-5>에 나타난 바와 같이 地域別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上層居住地域으로 選定된 성북동의 경우에는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이 90% 가량으로 會員의 教育程度分布와 유사하며 與農洞의 경우에는 성북동과

〈표 N-4〉 소속 단체별 회원의 교육정도

소속단체 학력	기 능 단 체		봉 사 · 친 목 단 체		종 교 단 체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중졸이하			16	16.8	8	11.8	24	11.5
고 졸	12	26.7	30	31.6	22	32.3	64	30.8
대졸경도	33	73.3	49	51.6	38	55.9	120	57.7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는 反對의 비율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女性團體活動에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경우 이와 같은 지역에 따른 女性들의 특성을 고려함이 効果的이라고 본다.

〈표 N-5〉 소재구에 따른 교육 정도

소재구 교육정도	상 북 동	응 안 동	전 능 동	Total	
	실 수	실 수	실 수	실 수	%
중졸이하	11	32	82	125	41.7
고졸경도	34	31	18	83	27.7
대졸이상	55	37	0	92	30.6
Total	100	100	100	100	100.0

③ 宗教:

女性團體活動이 宗教人 혹은 宗教團體의 영향을 입어 발전되어 온 경우가 많다. 〈표 N-6〉 宗教 관계를 알아 본 것으로 會員의 경우 과반수에 해당하는 55.3%가 기독교 혹은 天主教임에 비해 非會員인 女性들은 38%이며, 宗教가 없는 비율도 會員보다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女性團體活動에의 기독교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 結婚關係, 子女關係

一般的으로 社會活動에 參與하는 데는 結婚한 女性보다 비교적 家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표 N-6〉 宗 教

구 분 종 교	會 員		非 會 員	
	실 수	%	실 수	%
불 교	58	27.9	79	26.3
기독교 · 천주교	115	55.3	114	38.0
기 타			8	2.7
없 음	25	12.0	98	32.7
무 응 답	10	4.8	1	0.3
Total	208	100.0	300	100.0

未婚女性이, 그리고 子女數 많은 女性보다 적은 數의 子女를 가진 경우에, 子女가 成長한 경우에 더 容易하다고 보아진다.

〈표 N-7〉을 보면 非會員보다 會員의 경우에 未婚의 比率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一般的인 觀念과 같이 未婚女性이 參與하기 쉬워서인지, 아니면 女性團體들의 事業內容이 주로 未婚女性을 위주로 편성된 것 인지의 규명이 필요하겠으나 團體의 活動 內容이 生活에 바른 主婦들에게도 적합한 내용으로의 편성이 필요함을 示唆해 준다 하겠다.

〈표 N-7〉 結 婚 關 係

구 분 결혼관계	會 員		非 會 員	
	실 수	%	실 수	%
기 혼	147	70.2	256	85.4
미 혼	61	29.8	31	10.3
기 타			13	4.3
Total	208	100.0	300	100.0

〈표 N-8〉 子 女 數

구 분 子女數	會 員		非 會 員	
	실 수	%	실 수	%
없 다	8	5.4	12	4.5
1~2명	57	38.8	89	33.1
3~4명	58	39.4	133	49.4
5명이상	22	15.0	35	13.0
무 응 답	2	1.4		
Total	147	100.0	269	100.0

※ 未婚계외

〈표 N-9〉 첫째 자녀의 나이

구 분 첫째 자녀의 연령	회 원		비 회 원	
	실 수	%	실 수	%
6세미만	28	20.5	44	17.2
7세~12세	18	13.1	50	19.5
13세~18세	28	20.5	39	15.2
19세이상	55	40.1	123	48.1
무 응 답	8	5.8	—	—
Total	137	100.0	256	100.0

※ 미혼, 無子女, 무응답 제외

子女數에 있어서는 會員과 非會員의 差異가 顯著하지 않다(표 N-8). 전반적으로 子女數는 1~2명, 3~4명이 많아 平均 子女數는 會員이 약 2.7명, 비회원의 경우는 약 2.8명이다.

한편 家族의 生活周期 段階로 보아 兒童教育期에 있는 家庭에서는 主婦들이 外部活動에 참여하기가 쉽다.

〈표 N-9〉에서와 같이 會員의 경우 첫째 子女의 年齡이 6세 미만인 경우가 약 20% 가량이며 國民학교 在學年齡인 12세까지를 포함시킨다면 3분의 1 정도이다. 비회원여성들의 경우에는 첫째 子女가 12세 미만인 비율이 다소 높다.

한편 막내 子女의 年齡이 12세 미만인 경우가 회원의 52%에 비해 비회원은 57% 가량으로 다소 높은 정도이나 〈표 N-10〉 子女의 年齡과 活動에의 參與여부와는 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N-10〉 막내 자녀의 나이

구분 막내 자녀의 연령	회 원		비 회 원	
	실 수	%	실 수	%
6 세미만	40	29.2	91	35.5
7세~12세	31	22.6	56	21.9
13세~18세	31	22.6	61	23.8
19세이상	27	19.7	48	18.8
무응답	8	5.9	—	—
Total	137	100.0	256	100.0

※ 미혼, 無子女, 무응답 제외

3) 職業關係

여성들의 職業關係를 〈표 N-11〉에서 살펴 보면 會員들의 경우에 職業을 가진 사람이 많고

〈표 N-11〉 職 業

구분 소속단체 직업	회 원									비 회 원			
	기능직 단체			농사·친목단체			종교 단체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가정주부	4	8.9		61	64.2		45	66.2		110	52.9	253	84.3
학 생	2	4.4					2	2.9		4	1.9	6	2.0
사무직	7	15.6		6	6.3		5	7.4		18	8.6	10	3.3
상업·서비스	6	13.3		14	14.8		2	2.9		22	10.6	11	3.7
전문직	20	44.5		10	10.5		8	11.8		38	18.3	2	0.7
무직(미혼)	5	11.1		4	4.2		6	8.8		15	7.2	15	5.0
무응답	1	2.2								1	0.5	3	1.0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68	100.0	300	100.0

專門職에 종사하는 比率이 높다. 會員 가운데서도 기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會員들의 취업率이 매우 높아 약 75% 가량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商店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44.5%로 나타났다. 職業을 가진 女性들의 社會活動에의 參與程度가 家庭에만 있는 女性들 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團體의 活動方向은 家庭에 묻혀 있는 主婦들의 意識을 깨우치고 그들의 社會參與를 고취시키는 方向으로의 轉換이 필요하다고 본다.

4) 男便의 教育程度와 職業

韓國社會에서는 女子가 職場에 나가거나 특히 社會活動에 參與하려면 아직까지도 男便이나 시부모의 理解와 協助가 필요한 실정이다.

本 研究에서는 男便의 協助可能性을 男便들의 教育程度와 職業을 통하여 살펴보려 하였다.

〈표 N-12〉에서 보면 會員들의 男便의 教育程度가 非會員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女性 자신들의 教育程度에서 會員의 教育程度가 높았던 사실로 미루어 당연한 결

〈표 N-12〉 男便의 教育程度

구분 남편 교육정도	회 원		비 회 원	
	실 수	%	실 수	%
중졸이하	5	3.4	27	10.6
고 졸	12	8.2	94	36.7
대졸이상	117	79.6	135	52.7
무 응 답	13	8.8		
Total	147	100.0	256	100.0

※ 未婚과 其他 제외

〈표 N-13〉 남편의 직업

구분 남편의 직업	회 원		비 회 원	
	실 수	%	실 수	%
전 문 직	38	25.9	42	16.4
관 리 직	30	20.4	86	33.6
사 무 직	18	12.2	45	17.6
판 매 직	23	15.6	34	13.3
서 비 스 직	2	1.4	13	5.1
기능공·단순생산공	2	1.4	11	4.3
기타(교통·농수산업)	1	0.7	8	3.1
무 직	11	7.5	15	5.9
무 응 답	22	15.0	2	0.8
Total	147	100	256	100

※ 未婚, 기타 제외

과이지만 男便의 教育程度가 높은 경우에 女性들의 團體活動에의 參與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會員과 非會員들을 男便의 職業에 따라 구분하여 본 것이 <표 N-13>이다.

男便의 직업이 專門職인 경우는 會員전체의 比率이 다소 높고, 관리직은 非會員의 男便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뿐 男便의 職業에 따른 女性들의 團體活動에의 參與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5) 家族形態

應答對象자들의 家族形態를 보면 <표 N-14>에서 처럼 會員의 경우 부부 가족이 약 30%, 부부와 子女 가족이 35.1%, 부부+子女와 가정부 있는 가족이 18.3%로 核家族型이 약 83% 가량

<표 N-14> 연령에 따른 가족 형태

구분 연령 가족형태	회 원										비 회 원									
	29세 이하		30세-39세		40세-49세		50 이상		Total		29세 이하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부	32	46.4	10	19.3	10	20.0	10	27.0	62	29.8	22	32.4	1	1.2	2	2.1	1	1.9	26	8.7
부부 + 子女	24	34.8	15	28.8	21	42.0	13	35.2	73	35.1	27	39.7	48	57.8	47	48.4	31	59.6	153	51.0
부부 + 子女 가정부	3	4.3	15	28.8	13	26.0	7	18.9	38	18.3	6	8.8	14	16.9	26	26.8	17	32.7	63	21.0
부부+子女+ 시부모	1	1.4	4	7.7	2	4.0	1	2.7	8	3.8	8	11.7	9	10.8	10	10.3	1	1.9	28	9.3
부부+子女+ 시부모+가정부	—	—	7	13.5	3	6.0	4	10.8	14	6.7	5	7.4	11	13.3	12	12.4	2	3.9	30	10.0
무응답	9	13.1	1	1.9	1	2.0	2	5.4	13	6.3	—	—	—	—	—	—	—	—	—	—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68	100.0	83	100.0	97	100.0	52	100.0	300	100.0

인데 비해 非會員의 경우는 부부와 子女 가족이 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부와 子女 및 가정부가 있는 경우이며 核家族型이 80% 가량으로 會員보다 核家族型이 적은 반면 擴大家族型의 比率이 다소 높으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核家族이건 擴大家族이건 會員의 경우보다 非會員의 가족에서 家政婦를 둔 比率이 높다.

非會員의 教育程度와 家族形態를 관련시켜 보았더니 <표 N-15> 부부와 子女로 구성된 核家族는 教育程度가 낮아질수록 比率이 높고 夫婦+子女에 가정부 있는 가족 형태는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많아진다. 또한 시부모를 모신 擴大家族型에서도 教育程度가 높은 층에 家政婦있는 家族型이 많음을 알 수 있다.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職業에 있어 收入높은 職業을 갖기 쉬우며 生活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家政婦도 두게 되겠지만 高等教育을 받은 女性들의 意識에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가정에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家政婦 문제는 解決이 쉽지 않리라 보아진다.

<표 N-16>는 이들 會員들이 團體活動에 參與하기 때문에 家事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전체의 51%가 가사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지장이 있다는 會員은 30% 정도

〈표 N-15〉

학력별 가족형태 (비회원)

학 력 자녀수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부 부	12	9.6	10	12.0	4	4.3	26	8.7
부부 + 자녀	87	69.6	41	49.4	25	27.2	153	51.0
부부+자녀+가정부	17	13.6	8	9.6	38	41.3	63	21.0
부부+자녀+시부모	9	7.2	11	13.3	8	8.7	28	9.3
부부+자녀+시부모+가정부			13	15.7	17	18.5	30	10.0
Total	125	100	83	100	92	100	300	100

〈표 N-16〉 교육 정도에 따른 가사일 지장 유무

교육정도 가사일의 지장유무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있 다	11	45.8	15	23.4	37	30.8	63	30.3
없 다	11	45.8	33	51.6	62	51.7	106	51.0
기 타			3	4.7	1	0.8	4	1.9
무 응 답	2	8.4	13	20.3	20	16.7	35	16.8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이다.

교육 정도에 따라 家事에 지장유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가사에 지장이 없다는 비율이 높고 교육 정도가 中卒이하에서는 가사에 지장이 있다는 비율이 높다.

團體活動에의 참여가 家事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은 20代에서 가장 높고 50代에서도 높으나 30~40代에서는 가사에 지장이 있다는 應答者가 平均에 비해 높았다. (부록표 참조)

子女數의 過多나 막내 子女의 나이가 어리니에 따라 團體活動하는 여성은 가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

〈표 II-17〉 소속 단체에 따른 가사일 지장 유무

소속단체 가사일의 지장유무	기능단체		봉사·친목 단 체		종교단체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있 다	5	11.1	29	30.5	29	42.7	63	30.3
없 다	29	64.4	51	53.7	26	38.2	106	51.0
기 타	3	6.7	1	1.1			4	1.9
무 응 답	8	17.8	14	14.7	13	19.1	35	16.8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소속되어 있는 團體가 宗教團體인 경우 지장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기능단체에 속한 會員들은 지장이 없다는 比率이 높다. <표 N-17>

加入年限이 오래된 會員일수록 가사에 지장이 있다는 比率이 높아지고 있어 <표 N-18>, 團體加入한지 오래되어 團體活動에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자연히 家事에 配分되는 時間이 짧으며, 團體活動에의 加入年限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年齡이 많은 女性들로서 젊은 層보다는 家事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N-18) 가입 연한에 따른 가사일 지장 유무

가사일의 지장유무	1년 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있 다	14	21.6	9	17.0	12	37.5	11	42.3	17	53.1	63	30.3
없 다	35	53.8	30	56.6	19	59.4	11	42.3	11	34.4	106	51.0
기 타	2	3.1	2	3.8			—				4	1.9
무응답	14	21.5	12	22.6	1	3.1	4	15.4	4	12.5	35	16.8
Total	65	100.0	53	100.0	32	100.0	26	100.0	32	100.0	208	100.0

2. 會員의 參與形態

하나의 集團이 잘 運營되어 나가려면 持導者의 持導力도 불가결의 要素이지만 무엇보다도 構成員들의 自發의 意思에 의한 積極의 參與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女性團體活動은 團體를 통해서 經濟的 利益을 얻는 것도 아니며, 活動展開에 있어서도 주위(환경)로 부터 여러 가지 制約을 받는 狀況이기 때문에 團體活動에 參與하는 女性들의 參與意識이 무엇보다도 切實히 요청되는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團體活動을 하고 있는 會員들의 參與意識과 參與形態를 ① 加入動機와 加入經

(표 N-19) 소속단체별 가입동기

가입이유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회활동	15	33.4	46	48.4	31	45.6	92	44.2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2	4.5	7	7.4	5	7.4	14	6.7
사교와 친목	1	2.2	4	4.2	2	2.9	7	3.3
단체의 하는일이 마음에 들어	10	22.2	31	32.6	24	35.3	65	31.3
집에 있으니까 퇴보하는것 같아	1	2.2	5	5.3			6	2.9
편유에 못이겨	5	11.1	2	2.1			7	3.4
기 타	1	2.2					1	0.5
무응답	10	22.2			6	8.8	16	7.7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路, ② 團體에 대한 소속감과 參與意識, ③ 團體에 대한 滿足度, ④ 團體內에서의 交流關係 등을 중심으로 把握해 보고자 한다.

1) 團體加入動機 및 加入経緯

調査對象會員들이 각 所屬團體에 加入하게 된 動機가 어떠했나는 그들의 團體參與 意識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이다.

〈표 N-19〉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이유가 “團體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로 44.2%이고 그 다음이 “단체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加入했다는 경우가 31.3%이다. 이러한 事象은 약 10年前의 團體加入理由¹⁾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좋다고 생각되어서”가 61%

〈표 N-20〉

연령별 소속 단체 가입이유

연 령 가입이유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29	42.1	27	51.9	22	44.0	14	37.8	92	44.2
특정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6	8.7	5	9.6	2	4.0	1	2.7	14	6.7
사고와 친목	1	1.4	2	3.9	1	2.0	3	8.1	7	3.3
단체의 일이 맘에 들어서	12	17.4	15	28.8	21	42.0	17	46.0	65	31.3
집에 있으니까 뭘할이지			2	3.9	4	8.0			6	2.9
편유에 못이겨서	6	8.7					1	2.7	7	3.4
기 타	1	1.4							1	0.5
무응답	14	20.3	1	1.9			1	2.7	16	7.7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있던점과 비교해 볼 때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바라는 動機에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겠다.

소속단체가 봉사·친목을 위주로 하는 團體會員인 경우에 단체를 통해 자신의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宗教團體, 기능단체의 순서이며 단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도 종교단체와 봉사·친목단체에서 높고 편유에 못이겨서 참가했다는 비율은 기능단체에서 볼 수 있었다.

年齡이 30代層에서 團體를 통해 사회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51.9%), 40代, 20代, 50代의 順이다. 또한 年齡層이 높아질수록 加入動機에 있어 “團體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비율이 높아짐을 〈표 N-20〉에서 알 수 있다.

또한 敎育程度가 낮은 層에서는 團體活動을 통해서 자신이 社會活動을 하기보다 그저 단체의 목적이 마음에 들어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고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그 反對 傾向임을 〈표 N-21〉을 통해 알 수 있다.

1) 鄭忠良·李効再, “女性團體活動에 關한 研究”, 梨大 論叢, 第14輯, 1969, p. 192.

〈표 N-21〉

교육程度別 소속단체 가입이유

학 령	중졸이하		고졸정도		초·대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4	16.7	32	50.0	56	46.7	92	44.2
특정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3	4.7	11	9.2	14	6.7
사교와 친목	3	12.5	2	3.1	2	1.7	7	3.3
단체의 하는 일이 맘에 들어	16	66.6	19	29.6	30	25.0	65	31.3
집에 있으니까 뒤떨어져서	1	4.2	4	6.3	1	0.8	6	2.9
편유에 못이겨					7	5.8	7	3.4
기 타					1	0.8	1	0.5
무응답			4	6.3	12	10.0	16	7.7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가정주부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여성들은 女性團體를 통해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부록표 참조), 家族形態에 있어 夫婦 혹은 夫婦+子女 家族보다 시부모나 가정부가 있는 경우에 사회활동을 희망해서 단체가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록표 참조〉 女性들의 社會活動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家族構成面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동기에서 團體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참가하게 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은 앞으로 女性團體活動의 底邊擴大를 위한 제책의 위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표 N-22〉에 보면 아는 이의 권유로가 4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동적으로 加入하게 되었다가 21.2%, 本人의 의사에 의해서가 19.7%로 나타나 女性團體活動의 擴張方法은 신문이나 선전책자 보다는 會員을 통한 親知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권유가 더 效果的이라고 보겠다. 봉사단체의 경우에 친지를 통해 참여경향이 높고 本人의 자의로는 宗教단체의 경우에, 역시 기능단체에서는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비율이 높다.

〈표 N-22〉

소속단체별 단체 가입경로

소속단체	가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는이의 권유로	15	33.3	57	60.0	26	38.2	98	47.1
메스를 통해서	1	2.2	9	9.5			10	4.8
완전한 나의 자의로	3	6.7	22	21.1	16	23.5	41	19.7
특정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2	4.4	3	3.1	3	4.4	8	3.8
선전책자를 보고	1	2.2	1	1.0			2	1.0
자동가입	20	44.5	2	2.1	22	32.4	44	21.2
무응답	3	6.7	1	1.1	1	1.5	5	2.4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年齡이 높은 層일수록 아는 이를 통해서 加入하게 되는 비율이 높고 자동가입은 20代層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N-23>

<표 N-23>

연령에 따른 가입 경로

연령 단체가입경로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는 이의 권유로	23	33.4	27	51.9	27	54.0	21	56.8	98	47.1
메스를 통해서	1	1.4	4	7.7	4	8.0	1	2.7	10	4.8
완전한 나의 자의로	13	18.9	13	25.0	9	18.0	6	16.2	41	19.7
특정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4	5.8	1	1.9	2	4.0	1	2.7	8	3.8
선지책자를 보고	1	1.4					1	2.7	2	1.0
자동가입	23	33.4	7	13.5	8	16.0	5	13.5	43	20.7
기 타	1	1.4							1	0.5
무 응답	3	4.3					2	5.4	5	2.4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教育程度가 높은 層보다 낮은 편이 친지의 권유로 加入하는 경향이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本人의 자의로 加入하는 경향임을 <표 N-24>를 통해 알 수 있어 女性團體活動을 알리거나 새로운 會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통한 직접적인 권유방법으로 年齡層이 높은 사람들과 教育程度가 낮은 層을 흡수하고 한편으로 메스 수단을 통해 젊고 教育程度도 비교적 높은 層을 확보하는 內面的인 方法이 效果的인 것 이다.

이들 會員이 團體에 加入한 年限은 1年미만이 30.2%, 1~3년이 25.5%, 3~5년이 15.4%, 5年 이상의 18%가량이며, 이 중에는 10年이상인 會員도 15.4%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會員

<표 N-24>

教育程度別 단체 가입경로

교육정도 단체가입경로	중졸이하		고졸정도		초대졸+대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는 이의 권유로	12	50.0	34	53.1	52	43.4	98	47.1
메스를 통해서	4	16.6	2	3.1	4	3.3	10	4.8
완전한 나의 자의로	2	8.3	13	20.3	26	21.7	41	19.7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1	1.6	7	5.8	8	3.8
선지책자를 보고	1	4.2	1	1.6			2	1.0
자동가입	4	16.7	9	14.0	30	25.0	43	20.7
기 타			1	1.6			1	0.5
무 응답	1	4.2	3	4.7	1	0.8	5	2.4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들의 團體加入은 과거에 비해서²⁾ 비교적 安定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표 N-25). 加入年限이 一年미만인 경우는 봉사·친목단체에서 많고 加入年限이 10年以上인 會員은 宗教단체에서 많다.

또한 加入動機가 他人의 권유보다 自發的인 경우에 단체에 加入한 횟수도 오래 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 참조>

(표 N-25)

소속단체별 加入年限

가입연한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년미만	11	24.4	34	35.8	18	26.5	63	30.2
1년~3년미만	21	46.7	17	17.9	15	22.0	53	25.5
3년~5년미만	7	15.6	19	20.0	6	8.8	32	15.4
5년~10년미만	4	8.9	15	15.8	7	10.3	26	12.5
10년이상	1	2.2	9	9.5	22	32.4	32	15.4
무응답	1	2.2	1	1.0			2	1.0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2) 團體에 대한 參與意識

女性團體活動에 參加하고 있는 會員들의 參與意識을 把握하기 위해 ① 團體에 대한 所屬感, ② 그들이 생각하는 會員으로서의 義務, ③ 所屬團體의 活動目的에 대한 認知, ④ 所屬團體의 프로그램에 參照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分析해 보았다.

① 團體에 대한 所屬感

자신이 集團에 所屬되어 있다는 所屬感은 集團成員들로 하여금 강한 連帶意識을 갖게하여 we-feeling을 토대로 결속을 공고히 하며 集團의 活動에 적극적이고 友好的으로 참여하게 된다.

本 研究 對象會員들의 90%가 강하게던 약하게던 所屬團體에 대해서 所屬感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所屬感은 처음 加入하고서 생기는 경우도 많으나 (39.4%) 團體의 行事に 참여하고서 미묘소 생겼거나 (24.5%), 심지어는 團體의 實務障과 친하고 부터 비롯되었다는 경우도(8.2%) 있어 <표 N-26> 所屬感을 團體加入과 동시에 갖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女性團體를 運營해 나가는 立場에서는 新入會員들은 물론 既存會員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과 긴밀한 紐帶를 통해 會員의 參與를 期待해야 될 줄 안다.

宗教團體에서는 加入하고 所屬感을 느꼈다는 比率이 높으나 기능단체에서는 加入후에도 단체 행사나 定期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나서 의식하게 되었다는 反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年齡이 많을수록 加入하면서 소속감을 갖는 比率이 높고 젊은층 특히 20代에서 단체 실무진과 친하고 부터 갖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으며(부록표 참조) 敎育程度가 높은 層에서 소속감을 갖

2) 上掲書 p.191

〈표 N-26〉

소속단체별 소속감 갖게된 시기

소속감 가입하고나서	기능단체		봉사, 청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가입하고나서	11	24.4	35	36.8	36	52.9	82	39.4
단체행사에 참여	13	28.9	24	1.2	14	20.7	51	24.5
정기프로에 참여	7	15.6	19	20.0	12	17.6	38	18.3
단체 실무진과 친하고	4	8.9	10	10.5	3	4.4	17	8.2
못느꼈다			2	2.2			2	1.0
무응답	10	22.2	5	5.3	3	4.4	18	9.1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는데 時日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부록표 참조)

② 會員의 義務

會員의 義務가 무엇이라고 認識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들의 參與形態는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표 N-27〉에서 처럼 團體의 目的을 實行하는 것이 會員의 義務라고 한 사람이 64%가량으로 바람직한 義務觀을 가지고 있다. 또한 加入年限이 짧을수록 단지 團體行事に 參與하는 것이 義

〈표 N-27〉

加入횟수별 회원의 의무

가입연한 회원의 의무	1년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비를 내는것	4	6.2	2	3.8					1	3.1	7	3.4
단체의 행사에 참여	21	32.3	14	26.4	9	28.1	5	19.2	6	18.8	55	26.4
단체목적을 실현	34	52.3	35	67.9	20	62.5	21	80.8	22	68.7	133	63.9
소속단체를 다른 이에게 알림	6	9.2			3	9.4			3	9.4	12	5.8
무응답			1	1.9							1	0.5
Total	65	100.0	53	100.0	32	100.0	26	100.0	32	100.0	208	100.0

〈표 N-28〉

연령에 따른 회원의 의무

연 령 회원의 의무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비를 내는것	3	2.9	—		1	2.0	3	8.1	7	3.4
단체의 일·행사에 참여	1	17.4	11	21.2	20	40.0	12	32.5	55	26.4
단체의 목적을 실현	53	78.3	38	70.0	26	52.0	16	43.2	133	63.9
소속단체를 다른 이에게 알림	1	1.4	3	5.8	3	6.0	5	13.5	12	5.8
무응답							1	2.7	1	0.5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務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加入年限이 오래될수록 團體의 目的實行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會員의 義務가 團體행사장이라고 보는 경향은 年齡이 높아질수록 많으며, 단체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年齡이 낮아질수록 많아져 젊은 層의 現實參與에의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표 N-28>

기능단체 소속원들은 단체목적 實行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많고 團體行事に의 참여가 會員의 義務라는 反應은 宗教團體 會員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표 V-29>

<표 N-29>

소속단체별 회원의 의무

소속단체 회원의 의무	기능단체		봉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비를 내는것	1	2.2	6	5.3			7	3.4
단체의 일 행사에 참여	8	17.8	26	27.4	21	30.9	55	26.4
단체의 목적을 실행	34	75.6	54	57.9	45	96.2	133	63.9
소속단체 P.R.	2	4.4	8	8.4	2	2.9	12	5.8
무 응 답			1	1.0			1	0.5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표 N-30>

소속단체별 단체목적

소속단체 단체목적	기능단체		봉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친 목 · 사 교	7	15.6	10	10.5	7	10.3	24	11.5
직 업 기 능 번	14	31.1	7	7.4	—		21	10.1
봉 사 활 동	8	17.8	39	41.0	39	57.4	86	41.3
연 구 활 동	9	20.0	17	17.9	3	4.4	29	13.9
종 교 활 동			6	6.3	15	22.0	21	10.0
이 념 활 동	5	11.1	3	3.2	1	1.5	9	4.3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2	4.4	4	4.2	1	1.5	7	3.4
성 인 교 육			8	8.4	2	2.9	10	4.8
무 응 답			1	1.0			1	0.5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③ 소속단체의 目的에 대한 認知

소속단체의 目的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참여度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표 N-31>에서 보면 宗教團體에 소속된 경우에 단체의 목적을 주로 봉사활동과 宗教活動으로 理解하고 있으며 봉사·친목단체인 경우 봉사와 연구활동으로, 기능단체에서는 기능활동과 연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年齡이 많을수록 단체의 목적을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연

령이 낮을수록 단체목적에 대한 견해가 多樣하게 나타났다. (표 N-31)

(표 N-31)

연령별 소속 단체 목적

연령 소속단체목표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친교사교	10	14.5	8	15.4	3	6.0	3	8.1	24	11.5
직업기능별	15	21.7	2	3.9	3	6.0	1	2.7	21	10.1
봉사활동	13	18.9	19	36.6	28	56.0	26	70.3	86	41.3
연구활동	13	18.9	8	15.4	7	14.0	1	2.7	29	13.9
종교활동	8	11.6	4	7.7	4	8.0	5	13.5	21	10.0
이념활동	5	7.2	2	3.9	1	2.0	1	2.7	9	4.3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3	4.3	4	7.7					7	3.4
성인교육	2	2.9	5	9.6	3	6.0			10	4.8
무응답					1	2.0			1	0.5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會員들이 團體活動의 目的이 무엇인지 理解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團體들이 目的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그들로 하여금 團體를 신뢰하고 團體에서 展開하는 活動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데 직접적으로 作用할 것이다.

(표 N-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割 이상이 소속단체가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고 肯定하고 있고 宗教團體에서는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기능단체에서는 단체의 目的수행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는 비율이 아주 높아 會員들이 생각하는 目的과 團體의 目的수행과에 차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N-32)

소속단체별 단체가 목적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목적달성	소속단체		기능단체		봉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예	26	57.8	78	82.1	62	91.1	166			
아니오	12	26.7	7	7.4	1	1.5	20			
기타	6	13.3	4	6.3	1	1.5	13			
모르겠다	1	2.2	1	1.0	—		2			
무응답			3	3.2	4	5.9	7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年齡이 많을수록 단체의 목적수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20代 年齡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높았다. (부록표 참조)

團體에서의 目的수행에 대한 태도는 會員의 教育程度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教育程度가 높을

수목 團體의 목적수행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표 N-33>에서 알 수 있다.

<표 N-33> 교육정도별 단체가 목적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정도 소속단체 목적달성	중졸이하		고졸정도		초대졸+대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예	24	100.0	52	81.2	90	75.0	166	79.8
아니오			5	7.8	15	12.5	20	9.6
기타			1	1.6	12	10.0	13	6.3
모르겠다			1	1.6	1	0.8	2	1.0
무응답			5	7.8	2	1.7	7	3.3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會員들의 부정적인 反應이 높았고 加入해서 처음 1年 동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2~3년 정도에서 극히 부정적이었다가 차츰 加入年限이 오래될수록 團體의 목적수행이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며 단체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加入한 會員은 92.3%의 긍정율을 보이는 반면 권유에 못이겨 加入한 경우에는 3割도 안되는 肯定的인 反應에 대해 잘 안되고 있다는 反應은 약 6割로 나타나 加入동기에 따라 團體目的 認知에 현저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부록표 참조)

④ 會員들의 프로그램 參與度

女性들의 團體活動에의 參與意識을 프로그램에 參席하는 정도를 통해서 알아보려 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頻度가 많다고 곧 그들의 參與意識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느정도 意識이 갖추어져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표 N-34> 소속단체별 프로그램 참여도

소속단체 프로그램참여도	기능단체		봉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거의 참석	11	24.4	60	63.1	42	61.8	113	54.3
마음에드는 프로그램만	13	28.9	18	18.9	20	29.4	51	24.5
시간이 맞지 않아 못 참석	10	22.2	13	13.7	6	8.8	29	14.0
참석 않는다	34	8.9	1	1.1			5	2.4
연락받지 못해서 불참석	7	15.6	1	1.1			8	3.8
무응답			2	2.1			2	1.0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표 N-34>에 보면 54.3%의 會員들이 團體의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석하고 있으며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에만 참석한다가 24.5%이며 참석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20%가량으로 나타나 본 研究의 對象을 選定할때,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會員을 對象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參與度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소속단체가 봉사·친목, 宗教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거의 참석하는 比率이 높으나 기능 단체에 속한 會員들은 프로그램을 選擇해서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프로그램에의 참여정도는 年齡層에 따라 逆比例의 現象을 나타낸다 하겠다. 즉 <표 N-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齡이 많아질수록 거의 참석하는 比率이 높고 年齡이 낮을수록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거나 기타 이유로 참석 못하는 比率이 높아 이는 年齡層으로 보아 團體活動 以外の 活動에 從事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표 N-35>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도

연령 프로그램참여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거의 참석	21	30.4	32	61.5	31	62.0	29	78.4	113	54.3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만	23	33.3	15	28.9	7	14.0	6	16.2	51	24.5
시간이 맞지 않아 불참	13	18.9	5	9.6	10	20.0	1	2.7	29	14.0
참석 않는다	4	5.8					1	2.7	5	2.4
전혀 연락받지 못함	8	11.6							8	3.8
무응답					2	4.0			2	1.0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적극 참여의 比率이 높고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活動內容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하는 경향이 짙었다. (부록표 참조)

職場을 가진 女性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참석빈도가 적고 參與하지 못하는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 참조)

<표 N-36>

가족형태별 프로그램 참여도

가족형태 프로그램참여도	부부·기타		부부+자녀		부부+자녀 +가정부		부부+자녀 +가정부 +시부모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거의 참석	29	46.8	47	64.4	21	55.3	4	50.0	6	42.9	113	54.3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만	11	17.7	16	21.9	10	26.3	4	50.0	5	35.7	51	24.5
시간이 맞지 않아 불참	15	24.2	6	8.2	5	13.2			2	14.3	29	14.0
참석 않는다	4	6.5	1	1.3							5	2.4
전혀 연락받지 못함	3	4.8	3	4.1	1	2.6			1	7.7	8	3.8
무응답					1	2.6			1	7.1	2	1.0
Total	62	100.0	73	100.0	38	100.0	8	100.0	14	100.0	208	100.0

<표 N-36>은 家族構成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어떠한가를 본 것으로 核家族 즉 夫婦와 子女로 구성된 가족의 女性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家族의 女性보다 적극참여의 비율이 높고 예상

과는 달리 家政婦가 있는 경우에 가정부가 없는 경우보다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 그 이유를 究明한다면 女性들의 社會活動에 장애가 되는 要因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女性들이 社會活動을 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子女養育을 들 수 있겠다. 本研究에서는 막내자녀가 어느정도 成長했느냐에 따라 女性의 活動에의 참여도도 달라지리라 보았다. <표 N-37>에서 한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막내子女가 成長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團體活動에 참여하는 빈도가 많음을 알 수 있어 女性들의 社會活動參與와 子女의 年齡과는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표 N-37) 막내 자녀 나이와 프로그램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도	6세 미만		7세-12세		13세-18세		19세 이상		무응답		비례당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거 의 참 석	22	55.0	21	67.7	22	71.0	20	74.1	7	58.4	21	31.3	113	54.3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참석	13	32.5	6	19.4	6	19.4	3	11.1	3	25.0	20	29.9	51	24.5
시간에 맞지 않아 불참	3	7.5	4	12.9	3	9.7	3	11.1	1	8.3	15	22.4	29	14.0
참석 알 는 다							1	3.7			4	6.0	5	2.4
전혀 연락 받지 못함	1	2.5									7	10.4	8	3.8
무 응 답	1	2.5							1	8.3			2	1.0
Total	40	100.0	31	100.0	31	100.0	27	100.0	12	100.0	67	100.0	208	100.0

當然한 귀결이기는 하지만 會員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에 프로그램 참석율이 가장 높아 80.7%이며 만족도가 낮을수록 參與度도 낮다(표 N-38). 그리고 특히 불만이라는 女性들의 경우에 전혀 연락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아 이는 프로그램 등 단체행사에 관한 연락이 잘 되어진다면 적극 參與할 사람들이 아닌가 한다. 불만이어서 參與하지 않는다고보다 參與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연락 등의 소홀로 參與하지 못함에서 불만을 갖게된 것이 아닌가 한다.

(표 N-38) 만족도별 프로그램 참석

프로그램 참석	회원으로서 만족감		매우 만족		만족한 편		그저그렇다		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거 의 참 석	38	80.7	58	58.0	16	33.3	1	10.0							113	54.3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3	6.5	25	25.0	20	41.7	3	30.0							51	24.5
시간에 맞지 않아 불참	6	12.8	14	14.0	8	16.6							1	100.0	29	14.0
참석 알 는 다			1	1.0	2	4.2	2	20.0							5	2.4
전혀 연락 받지 못함			-		2	4.2	4	40.0	2	100.0					8	3.8
무 응 답			2	2.0											2	1.0
Total	47	100.0	100	100.0	48	100.0	10	100.0	2	100.0	1	100.0			208	100.0

또한 會員간의 交流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會員들은 높은 參與度를 나타내는 반면 전혀 교류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會員들의 參與는 낮게 나타나 앞서 만족도와와의 관계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부록표 참조> 또한 團體에 加入한지 오래될수록, 本人의 자의로 加入하게된 경우에 높은 參與를 나타내 주었다. (부록표 참조)

3) 會員의 團體에 대한 滿足度

女性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女性들이 會員이 된 데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통해 會員들의 參與度도 미루어 볼 수 있지만 團體活動의 方向이나 具體的 프로그램 설정에 회원들의 만족도를 參考한다면 會員과 더욱 밀착된 事業을 展開시킬 수 있을 것 이다.

團體會員들의 滿足度는

- ① 會員으로서 滿足程度
- ② 他團體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 ③ 親知에게 團體加入을 권유할 것인지의 內容을 통해 알아 보았다.

① 會員으로서 滿足程度

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女性들의 滿足程度도 (표 N-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만족이 22.6%, 만족한 편이 48.1%, 그저 그렇다 23.1%, 불만이 약 6%에 가까운 比率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滿足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매우 만족하다는 會員의 比率이 높아지도록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종고단체에 속한 경우에 만족의 比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봉사·친목단체의 경우이며 기능단체에 속한 會員들이 불만의 比率이 높고 매우 만족의 比率은 아주 낮았다.

(표 N-39)

소속단체별 滿足度

소속단체	기 능 단 체			봉 사 · 친 목 단 체			종 고 단 체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매 우 만 족		4	8.9		23	24.2		20	29.4		47	22.6
만 족 한 편		20	44.5		44	46.3		36	52.9		100	48.1
그저 그렇다		13	28.9		25	26.3		10	14.7		48	23.1
불 만 족		7	15.6		1	1.1		2	2.9		10	4.8
아주 불만족		1	2.2		1	1.1					2	0.9
무 응 답					1	1.1					1	0.5
Total		45	100.0		95	100.0		68	99.9		208	100.0

年齡이 높아질수록 매우 만족의 比率이 높아지고 그와 反對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不滿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표 참조)

(표 N-40)는 敎育程度와 滿足程度와를 관련시켜본 것으로 敎育程度가 높아질수록 매우 만족의 比率은 점점 낮아지고 그저 그렇거나 不滿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기능단체 소속회원들의 경우 高等敎育을 받은 젊은 女性이거나 혹은 기능직에 종사하는 女性會員들 중에 자동적으로 加入된 경우 團體에 대한 參與意識도 낮아지고 만족정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會員으로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주부와 상업·서비스직 종사자이며 기술직·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만족의 比率이 아주 낮으며 불만의 比率은 平均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 職業集團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록표 참조)

〈표 N-40〉

교육정도별 만족 정도

교육정도 회원으로서 만족감	중 출 이 하		고 출 정 도		초대출+대출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매 우 만 족	13	54.2	18	28.1	16	13.3	47	22.6
만 족 한 편	9	37.5	33	51.6	58	48.3	100	48.1
그저 그렇다	2	8.3	10	15.6	36	30.0	48	23.1
불 만 족			2	3.1	8	6.7	10	4.8
아주 불만족					2	1.7	2	0.9
무 응 답			1	1.6			1	0.5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加入動機가 단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參與한 경우에 만족하는 比率이 높으며, 권유에 못이겨 즉 자의에 의해서보다 他律으로 加入한 경우에는 不滿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을 〈표 N-41〉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전직자를 보고, 本人 意思에 의해 자발적으로 參與하게 된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本人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加入되었거나 他人의 권을 때문에 加入하게 된 경우에 만족도가 낮고 不滿의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표 참조).

〈표 N-41〉

가입동기별 만족 정도

가입이유 회원으로서 만족감	여성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특정프로 그램에 참여 하고 싶어서		사회와 관계 있어서		단체의 일이 필요해서		집에 있어서 편해서		권유에 못이겨		기 타		무 응 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매 우 만 족	16	17.4			3	42.9	24	36.9	2	33.3					2	12.5	47	22.6
만 족 한 편	54	58.7	6	42.9	1	14.3	33	50.8	2	33.3	3	42.8			1	6.3	100	48.1
그저 그렇다	20	21.7	8	57.1	3	42.9	7	10.8	2	33.3	2	28.6	1	100.0	5	31.7	48	23.1
불 만 족	1	1.1					1	1.5			1	14.3			7	43.8	10	4.8
아주 불만족											1	14.3			1	6.3	2	0.9
무 응 답	1	1.1															1	0.5
Total	92	100.0	14	100.0	7	100.0	65	100.0	6	100.0	7	100.0	1	100.0	16	100.0	208	100.0

이 점 앞으로 女性團體活動에 더 많은 女性들의 加入을 위해서도 本人들이 스스로 參與할 수 있도록 지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더지로 勸誘하지 않아도 參與하고 싶은 意思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요구되며 加入한 會員들에게는 失望을 안겨주지 않도록 誠意있는 事業 進行이 바람직하다.

會員이 滿足을 느끼는 정도를 會員간의 交流관계의 정도에 따라 分類해 보았더니 〈표 N-42〉와 같이 會員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회원간에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경우에는 그저그렇다가 67% 가량, 불만도 14% 가량으로 나타나 회원간의 교류가 잘 되면 만족도 더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他團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표 N-42〉

회원간의 교류와 만족도

회원간의 교류	아주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하루 겨우 한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원으로서 만족감												
매우 만족	27	47.4	9	12.3	10	16.7			1	33.3	47	22.6
만족한 편	26	45.6	37	50.7	33	55.0	3	20.0	1	33.3	100	48.1
그저 그렇다	4	7.0	20	27.4	14	23.3	10	66.6			48	23.1
불만족			6	8.2	3	5.0	1	6.7			10	4.8
아주 불만족			1	1.4			1	6.7			2	0.9
무응답									1	33.3	1	0.5
Total	57	100.0	73	100.0	60	100.0	15	100.0	3	100.0	208	100.0

다른 團體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해서 자신이 소속한 團體에 대해 不滿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그 反對의 경우도 반드시 成立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이 속한 團體活動의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다른 團體에서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보아진다.

本 研究에서는 會員들의 滿足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會員들이 다른 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N-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團體의 프로그램에 가끔 參席하는 경우도 3割에 가까우며, 參席하지는 않아도 관심은 있다는 會員이 62.5%로 本 調査對象 會員들의 경우에는 다른 團體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關心度가 높음을 알 수 있겠다. 다른 團體 프로그램에 가끔 參席하는 경향은 봉사·친목단체 회원에서 많은

〈표 N-43〉

소속단체별 타단체 프로그램 관심도

소속단체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타단체 프로그램 관심도								
가끔 참석	10	22.2	31	32.6	17	25.0	58	27.9
참석 않지만 관심은 있다	28	62.2	55	57.9	47	69.1	130	62.5
관심 없다	7	15.6	9	9.5	4	5.9	20	9.6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편이며 기능단체 소속원들은 他團體 프로그램활동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他團體의 프로그램에 關心이 없다는 응답은 年齡이 아주 많은 50代에서, 敎育을 많이 받은 層이며, 기술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았고 소속團體에 加入하지된 功기와 加入年數에 따라 특별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부록표 참조〉

약 3割에 가까운 應答者가 他團體에서의 프로그램에 가끔 參席한다고 하였거니와 실제로 他團體에도 加入하고 있는 會員도 11.5%로 나타났다. 〈표 N-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齡이 많아질수록 他團體에 加入한 比率도 높다.

또한 宗教團體에 속한 會員이, 敎育程度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소속단체에 加入한지 오래된

(표 N-44)

연령에 따른 타단체 가입 여부

연령 타단체 가입여부	29세 이 하		30~39세		40~49세		50세 이 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예	4	5.8	5	9.6	7	14.0	8	21.6	24	11.5
아 니 오	65	94.2	47	90.4	43	86.0	29	78.4	184	88.5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會員일수록 他 團體에도 加入한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 참조〉

이러한 事實은 年齡이 많은 初期 女性活動 參加者들의 경우에 團體參加 범위도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親知에게 女性團體에의 加入 권유

人間은 자신이 겪은 일이 보람이 있었다든지 滿足스러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이다.

本 研究에서는 團體加入會員들의 滿足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親知에게도 단체가입을 권유할 것인가를 물어 보았더니 〈표 N-45〉와 같이 적극 권유하겠다고 37%, 기회있으면 권유하겠다고

(표 N-45)

소속단체별 친지에게 단체가입권유

소속단체 가입권유	기 능 단 체		봉사원목단체		종 교 단 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극권유	12	26.7	35	36.8	30	44.1	77	37.0
기회있으면 권유	12	26.7	55	57.9	37	54.4	104	50.0
권하고 싶지 않다	14	31.1	5	5.3	1	1.5	20	10.1
기타	7	15.5					7	2.9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50%로 약 9割 가까운 응답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女性團體加入을 권하고 싶어하며, 이러한 의견은 특히 宗教團體에 소속된 응답자들에게서 높았고(98.5%) 권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기능단체 소속회원에게서 약 3割가량 나타나고 있다.

教育程度가 중졸이하 group에서는 집원이 친지에게도 단체가입을 권유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점점 감소되는 한편 권유하고 싶지 않다는 회의적 태도가 많아지고 있음을 〈표 N-45〉를 통해 알 수 있다.

年齡別로 보면 年齡이 많은 50代層에서는 적극권유의 비율이 매우 높음에 권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20代에서 평균보다 2倍의 比率로 나타났다. 〈부록표 참조〉

他人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전문직·기술직 종사회원에게서 높은 反應을 보였고 本人의 意思에 의해서 參與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남의 권유에 못이겨, 자동적으로 加入한 경우에 많은 比率로 나타났다. 한편 加入年限이 10年以上이 된 경우에는 응답자 집원이 他人에게 團體加入을 권유할 의사를 나타냈고 會員간의 교류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거의

他人에게도 團體加入을 권유하겠다는 反應을 보여 주었다.

〈표 N-46〉

교육정도별 친지에게 단체가입권유

교육정도 단체 가입 권유	중 륜 이 하		고 륜 정 도		초대중 대중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극권유	14	58.3	27	42.2	36	30.0	77	37.0
기회 있으면 권유	10	41.7	33	51.6	61	50.9	104	50.0
권유하고 싶지 않다			4	6.2	16	13.3	20	10.1
기타					7	5.8	7	2.9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4) 團體內에서의 交流關係

會員들의 參與形態를 또 다른 側面에서 파악할 수 있는 方法으로는 그들간에 交流程度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이다. 즉 한 集團에 所屬된 成員들끼리 所屬感과 同類意識을 가지고 서로 빈번한 交流를 가지면서 親密한 關係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곧 所屬集團에의 參與度가 높음을 말해 준다고 보겠다.

本 研究에서는 ① 會員들간의 交流關係와 ② 指導層과의 交流關係를 살펴봄으로써 會員들이 團體內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結束되어 活動에 參與하는가를 알아 보려 하였다.

① 會員간의 교류관계와 친교계기

〈표 N-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會員간의 交流가 잘 되고 있다는 對答은 26.9%, 보통이다 35.6%, 하려고 努力한다가 28.8%로 9割이상이 會員交流에 대해 긍정적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所屬團體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宗教團體에서는 交流가 잘된다는 比率이 높은 데 비해 기능단체에서도 잘된다는 比率이 다른 단체 소속회원보다 훨씬 낮음에다 전혀 交流가 되지 않고 있다는 否定的 의견도 2割 가량으로 反應했다.

年齡이 많은 50代에서 會員間 교류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 比率이 높은데 비해 20代층에서는 긍정적인 反應은 낮고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는 比率이 많다는 年齡층에서보다 높다. 〈부록표 참조〉

〈표 N-47〉

소속 단체별 회원간의 교류 관계

소속단체 회원간의 교류	기 능 단 체		봉사 친목단체		종 교 단 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주 잘하고 있다	7	15.5	25	26.3	25	36.7	57	26.9
보통이다	12	26.7	37	40.0	24	35.3	73	35.6
하려고 노력한다	18	40.0	24	25.3	18	26.5	60	28.8
전혀 하고 있지 않다	8	17.8	6	6.3	1	1.5	15	7.2
무응답			3	3.2			3	1.5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會員간의 交流에 대해 否定的인 反應은 敎育程度가 높은 層에서 많았으며 加入한지 오래된 경우에 會員交流가 잘 되고 있다는 比率이 상당히 높다. 會員交流에 대한 反應은 加入해서 처음 1 年은 다소 肯定的인 反應이 높으나 2年이상~5年이되면 肯定的 反應이 낮아졌다가 5年 이상이면 加入年限이 길수록 회원교류가 많다고 보는 比率도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부록표 참조>

會員으로서 만족程度가 높을수록 회원간의 교류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肯定的 反應을 하고 있고 불만일수록 회원간의 교류도 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N-48>

대다수가 會員간의 交流가 잘 되고 있거나 혹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이 서로 親交를 맺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살펴 본 것이 <표 N-49>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이 비슷해서가 가장 많으며, 학교동창이어서, 거주지가 가깝다, 취미가 같아서, 나이가 비슷해서의 순서이고 기능단체에서는 학교동창이거나 의견이 비슷해서 친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宗教團體에서는 의견이 비슷해서 친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N-48>

만족정도별 회원의 교류

회원간의 교류	회원으로서 만족감		매우만족		만족한편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주 잘 하고 있다	2	57.4	25	25.0	5	10.4									57	25.9
보통이다	9	19.1	38	38.0	19	39.6	6	60.0	1	50.0					73	35.6
하려고 노력한다	10	21.3	33	33.0	14	29.2	3	30.0							60	28.8
친히 하고 있지 않다			3	3.0	10	20.8	1	10.0	1	50.0					15	7.2
무응답	1	2.2	1	1.0									1	100.0	3	1.5
Total	47	100.0	100	100.0	48	100.0	10	100.0	2	100.0	1	100.0	208	100.0		

<표 N-49>

소속 단체별 친교계기

친교계기	소속단체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학교동창	21	46.7	15	15.8	6	8.8	42	20.2		
나이가 비슷	2	4.4	9	9.5	4	5.9	15	7.2		
거주지가 가깝다	3	6.7	14	14.7	5	7.4	22	10.6		
취미가 같다	4	8.9	11	11.6	6	8.8	21	10.1		
가정환경 비슷			10	10.5	1	1.5	11	5.3		
의견비슷	10	22.2	28	29.5	43	63.2	81	38.9		
무응답	5	11.1	8	8.4	3	4.4	16	7.7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年齡이 젊은 層에서는 학교동창이어서 친하다는 比率이 높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견이 비슷해서 친하게 되었다는 응답比率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부록표 참조>

敎育程度에서 <표 N-46> 中學以下 집단에서는 의견이 비슷해서가 가장 많고, 가정환경이 비

숫천하게 되었다가 25%로 다른 집단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의견이 비슷한 것이 제기가 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교동창이어서 친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N-50〉

敎育程度別 친교계기

敎育程度 친교계기	중 출 이 하		고 출 정 도		초대출+대출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학교동창			8	12.5	34	28.3	42	20.2
나이가 비슷	2	8.3	4	6.3	9	7.5	15	7.2
거주지가 가깝다	1	4.2	5	7.8	16	13.3	22	10.6
취미가 같다	1	4.2	10	15.6	10	8.3	21	10.1
가정환경 비슷	6	25.0	3	4.7	2	1.7	11	5.3
의견 비슷	14	58.3	29	45.3	38	31.7	81	38.9
무응답			5	7.8	11	9.2	16	7.7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② 指導層과의 交流관계

會員들의 所屬感은 指導層과의 친숙한 관계로 해서 더욱 增進될 수 있을 것이다.

指導層과 아주 잘 안다가 32%, 그저 그렇다가 27.9%, 잘 모른다가 22.6%, 전혀 알지 못한다 13.4%로 나타나 〈표 N-51〉 비교적 지도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단체의 성격이 기능단체인 경우에는 指導層과도 소원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年齡이 많아질수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敎育程度가 高卒程度에서 아주 친밀하다는 비율이 높으나 중졸層과 大卒層에서는 낮아 指導層과의 관계가 소원함을 나타냈다. 〈부록표 참조〉

〈표 N-51〉

소속단체별 지도층과의 교류

소속단체 지도층과 교류	기 능 단 체		봉사·친목단체		종 교 단 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주 잘 안다	9	20.0	29	30.5	29	42.6	67	32.2
그저 그렇다	10	22.2	25	26.3	23	33.8	58	27.9
서로얼굴과 이름만 안다	11	4.5	24	25.3	12	17.6	47	22.6
전혀 알지 못한다	14	31.1	12	12.6	2	3.0	28	13.4
기타			2	2.1			2	1.0
무응답	1	2.23		3.2	2	3.0	6	2.9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加入한지 오래된 會員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으나 年齡이 얼마 되지 않은 會員인수록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 회원과 단체지도층과 서로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지도인사의 특별한 배려와 함께

一定時日을 要하는 것으로 보인다.

團體會員으로서 滿足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指導層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불만인 경우에 交流가 전혀 없으며(표 1-52) 또한 會員간의 交流가 잘 되는 경우에는 指導層과의 관계도 친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원한 것으로 나타나(부록표 참조) 團體加入女性들은 會員間的 交流도 잘되고 指導層人士와도 친밀한 關係를 유지하게 되면 團體會員으로서 滿足感을 가지고 團體에 대한 愛着과 積極적 活動參與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N-52)

만족정도별 지도층과의 교류

지도층과 교류	회원으로서 만족감		매우만족		만족한편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아주 잘 안다	23	48.9	38	38.0	5	10.4	1	10.0							67	32.2
그저 그렇다	8	17.0	31	31.0	18	37.5	1	10.0							58	27.9
서로 얼굴과 이름만 안다.	11	23.4	22	22.0	13	27.1	1	10.0							47	22.6
전혀 알지 못한	2	4.37		7.0	11	22.9	6	60.0	2	100.0					28	13.4
기타	1	2.1	1	1.0											2	1.0
무응답	2	4.3	1	1.0	1	2.1	1	10.0					1	100.0	6	2.9
Total	47	100.0	100	100.0	48	100.0	10	100.0					1	100.0	208	100.0

3. 團體活動에 대한 非會員의 態度

女性團體活動이라면 一般의으로 몇몇 社會의으로 名聲있는 女性指導者를 中心으로 少數의 熱誠의인 女性들이 모여 봉사활동이나 親睦을 도모하여 都市女性 중심의 文化的인 취미에 관련된 강습이나 프로그램 展開에 그치고 있다는 세간의 認識에서 탈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急變하는 時代狀況은 一部 都市의 부유층 女性들만의 활동으로는 그 存在價値에 의혹을 가지게 한다. 女性團體活動이라면 적어도 대상面에 있어서만이라도 各계 各층의 女性들의 參與를 의식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아직까지 낮은 教育水準과 意識水準에 있는 女性人口의 比率이 높은 우리의 실정에서는 先導者의 位置에 있는 女性들이 現實問題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가지고 中流以下層 女性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使命感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중대에는 女性團體活動에 대한 研究도 集團內에서 즉 이미 女性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都市下流層이나 地方의 女性들은 度外視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女性團體活動의 方向이 자체내에서의 프로그램 改善이나 方向轉換에만 局限되어서는 안되며, 이제까지 女性團體와는 關聯을 갖지 않았던 계층을 흡수하여 汎女性의인 活動方向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團體活動에 參與하지 않은 女性들의 女性團體活動에 대한 태도가 肯定的인지 否定的인지를 알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本 研究은 이들 非參與女性들의 團體에 대한 態度를 1) 女性團體 認知程度, 2) 女性團體에 加入하지 않은 이유와 加入希望意思, 3) 女性團體의 必要性에 대한 意見, 4) 女性團體 會員들에

대한 評價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한다.

1) 女性團體 認知程度

(표 N-53) 소재에 따른 여성단체 존재인지 여부

소재구 존재인지의 여부	성 북 동	운 알 동	진 능 동	Total	
	실 수	실 수	실 수	실 수	%
알고있다	89	95	43	227	75.7
모른다	10	5	56	71	23.7
기타	—	—	1	1	0.3
무응답	1	—	—	1	0.3
Total	100	100	100	300	100.0

(표 N-54) 교육 정도별 여성단체 존재인지

학 려 인지여부	중 준		고 준		대 준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알고있다	66	52.8	71	85.5	90	99.8	227	75.7
모른다	58	46.4	12	14.5	1	0.1	71	23.7
기타	1	0.8	—	—	—	—	1	0.3
무응답	—	—	—	—	1	0.1	1	0.3
Total	125	100	83	100	92	100	300	100

(표 N-55) 교육 정도에 따른 단체명

교육정도 단체명	중 준		고 준		대 준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Y.W.C.A.	42	60.0	44	63.8	61	68.5	147	64.5
주부클럽연합회	—	—	3	4.3	13	14.6	16	7.0
대한어머니회	4	5.7	7	10.1	7	7.9	18	7.9
새마을어머니회	—	—	2	2.9	—	—	2	0.9
주 부 교 실	—	—	2	2.9	1	1.1	3	1.3
한국 부인회	—	—	2	2.9	3	3.4	5	2.2
여성유권자연맹	—	—	—	—	1	1.1	1	0.4
매 지 원	—	—	1	1.4	—	—	1	0.4
대한 부인회	2	2.9	—	—	—	—	2	0.9
기 타	4	5.7	3	4.3	1	1.1	8	3.5
무 응 답	18	25.7	5	7.2	2	2.2	25	11.0
Total	70	100.0	69	99.8	89	99.9	228	100.0

※ 비회당은 제외

우선 그들이 女性團體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표 N-53〉에서처럼 女性團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75.7%, 모른다가 22.7%로 비록 단체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女性團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아 낮은階層이 많은 지역에 居住하는 女性들은 모른다는 比率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N-56〉

연령에 따른 알고 있는 단체명

연령 여성단체명	29세이하		30세-39세		40세-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Y. W. C. A.	31	58.5	44	69.8	49	62.0	23	69.8	147	64.5
주부클럽연합회	6	11.3	6	9.5	4	5.1			16	7.0
대한 어머니회	4	7.5	3	4.8	7	8.9	4	12.1	18	7.9
새마을어머니회					2	2.5			2	0.9
주부교실연합회	1	1.9			2	2.5			3	1.3
한국 부인회			1	1.6	3	3.8	1	3.0	5	2.2
유권자 연맹	1	1.9							1	0.4
새 지 원	1	1.9							1	0.4
대한 부인회			1	1.6			1	3.0	2	0.9
기 타	1	1.9			7	8.9	—		8	3.5
무 응 답	8	15.1	8	12.7	5	6.3	4	12.1	25	11.0
Total	53	100.0	63	100.0	79	100.0	33	100.0	228	100.0

출처: 비례당 제외

또한 敎育程度가 높은 層에서는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데 비해 중졸이하에서는 53%정도로 敎育程度에 따라 女性團體 認知程度에 많은 差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N-54〉.

年齡이 젊을수록 女性團體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比率이 다소 높으며 年齡이 많아질수록 그 反對현상을 보여 주었다(표 N-56)

이들이 알고 있는 女性團體로는 YWCA가 가장 많아 女性團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227명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147명이나 되었다 그 외에 “주부클럽연합회”와 “대한 어머니회”를 알고 있었으며, 〈표 N-55〉 敎育程度가 높은 層에서 기타 단체를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女性團體의 存在에 대한 非參與女性들의 견해는 대부분이 女性團體가 있는 것을 아는데 YWCA 정도이며, 敎育程度가 높은 層에서 團體의 認知程度가 높다.

2) 女性團體에 加入하지 않은 理由 및 加入希望意思

非會員女性들이 女性團體에 加入하지 않은 理由가 무엇인지, 앞으로 加入할 意思가 있는지, 加入한다면 어떤 活動을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싶은지를 그들 자신으로부터 알아본다는 것은 尙來 女性團體의 方向設定을 위해 意義있는 作業이라 하겠다.

〈표 N-57〉에 보면 과반수 이상이 “시간이 없어” 團體에 加入하지 않았다고 하며, “편실이

〈표 N-57〉

교육 정도에 따른 여성단체 불가입 이유

교육정도 불가입여부	중 고		고 고		대 고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관심이 없다	34	27.2	13	15.7	18	19.6	65	21.7
가입방법을 모름	7	5.6	4	4.8	4	4.3	15	5.0
시간이 없다	57	45.6	45	54.2	56	60.8	158	52.6
여성단체 자체가 싫어서	—	—	1	1.2	2	2.2	3	1.0
모이는 사람들이 싫어	—	—	2	2.4	3	3.3	5	1.7
돈이 드니까	3	2.4	1	1.2	—	—	4	1.3
집안식구가 싫어서	4	3.2	7	8.5	3	3.3	14	4.7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19	15.2	6	7.2	2	2.2	27	9.0
기 타	1	0.8	4	4.8	4	4.3	9	3.0
Total	125	100	83	100	92	100	300	100.0

없어"가 21.7%,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가 9.0%, 가입방법을 몰라서 5.0%, 집안 식구가 싫어서가 4.7%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거나 집안식구 때문에 加入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團體에 대한 否定的인 態度 때문에 加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加入意思는 있으나 方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반응이다.

教育程度가 높은 層에서는 時間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比率이 높은데, 낮은 水準의 層에서는 團體에 대해서 잘 몰라서 加入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年齡이 30代, 40代 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比率이 높으나 20代, 50代 層에서는 관심도 없고 加入方法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本人이 基督教信者인 경우에 다른 宗教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없어서 不參한다는 反應이 높았다. (부록표 참조)

階層을 고려한 地域別로 보았더니 上層地域에 속하는 女性들의 경우에는 시간도 없거니와 기타 女性團體에 대한 否定的인 이유가 他 地域에 비해 많고 下層地域에 속하는 女性들은 時間이 없다는 比率은 훨씬 낮고 女性團體에의 加入方法이나 團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표 참조)

女性들이 가정 밖에서 社會活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의 하나가 집안일 때문이라고 한다. 家族形態와 子女關係에 의해서 分析해 보면 〈표 N-58〉에서 처럼 시부모와 함께인 擴大家族型에서는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아주 높고, 核家族型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등의 이유가 많다. 夫婦가 죽인 경우에 관심도 없고 加入方法과 단지가 하는 일을 몰라서 不參하는 反應이 높다. 이러한 事實은 核家族의 主婦는 관심이 있어도 家事나 집 때문에 가정外 活動에 참여하기 어렵겠지만 집안에 시부모가 계시거나 家政婦가 있을 때는 용이하리라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反應으로 보인다.

子女數가 많고 적고는 女性의 活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막내 子女의 나이와 관련시켜 보았더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은 있으나 時間이 없어서 加入하지 못하는 것

〈표 N-58〉

家族形態別 女性團體 참가인 이유

가족형태 불가인 이유	부 부		부부+자녀		부부+자녀+가정부		부부+자녀+시부모		부부+자녀+부모+가정부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관심이 없어서	9	34.6	32	20.9	20	31.7	3	10.7	1	3.3	65	21.7
가입방법을 몰라서	2	7.7	8	5.2	1	1.6	4	14.3	—	—	15	5.0
시간이 없어서	10	38.6	82	53.6	25	39.7	18	64.3	23	76.7	158	52.6
여성단체 그 자체가 싫어서	—	—	—	—	3	4.8	—	—	—	—	3	1.0
모이는 사람들이 싫어서	—	—	2	1.3	3	4.8	—	—	—	—	5	1.7
돈이 드니까	—	—	3	2.0	—	—	1	3.6	—	—	4	1.3
집식구가 외출을 싫어해서	1	3.8	7	4.6	3	4.8	—	—	3	10	14	4.7
여성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3	11.5	15	9.8	4	6.3	2	7.1	3	10	27	9.0
기 타	1	3.8	4	2.6	4	6.3	—	—	—	—	9	3.0
Total	26	100	153	100	63	100	28	100	30	100	300	100

으로 보이며 子女가 거의 成長한 女性들도 時間이 없어서라기 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不參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N-59〉

우리 사회에서의 女性들 특히 主婦들의 社會活動은 家族構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子女의 成長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女性團體에서의 事業을 展開해 나가는 데 있어 家族構造나 家族의 生活周期 段階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設定함으로써 많은 女性들의 團體 參與를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N-59〉

막내자녀의 나이에 따른 불가인 이유

막내자녀의 나이 불가인 이유	6세 미만		7-12세		13-18세		19세 이상		비해당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관심이 없어서	11	12.1	14	25	14	23.0	15	31.3	11	25.0	65	21.7
가입방법을 몰라서	6	6.6	1	1.8	2	3.2	1	2.1	50	11.4	15	5.0
시간이 없어서	62	68.1	34	60.7	35	57.4	13	27.0	14	31.8	158	52.6
여성단체라는 그 자체가 싫어서	—	—	—	—	—	—	1	2.1	2	4.5	3	1.0
여성단체에 모이는 사람들이 싫어서	—	—	—	—	—	—	3	6.3	2	4.5	5	1.7
돈이 드니까	2	2.2	—	—	1	1.6	1	2.1	—	—	4	1.3
집식구가 외출하는것을 싫어해서	4	4.4	1	1.8	2	3.2	6	12.5	1	2.2	14	4.7
여성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6	6.6	6	10.7	4	6.6	4	8.3	7	15.9	27	9.0
기 타	—	—	—	—	3	5.0	4	8.3	2	4.5	9	3.0
Total	91	100.0	56	100.0	61	100.0	48	100.0	44	100.0	300	100

女性들이 團體活動하는 데는 男便들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男便의 敎育程度와 婦人의 不

參理由와를 관련시켜 보았더니 男便의 敎育程度가 높은 경우에 時間이 없어서의 比率이 높고 男便의 敎育程度가 낮은 경우에 時間이 없어서라기 보다 女性團體活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표 참조〉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재 加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누가 권유한다면 加入할 의사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加入하겠다”는 의견은 26.3%에 불과하고 72.7%의 응답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年齡이 많아질수록 加入하지 않겠다는 反應이 높은 비율로 나

〈표 N-60〉

연령에 따른 가입유무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가 입 하 겠 다	24	35.3	25	30.1	25	25.7	5	9.6	79	26.3
가입하지 않겠다	44	64.7	58	69.9	70	72.2	46	88.5	218	72.7
무 응 답	—	—	—	—	2	2.1	1	1.9	3	1.0
Total	68	100.0	83	100.0	97	100.0	52	100.0	300	100.0

〈표 N-61〉

교육정도에 따른 가입유무

교육정도	중 등		고 등		대 등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가 입 하 겠 다	26	20.8	23	27.7	30	32.6	79	26.3
가입하지 않겠다	97	77.6	59	71.1	62	67.4	218	72.7
무 응 답	2	1.6	1	1.2	—	—	3	1.0
Total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타났고 敎育程度가 낮을수록 加入하지 않겠다는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N-61〉

여성단체에의 加入意思는 시부모를 모신 가족에서 가장 높았으며 子女數가 적은 경우에, 그리고 막내 子女의 나이가 어릴수록 加入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부록표 참조) 이는 젊은 世代의 女性들이 현재는 子女養育 등 時間이 없어 參與하지 못하지만 子女가 좀 成長하면 시부모가 제서서 主婦의 外出중에 家庭과 子女를 맡아주면 團體活動에 加入할 수 있다는 意思로 풀이될 수 있겠다.

男便의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團體加入 希望意思가 높으며(부록표 참조) 加入하는 方法을 물라서 현재 團體活動에 參與하지 않았다는 경우에 加入希望意思가 높았다.

이들이 團體加入을 希望하는 理由로는 ① 자기발전을 위해서 (38%), ② 단체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려고, ③ 여성단체 참여를 위해서, ④ 여성의 지위향상을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표 N-62〉

年齡이 아주 젊은 層과 40代에서 자기발전을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年齡이 젊을수록 단체를 통해 많은 것은 배우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기발전을 위해 女性團體에 加入하고 싶다는 의사는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그 比率도 높아

〈표 N-62〉

연령에 따른 가입희망 이유

연령 가입희망 이유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자기 발전을 위해	11	45.8	7	28.0	12	48.0			30	38.0
단체활동을 통해 많은 것 배우려	8	33.3	7	28.0	3	12.0	2	40.0	20	25.3
여성 단체 참여 원함	2	8.3	1	4.0	3	12.0			6	7.6
여성의 지위향상 위해			3	12.0	3	12.0			6	7.6
사회 봉사 위해			2	8.0					2	2.5
기능 활동 위해			1	4.0					1	1.3
기타	1	4.2			2	8.0	2	40.0	5	6.3
무응답	2	8.3	4	16.0	2	8.0	1	20.0	9	11.4
Total	24	99.9	25	100.0	25	100.0	5	100.0	99	100.0

지며 단체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려 한다는 의견은 교육정도가 낮아질수록 많이 나타나(표 N-63) 교육정도가 낮은 층의 女性團體를 통한 교육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한편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218名에게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것이 〈표 N-64〉다. 이 중 6割에 가까운 女性이 집안일로 시간이 없다는 것이며 여유가 없다는 이유도 1割이 넘는다. 즉 加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女性團體에 대한 否定的 態度 때문이 아니고 시간여유가 없어서라는 자신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필요성을 못느낀다거나 관심없다는 反應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젊은 층에서 높았다.

교육정도가 높은 층에서는 집안일로 시간이 없어서라는 比率이 다소 높으며 단체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응답은 낮은 교육층에서 평균보다 높은 比率을 보여 주었다. (표 N-65)

〈표 N-63〉

교육程度別 加入 희망이유

교육程度 加入희망이유	중·중 이하		고·중		대·중 이상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자기 발전을 위해서	8	30.8	9	39.1	13	43.3	30	38.0
단체활동을 통해 많은 것 배우려	9	34.6	6	26.1	5	16.7	20	25.3
여성 단체 참여 원함	3	11.5	2	8.7	1	3.3	6	7.6
여성의 지위향상 위해	1	3.8			5	16.7	6	7.6
사회 봉사 위해	1	3.8	1	4.3			2	2.5
기능 활동 위해	1	3.8					1	1.3
기타	2	7.7	2	8.7	1	3.3	5	6.3
무응답	1	3.8	3	13.0	5	16.7	9	11.4
Total	26	99.8	23	99.9	30	100.0	79	100.0

3) 女性團體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비록 현재 女性團體에 會員으로서 所屬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누가 團體에의 加入을 권유

〈표 N-64〉

연령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연령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단체의 필요성 못느낌	6	13.6	3	5.2	2	2.9	3	6.5	14	6.4
집안일로 시간없음	18	40.9	42	72.4	45	64.3	23	50.0	128	58.7
직장인이라 시간없음	2	4.5			1	1.4			3	1.4
관심없다	4	9.1	3	5.2	4	5.7	2	4.4	13	6.0
여유가 없다	11	25.0	5	8.6	7	10.0	2	4.4	25	11.5
기타	3	6.8	3	5.2	7	10.0	15	32.6	28	12.8
무응답			2	3.4	4	5.7	1	2.2	7	3.2
Total	44	99.9	58	100.0	70	100.0	45	100.1	218	100.0

〈표 N-65〉

교육정도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

교육정도 불가입이유	중		고		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단체의 필요성 못느낌	8	8.2	3	5.1	3	4.8	14	6.4
집안일로 시간없음	53	54.6	37	62.7	38	61.3	128	58.7
직장인이라 시간없음	2	2.1			1	1.6	3	1.4
관심없다	6	6.2	3	5.1	4	6.5	13	6.0
여유가 없다	11	11.3	7	11.9	7	11.3	25	11.5
기타	17	17.5	8	13.6	3	4.8	28	12.8
무응답			1	1.7	6	9.7	7	3.2
Total	97	99.9	59	100.1	62	100.0	218	100.0

한다하여라도 집안일로 時間이 없어서 加入할 수 없다는 意見이 많았으나 女性團體의 必要性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표-66〉에서 알 수 있다. 즉 응답여성의 87%가 女性團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11.3%이다. 여성단체의 필요성은 30~40대에서 더 많은 反應이 나타났고 50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反應이 다른 연령集團보다 높게 나타났다(표N-67)

〈표 N-66〉

團體加入 희망의사 유무별 여성단체의 필요성

단체의 필요성	가입의사		가입하지 않겠다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필요하다	79	100.0	182	83.4			261	87
불필요하다	—		34	15.6			34	11.3
모르겠다	—		1	0.5	1	33.3	2	0.7
무응답	—		1	0.5	2	66.7	3	1.0
Total	79	100.0	218	100	3	100	300	100

단체의 필요성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주장하고 있으며 <표 N-68> 家族構成이 부부와 자녀 및 시부모를 모신 가족에 家政婦있는 경우에, 團體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女性團體가 필요한 理由는 능력개발을 위해서, 女性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회 國家에의 奉仕活動을 위해서, 기술이타든지 교양이타든지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있다(<표 N-69>)

<표 N-67>

年齡別 여성단체의 필요성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필요하다	58	85.3	77	92.8	86	88.7	40	76.9	261	87.0
불필요하다	9	13.2	6	7.2	8	8.2	11	21.2	34	11.3
모르겠다	1	1.5			1	1.0			2	0.7
무응답					2	2.1	1	1.9	3	1.0
Total	68	100	83	100	97	100	52	100	300	100

<표 N-68>

교육정도에 따른 여성단체의 필요성

교육정도	중졸		고졸		대졸		Total	
필요성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필요하다	102	81.6	76	91.6	83	90.2	261	87.0
불필요하다	20	16	5	6.0	9	9.8	34	11.3
모르겠다	1	0.8	1	1.2	—	—	2	0.7
무응답	2	1.6	1	1.2	—	—	3	1.0
Total	125	100	83	100	92	100	300	100.0

<표 N-69>

연령에 따른 단체 필요 여부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능력개발을 위해	18	30.6	15	18.5	21	22.1	9	20.9	63	22.7
권익보호	8	44.4	19	23.4	27	28.4	3	7.0	57	20.5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12	20.3	16	19.8	7	7.4	12	27.9	47	16.9
기술습득	—	—	1	1.2	2	2.1	2	4.7	5	1.8
사회전출의 발전이 될	6	10.2	3	3.7	1	1.1	2	4.7	12	4.3
개개인의 힘을 모을 수 있다	2	3.4	5	6.2	4	4.2	4	9.3	15	5.4
사회 진로의 역할	1	1.7	2	2.5	5	5.3	—	—	8	2.9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있다	6	10.2	7	8.6	5	5.3	1	2.3	19	6.8
여가 선용	2	3.4	2	2.5	2	2.1	1	2.3	7	2.5
국가에 봉사	—	—	—	—	3	3.2	—	—	3	1.1
기타	—	—	2	2.5	2	2.1	1	2.3	5	1.8
무응답	4	6.8	9	11.1	16	16.8	8	18.6	37	13.3
Total	59	100.0	81	100.0	95	100.1	43	100.0	278	100.0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反應은 20代層에서 낮고 권익보호는 30~40代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反應은 50代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① 단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35%) ② 가정에 분충스러지기 때문에 (15%), ③ 소수만 참여하니 (9%)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言及한 바 있거니와 子女養育 등 집안일 때문에 時間이 없어서 團體에 加入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女性들이 (9割가량) 女性團體의 必要性은 認定하고 있다.

이들이 만약 團體에 加入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種類의 活動을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자 하

〈표 N-70〉

年齡別 加入하고 싶은 단체활동

연 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합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봉사 단체	26	38.2	44	53.0	41	42.3	30	57.7	141	47.0
취 복 단체	9	13.2	7	8.4	9	9.3	5	9.6	30	10.0
기술강습·교양	14	20.6	16	19.3	16	16.5	1	1.9	47	15.7
여성권익옹호단체	5	7.4	4	4.8	9	9.3			18	6.0
종교 단체	1	1.5			1	1.0	2	3.8	4	1.3
기 타			3	3.6	5	5.2	1	1.9	9	3.0
무응답	13	19.1	9	10.8	16	16.5	13	25.0	51	17.0
Total	68	100.0	83	99.9	97	100.1	52	99.9	300	100.0

봉사: 청소년지도, 노인보호 등등.

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N-70〉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싶다는反應이 가장 높고 기술습득이라면 강습·교양(취미포함) 등 각종 교육을 주로 하는 단체를 원하며, 취복단체를 1割 가량, 여성권익옹호단체가 6.0%의 比率로 나타나 現存하는 各種 女性團體에 대한 認識이라는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하겠다.

〈표 N-71〉

教育程度別 加入하고 싶은 團體活動

교육정도	중		고		대		합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봉사 단체	66	52.8	39	47.0	36	39.1	141	47.0
취 복 단체	14	11.2	9	10.8	7	7.6	30	10.0
기술강습·교양	24	19.2	12	14.5	11	12.0	47	15.7
여성권익옹호단체	3	2.4	6	7.2	9	9.8	18	6.0
종교 단체	1	0.8	1	1.2	2	2.2	4	1.3
기 타	3	2.4	3	3.6	3	3.3	9	3.0
무응답	14	11.2	13	15.7	24	26.1	51	17.0
Total	125	100.0	83	100.0	92	100.1	300	100.0

年齡이 많은 층에 봉사단체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적을수록 기술 교양·강습등 교육活動을 주로하는 團體를 희망하는 경향이 보인다.

敎育程度가 낮을수록 봉사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희망하는 反應이 높아지고, 친목단체를 希望하는 반응도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많은 반응을 보인다. 한편 女性의 權益을 拥护하는 團體에의 希望은 大卒集團에서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음을 <표Ⅳ-71>에서 알 수 있다.

또한 回答者가 기독교에 속한 경우에 봉사단체에의 希望比率이 높고, 그 다음이 불교, 無宗教集團이다. <표Ⅳ-72>

<표Ⅳ-72>

宗教別 加入하고 싶은 단체 활동

희망 단체활동	종 교		기 독 교		宗 教 無		합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봉 사 단 체	42	48.3	60	52.6	39	39.4	141	47.0
친 목 단 체	7	8.1	11	9.6	12	12.1	30	10.0
기 술 강 습·교 양	16	18.4	15	13.2	16	16.2	47	15.7
여 성 권 익 拥护 단 체	3	3.4	6	5.3	9	9.1	18	6.0
종 교 단 체			4	3.5			4	1.3
기 타	4	4.6	1	0.9	4	4.0	9	3.0
무 응 답	15	17.2	17	14.9	19	19.2	51	17.0
합 계	87	100.0	114	100.0	99	100.0	300	100.0

團體加入意思가 있는 回答者와 없는 집단과의 加入을 원하는 團體活動內容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었다 <부록표 참조>

4) 非會員들이 보는 女性團體會員

團體에 加入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 즉 非會員女性들이 현재 女性團體에 加入하여 活動하고 있는 會員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앞으로 이들이 女性團體活動參與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곳에서는 非會員이 보는 ① 會員의 階層, ② 團體活動하는 會員들의 參與態度, ③ 女性團體에서 하는 일 등을 중심으로 非會員에 대한 評價를 들어보고자 한다.

① 會員의 階層

<표Ⅳ-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의 回答者가 女性團體會員들은 중상층에 속하는 女性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上下層여성이라 보며 上의上이라고 보는 回答者가 8.7%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中의上 以上 階層에 속하는 女性들에 의해 團體活動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回答者의 敎育程度가 高卒層에서 中의上이라고 보는 比率이 가장 높고 中卒以下層에서는 團體 女性들이 上의 上이라고 보는 回答者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많았다.

應答者의 居住地域 階層別로 보면 女性團體會員들의 계급은 中의 上層이라고 보는 反應은 낮은 階層地域에서 많았고 上의 下層女性이라고 보는 의견은 높은 階層地域에서 많았다. <표Ⅳ-74>

〈표 N-73〉

교육정도에 따른 회원들의 계층

교육정도			중 계층		고 계층		대 계층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상	의	상	17	13.6	3	3.6	6	6.5	26	8.7
상	의	하	39	31.2	29	34.9	32	34.8	100	33.3
중	의	상	64	51.2	50	60.3	52	56.5	166	55.3
중	의	하	5	4.0	1	1.2	2	2.2	8	2.7
하	의	상	—	—	—	—	—	—	—	—
하	의	하	—	—	—	—	—	—	—	—
Total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표 N-74〉

居住地別 非會員이 보는 會員의 階層

거주지역			상 계층	중 계층	하 계층	Total	
			실 수	실 수	실 수	실 수	%
上	의	上	4	6	16	26	8.7
上	의	下	40	31	29	100	33.3
中	의	上	43	60	63	166	55.3
中	의	下	3	32	2	8	2.7
Total			100	100	100	300	100.0

〈표 N-75〉는 女性團體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가와 團體會員들의 階層과를 관련시켜 본 것인데 단체활동이 필요하다는 應答者들은 團體會員들의 階層이 中의 上이라고 보는 경향이 나, 단체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會員들은 上의 上 혹은 上의 下層에 속하는 女性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女性團體活動을 하는 女性들이 一部 特殊層 혹은 上層女性들이라고 생각하는 應答자는 團體活動의 不必要性을 주장하는 경향이며, 團體活動에 참여하는 女性들이 中의 上層 女性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比率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표 N-75〉

女性團體 필요여부별 會員階層

필요여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상	의	상	20	7.7	4	11.8	2	40.0	26	8.7
상	의	하	83	31.8	15	44.1	2	40.0	100	33.3
중	의	상	152	58.2	13	38.2	1	20.0	166	55.3
중	의	하	6	2.3	2	5.9	—	—	8	2.7
Total			261	100.0	34	100.0	5	100.0	300	100.0

② 團體活動을 하는 會員들의 參與態度

非會員은 會員들의 團體에의 參與態度에 대해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표 N-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團體活動하는 女性들의 參與態度는 誠實하다고 보고 있으며 (58.7%), 불성실하다고 보는 反應은 13.3%에 불과하나 모르겠다의 26.7%를 否定的인 反應에 포함시켜 생각한다면 거의 半數에 가까운 非會員回答者는 女性團體會員들의 참여태도가 誠實하지 않다고 본다 하겠다.

〈표 N-76〉

연령에 따른 단체활동하는 이들의 참여태도

단체활동하는 이들의 참여태도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성실하다	성	실	47	69.1	48	57.8	52	53.6	29	55.8	176	58.7
불성실하다	불	성	10	14.7	9	10.9	13	13.4	8	15.4	40	13.3
모르겠다	모	르	11	16.2	26	31.3	29	29.9	14	26.9	80	26.7
무응답	무	응					3	3.1	1	1.9	4	1.3
Total			68	100	83	100	97	100	52	100	300	100

誠實하다고 보는 反應은 年齡이 젊을수록 높으며,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誠實하다고 보는 反應은 적어지고 불성실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음을 〈표 N-77〉에서 알 수 있겠다.

居住地域별로 上流層地域의 回答者들은 會員들의 參與態度에 대한 否定的인 反應이 높으며, 낮

〈표 N-77〉

교육정도별 회원의 참여태도

참여태도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성실하다	성	실	94	75.2	37	44.6	45	48.9	176	58.7
불성실하다	불	성	4	3.2	16	19.3	20	21.7	40	13.3
모르겠다	모	르	24	19.2	29	34.9	27	29.4	80	26.7
기타	기	타	—	—	—	—	—	—	—	—
무응답	무	응	3	2.4	1	1.2	—	—	4	1.3
Total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표 N-78〉

居住地域別 會員의 참여태도

참여태도	거주지역		성북동		응암동		전농동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성실하다	성	실	48		46		82		176	58.7
불성실하다	불	성	20		16		4		40	13.3
모르겠다	모	르	30		37		13		80	26.7
무응답	무	응	2		1		1		4	1.3
Total			100		100		100		300	100.0

은 階層地域의 應答者들은 誠實하다고 매우 肯定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 N-78).

會員들의 團體活動 參與態度에 대한 非會員의 의견은 年齡이 높을수록, 教育程度가 높지 않은 경우에, 上層地域이 아닌 경우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女性團體活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도 영향이 있는 것을 (표 N-79)에서 알 수 있다. 즉 會員들의 團體에의 參與態度가 誠實하다고 보면 團體活動도 必要한 것으로 보며 회원들이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應答者들 중에 團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N-79)

회원참여 태도에 대한 의견별 단체의 필요성

회원 참여 태도 단체의 필요성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모르겠다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필요하다	165	93.7	29	72.5	67	79.8	261	87.0
불필요하다	10	5.7	11	27.5	13	15.5	34	11.3
모르겠다	1	0.6			4	4.8	5	1.7
Total	176	100	40	100	84	100	300	100.0

③ 非會員들이 보는 女性團體에서 하는 일

女性團體에 參與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은 女性團體가 주로 奉仕活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표 N-80)에서 보면 女性團體에서 하는 일은 ① 봉사활동, ② 女性의 權益保護, ③ 社交·親睦活動, ④ 機能 및 職業에 따른 團體活動이라고 하는 한편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일부 부유층여성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도 보였다.

女性의 권익보호가 女性團體에서 하는 일이라는 意見은 젊은 층 특히 20대에서 많으며, 社交

(표 N-80)

연령별 여성단체의 하는 일

연령 여성단체의 하는 일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 권익 보호	19	27.9	17	20.5	24	24.8	8	15.4	68	22.7
기능, 직업별의 단체활동	8	11.8	16	19.3	15	15.5	5	9.6	44	14.7
사회, 친목 활동	3	4.4	10	12.1	20	20.6	11	21.1	44	14.7
봉사 활동	28	41.2	29	34.9	29	29.9	17	32.7	103	34.3
특별히 하는 일 없다	3	4.4	1	1.2	4	4.1	5	9.6	13	4.3
할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	4	5.9	1	1.2	1	1.0	3	5.8	9	3.0
부유층 여성들의 친목활동	3	4.4	8	9.6	4	4.1	3	5.8	18	6.0
무응답	—	—	1	1.2	—	—	—	—	1	0.3
Total	68	100	83	100	97	100	52	100	300	100.0

· 친목활동이라는 의견은 年齡이 높을수록 많았다.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女性團體의 하는 일이 女性의 權益保護라고 생각하는 比率이 높으며(표 N-87), 또한 社交·친목을 위한 團體라는 比率도 敎育程度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그 比率이 높다.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敎育程度가 낮은 層에서 많았다.

(표 N-81) 敎育정도별 여성단체의 하는 일

하는 일 \ 敎育정도	중 등		고 등		대 등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 권익 보호	16	12.8	23	27.7	29	31.5	68	22.7
기능, 직업별의 단체 활동	17	13.6	15	18.1	12	13.0	44	14.7
사회, 친목 활동	15	12.0	12	14.5	17	18.5	44	14.7
봉사 활동	57	45.6	24	28.9	22	23.9	103	34.3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5	4	4	4.8	4	4.3	13	4.3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	6	4.8	—	—	3	3.3	9	3.0
부유층 여성들의 친목활동	9	7.2	5	6	4	4.3	18	6.0
무응답	—	—	—	—	1	1.1	1	0.3
Total	125	100	83	100	92	100	300	100.0

女性團體의 活動은 女性권익에 있다는 의견은, 결코 敎育程度가 높은 경우에, 奉仕活動이라고 생각하는 年齡層은 20代에서 많고, 敎育程度로 보아 中卒以下 層에서 많았다.

V. 期待하는 團體活動의 方向

女性團體에 加入해서 現在 活動을 하고 있는 女性은 그들대로 자신이 會員으로서 所屬된 團體에 대하여 강한 紐帶感을 가지고 團體의 發展을 위해서 여러 가지 意見을 提示하고 바람직한 活動을 위해 要求事項도 많을 것 이다.

한편 團體에 參與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도 團體活動에 加入하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團體가 있는 것을 몰라서였던, 관심이 없어서였던, 혹은 관심은 있으나 家事때문이었던간에 이들 나뉘므로 女性團體에 대한 意見도 가지고 있을 것이며 希望하는 事項도 많을 것 이다.

本 研究는 會員과 非會員들이 團體活動에 대해 期待하는 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希望하는 活動내용 및 프로그램

앞으로 女性團體가 어떠한 活動을 展開함이 바람직한지를 알아 보면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會員과 非會員이 거의 같은 傾向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즉 앞으로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은 실질적 운동이라는 응답이 會員 59.6%, 非會員 58.7%, 그 다음 順位가 女性全般에 관한 운동으로 각각 31.7%, 30.3%이고 이념적 운동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회원에서 7.7%, 非會員에서 10.7%로 실질적 운동이면서 女性全般에 걸친 운동을 원하는데 一致하고 있다.

<표 V-1> 연령에 따른 여성단체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

연령 앞으로 여성단체가 할 일	회 원										비 회 원									
	29세 이하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이상		Total		29세 이하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질적운동	37	53.7	27	51.9	34	68.0	26	70.3	124	59.6	30	44.1	49	59.0	63	65.0	34	65.4	176	58.7
이념적운동	7	10.1	5	9.6	2	4.0	2	5.4	16	7.7	11	16.2	10	12.1	7	7.2	4	7.7	32	10.7
여성전반에 관한운동	25	36.2	20	38.5	12	24.0	9	24.3	66	31.7	27	39.7	24	28.9	26	26.8	14	26.9	91	30.3
무 응답	—	—	—	—	2	4.0	—	—	2	1.0	—	—	—	—	1	1.0	—	—	1	0.3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68	100.0	83	100.0	97	100.0	52	100.0	300	100.0

年齡이 젊을수록 이념적 운동과 여성전반에 관한 운동이 펼쳐지기를 희망하는 比率이 높고 年齡이 많아질수록 실질적 운동을 원하는 比率이 높아지는 점도 會員과 非會員의 경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教育程度가 낮아질수록 실질적 운동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으며(특히 會員의 경우) 理念的 운동이어야 한다는 見解가 大卒 그룹에서 높은 比率인 점도 會員과 非會員이 유사하나 團體가 해야 할 일이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회원의 경우는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그 比率이 높아지나 非會員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표 V-2> 이러한 차이는 非會員들이 女性團體活動에 대해서는 막연히 非生産的인, 現實과는 거리가 먼 活動이라고 생각했은 때문이 아닌가 한다.

宗教에 따라 양자간에 심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부록표 참조)

會員들의 의견은 宗教團體 所屬會員들이 실질적 운동을 해야한다고 하는 反應이 높고 女性團體가 理念的인 운동 및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운동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기능단체 소속회원들에 게서 많았다. (부록표 참조)

加入年限이 오래된 會員일수록 실질적 운동이 되기를 바라며 年限이 짧은수록 理念的 운동 및 女性전반에 관한 계몽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표 V-3>

<표 V-2> 교육정도에 따른 여성단체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

교육정도 앞으로 여성단체가 할 일	회 원								비 회 원							
	중 준		고 준		대 준		Total		중 준		고 준		대 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질적운동	20	83.3	46	71.9	58	48.3	124	59.6	86	68.8	50	60.3	40	43.5	176	58.7
이념적운동			2	3.1	14	11.7	16	7.7	3	2.4	6	7.2	23	25.0	32	10.7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	4	16.7	15	23.4	47	39.2	66	31.7	36	28.8	27	32.5	28	30.4	91	30.3
무 응 답			1	1.6	1	0.8	2	1.0	—	—	—	—	1	1.1	1	0.3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표 V-3> 가입연한에 따른 앞으로 여성단체가 할 일

가입연한 앞으로 여성단체가 할 일	1년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질적운동	31	47.7	30	56.6	20	62.5	17	65.4	26	81.3	124	59.6
이념적운동	6	9.2	3	5.7	4	12.5	2	7.7	1	3.1	16	7.7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	27	41.6	20	37.7	7	21.9	7	26.9	5	15.6	66	31.7
무 응 답	1	1.5			1	3.1					2	1.0
Total	65	100.0	53	100.0	32	100.0	26	100.0	32	100.0	208	100.0

加入하게된 動機가 단체에서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타 活動이 마음에 들어서인 경우에 실질적 운동이기를 期待하는 反應이 높고 加入동기가 사고와 친목을 위해서와 권유에 못이겨서인 경우에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운동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V-4>

<표 V-4> 가입이유에 따른 앞으로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

가입이유 앞으로 여성단체가 할 일	여성단체 를 통해서 사회활동 을 하려고 수		특정프로 그램에 참가 하려고		사고와 친목		단체의 일이 있어서		참가 있을 것 이		권유에 못 이		기 타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질적운동	49	53.2	12	85.7	4	57.1	42	64.6	4	66.7	4	57.1			9	56.3	124	59.6
이념적운동	9	9.8					5	7.7					1	100.0	1	6.3	16	7.7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	32	34.8	2	14.3	3	42.9	18	27.7	2	33.3	3	42.9			6	37.5	66	31.7
무 응 답	2	2.2															2	1.0
Total	92	100.0	14	100.0	7	100.0	65	100.0	6	100.0	7	100.0	1	100.0	16	100.0	208	100.0

다음 <표 V-5>는 會員의 職業에 따라 희망하는 여성단체 활동을 알아본 것이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이 실질적 운동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업·서비스직 종사회원에게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주부에서였고 理念的인 운동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學生層과 전문직 종사회원에게서 많았다.

〈표 V-5〉

직업에 따른 앞으로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

직업	가정주부		학 생		사 무 직		상 세 어 비 스		기 술 직		무 자 · 가 타		무 응 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단체의 앞으로 운동																
실질적운동	70	63.6	2	50.0	11	61.1	18	81.8	16	42.1	7	46.7			124	59.6
이념적운동	8	7.3	1	25.0	1	5.6			4	10.5	1	6.9	1	100.0	16	7.7
여성전반에 관한 계몽	31	28.2	1	25.0	6	33.3	4	18.2	17	44.8	7	46.7			66	31.7
무 응 답	1	0.9							1	2.6					2	1.0
Total	110	100.0	4	100.0	18	100.0	22	100.0	38	100.0	15	100.0	1	100.0	208	100.0

非會員女性 가운데 앞으로 권유가 있으면 加入하겠다는 경우에 여성전반에 관한 운동이기를 바라는 比率이 높고 실질적 운동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加入하지 않겠다는 應答者에게서 많은 比率을 보였는데 〈표 V-6〉 이는 바꾸어 말한다면 현재의 女性團體의 活動들이 실질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加入하지 않겠다는 의견의 表現으로도 풀이될 수 있겠다.

〈표 V-6〉

가입의사에 따른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

가입의사	가입하겠다		가입하지 않겠다		무 응 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앞으로 여성단체가 해야 할 운동								
실 질 적 인 운 동	37	46.8	137	62.8	2	66.7	176	59.0
이 념 적 운 동	9	11.4	23	10.6	—	—	32	10.7
여성전반에 관한 자체계몽운동	32	40.5	58	26.6	1	33.3	91	30.3
무 응 답	1	1.3	—	—	—	—	1	—
Total	79	100.0	218	100.0	3	100.0	300	100.0

〈표 V-7〉

연령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

연령	회 원								비 회 원							
	29세 이하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이상		29세 이하		39-39세		40-49세		50세 이상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기 술 지 도	6	8.7	8	15.4	6	12.0	9	24.3	29	13.9	15	22.1	20	24.1	29	29.8
취 미 강 습	14	20.3	14	26.9	3	6.0	2	5.4	33	15.9	13	19.1	11	13.3	13	13.4
상 담	5	7.2	5	9.6	10	20.0	4	10.8	24	11.5	4	5.9	9	10.8	—	—
봉 사 활 동	8	11.6	8	15.4	15	30.0	12	32.5	43	20.7	9	13.2	18	21.7	19	19.6
학 술 적 강 연 회	10	14.5	4	7.7	3	6.0	2	5.4	19	9.1	7	10.3	2	2.4	5	5.2
시 사 적 강 연 회	3	4.4	1	1.9	2	4.0	—	—	6	2.9	1	1.5	—	—	4	4.2
교 육	7	10.1	6	11.5	4	8.0	3	8.1	20	9.6	9	13.2	13	15.7	12	12.4
견 학	—	—	—	—	1	2.0	1	2.7	2	1.0	—	—	—	—	1	1.9
바 자 회	1	1.4	—	—	—	—	—	—	1	0.5	1	1.5	—	—	—	—
사 회 계 몽 운 동	12	17.4	6	11.6	4	8.0	4	10.8	26	12.5	9	13.2	10	12.0	15	15.4
무 응 답	3	4.4	—	—	2	4.0	—	—	5	2.4	—	—	—	—	—	—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68	100.0	83	100.0	97	100.0

全般的인 活動方向도 중요하거나와 會員이나 非會員에게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至大한 관심사가 된다.

〈표 V-7〉에 보면 會員이 원하는 團體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① 취미 강습 및 기술지도 ② 봉사활동 ③ 사회계몽운동 ④ 상담 ⑤ 학술적·시사적 강연회 ⑥ 교육·전학 등의 순으로 分散되어 있으나 非會員의 경우는 ① 취미강습 및 기술지도(37%) ② 봉사활동(18%) ③ 교육·전학(16%) ④ 사회계몽운동(15%) ⑤ 학술적·시사적 강연회(7%) ⑥ 상담(6.4%) 등의 순서로 다소의 集中을 나타내고 있다.

年齡이 많은 會員은 봉사활동 희망이 많고 젊은 層에서는 각종 강연회 및 사회계몽운동에 다른 집단보다 높은 反應을 보였다.

非會員의 경우는 年齡이 적을수록 기술 및 취미강습을 원하며 年齡이 많아질수록 교육과 사회계몽운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教育程度와 원하는 프로그램과를 관련시켜 본 것이 〈표 V-8〉이다. 會員의 경우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은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比率이 높아지고 教育이나 社會계몽운동은 教育이 높은 層에서 희망하는 比率이 높다. 非會員의 경우도 유사하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이라는 응답이 教育程度가 낮은 層에서 많은 反應이 있었다.

〈표 V-8〉

교육정도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프로그램	회 원								비 회 원							
	교육정도		중		고		대		중		고		대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기술지도	3	12.5	11	17.2	15	12.5	29	13.9	31	24.8	27	32.5	14	15.2	72	24.0
취미강습	2	8.3	13	20.3	18	15.0	33	15.9	10	8.0	13	15.7	16	17.4	39	13.0
상담	5	20.8	10	15.6	9	7.5	24	11.5	10	8.0	5	6.0	4	4.3	19	6.4
봉사활동	9	37.5	16	25.0	19	15.8	43	20.7	25	20.0	12	14.5	17	18.5	54	18.0
학술적강연회	2	8.3			16	13.3	19	9.1	3	2.4	4	4.8	8	8.7	15	5.0
시사적강연회			4	6.3	2	1.7	6	2.9	2	1.6	—	—	4	4.3	6	2.0
교육	1	4.2	2	3.1	17	14.2	20	9.6	27	21.6	9	10.8	11	12.0	47	15.7
전학	1	4.2	1	1.6	1	0.8	2	1.0	1	0.8	—	—	—	—	1	0.3
바자회							1	0.5	1	0.8	—	—	1	1.1	2	0.7
사회계몽운동	1	4.2	5	7.8	20	16.7	26	12.5	15	12.0	13	15.7	17	18.5	45	15.0
무응답			2	3.1	3	2.5	5	2.4	—	—	—	—	—	—	—	—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會員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所屬團體에 따라 약간의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표 V-9〉

기능단체 소속의원은 취미·강습 등 教育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宗教團體에 속한 경우에는 상담, 봉사활동, 社會啓蒙運動을 희망하는 比率이 높다.

〈표 V-9〉

소속단체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프로그램	소속단체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기술지도	5	11.1	15	15.8	9	13.2	29	13.9		
취미강습	9	20.0	18	18.9	6	8.8	33	15.9		
상담	3	6.7	7	7.4	14	20.6	24	11.5		
봉사활동	6	13.4	23	24.2	14	20.6	43	20.7		
학술적강연회	10	2.2	5	5.3	4	5.9	19	9.1		
시사적강연회	1	2.2	5	5.3	—	—	6	2.9		
교육	6	13.4	10	10.5	4	5.9	20	9.6		
전학	—	—	2	2.1	—	—	2	1.0		
바자회	1	2.2	—	—	—	—	1	0.5		
사회계몽운동	2	4.4	8	8.4	16	23.5	26	12.5		
무응답	2	4.4	2	2.1	1	1.5	5	2.4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加入한지 얼마되지 않은 會員들은 취미강습이나 학술강연 등 교육적 프로그램을 원하며 加入해서 일정시기가 지나면 상담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및 사회 계몽운동에 관심이 더 높음을 〈표 V-10〉에서 알 수 있겠다.

〈표 V-10〉

가입연한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프로그램	가입연한		1년 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기술지도	9	13.8	7	13.2	4	12.5	6	23.1	3	9.4	29	13.9		
취미강습	15	23.1	8	15.1	6	18.7	3	11.5	1	3.1	33	15.9		
상담	5	7.7	4	7.5	4	12.5	3	11.5	8	25.0	24	11.5		
봉사활동	12	18.5	5	9.4	12	37.5	4	15.4	10	31.4	43	20.7		
학술적강연회	8	12.3	9	17.0	—	—	2	7.7	—	—	19	9.1		
시사적강연회	2	3.1	1	1.9	—	—	2	7.7	1	3.1	6	2.9		
교육	7	10.8	6	11.3	3	9.4	1	3.8	3	9.4	20	9.6		
전학	—	—	1	1.9	—	—	—	—	1	3.1	2	1.0		
바자회	1	1.5	—	—	—	—	—	—	—	—	1	0.5		
사회계몽운동	5	7.7	10	18.9	1	3.1	5	19.3	5	15.6	26	12.5		
무응답	1	1.5	2	3.8	2	6.3	—	—	—	—	5	2.4		
Total	65	100.0	53	100.0	32	100.0	26	100.0	32	100.0	208	100.0		

앞으로 단체에 加入하고자 하는 非會員은 취미강습·교육 및 사회계몽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加入하지 않겠다는 非會員은 봉사활동 등을 원하는 편이다. 〈표 V-11〉은 원하는 프로

그림을 團體에 加入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단체의 필요여부와 각각 관련시켜 보았더니 별다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표 V-11〉 가입 의사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

가입의사 원하는 프로그램	가입 하겠다		가입하지 않겠다		무응답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기술지도	18	22.8	55	25.2	—	—	73	24.3
취미강습	12	15.2	27	12.4	—	—	39	13.0
상담	4	5.1	16	7.3	—	—	20	6.7
봉사활동	10	12.6	42	19.3	1	33.3	53	17.7
학술적강연회	3	3.8	12	5.5	—	—	15	5.0
시사적강연회	4	5.1	2	0.9	—	—	6	2.0
교육	14	17.7	32	14.7	1	33.3	47	15.7
전학	—	—	1	0.5	—	—	1	0.3
바자회	—	—	2	0.9	—	—	2	0.7
사회재동운동	14	17.7	29	13.3	1	33.4	44	14.7
Total	79	100.0	218	100.0	3	100.0	300	100.0

2. 活動對象

알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운동을 떠나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團體加入한 會員이나 非會員의 共通인 바빤이었다. 이 곳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어떤 層의 女性들을 對象으로 展開함이 所望스러운 方向인가를 알아 보았다.

〈표 V-12〉 교육 정도별 대상계층

교육정도 상대하는 계층	회 원								비 회 원							
	중졸이하		고졸정도		초대졸이상		Total		중졸이하		고졸정도		대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전체	1250.0		3554.7		5949.1		10651.0		5342.4		4453.0		4043.5		13745.7	
도시중상층여성	28.3		57.8		1613.3		2311.0		43.2		—		44.3		82.7	
도시중하층여성	312.5		23.1		1714.2		2210.6		2620.8		1315.7		2122.8		6020.0	
농어촌여성	312.5		34.7		54.2		115.3		2217.6		1720.5		1112.0		5016.6	
근로여성			1218.8		119.2		2311.0		2016.0		910.8		1314.1		4214.0	
소속단체여성			23.1		97.5		115.3		—		—		33.3		31.0	
무응답	416.7		57.8		32.5		125.8		—		—		—		—	
Total	24100		64100		120100		20899.9		125100		83100		92100		300100	

〈표 V-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會員의 경우 國民全體를 對象으로 해야한다가 51%, 도시 中上層女性과 勤勞女性을 對象으로 해야한다가 각각 11%, 都市의 中下層女性이 10.6%인데 非會員의 反應은 國民 전체 (45.7%), 都市中下層女性 (20%), 농어촌女性 (16.6%), 근로여성 (14.0%)의 순으로 나타나 會員과 非會員 간에 다소 다른 傾向을 보이고 있다.

國民全體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양자 모두 高卒教育에서 가장 많으며 都市中上層을 對象으로 생각하는 比率는 會員중에서도 大卒 教育程度에서 높다. 對象을 勤勞女性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會員에서는 高卒응답자에게서, 非會員에서는 中卒응답자가 많은 反應을 보였다.

〈표 V-13〉

연령별 대상 계층

연령 상대계층	연령									
	29세이하					30세-39세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전체	29	42.0	25	48.0	31	62.0	21	56.8	106	51.0
도시중상층여성	9	13.1	8	15.4	4	8.0	2	5.4	23	11.1
도시중하층여성	8	11.6	7	13.5	3	6.0	4	10.8	22	10.6
농어촌여성	6	8.7	2	3.8	1	2.0	2	5.4	11	5.3
근로여성	16	23.2	3	5.8	1	2.0	3	8.1	23	11.0
소속단체여성	1	1.4	3	5.8	4	8.0	3	8.1	11	5.3
무응답			4	7.7	6	12.0	2	5.4	12	5.8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연령 상대계층	비연령									
	29세이하					30-39세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전체	23	33.8	38	45.8	51	52.6	25	48.0	137	46.0
도시중상층여성	4	5.9	4	4.8	—	—	—	—	8	2.7
도시중하층여성	17	25.0	17	20.5	21	21.6	5	9.6	60	20.0
농어촌여성	14	20.6	11	13.3	14	14.4	11	21.2	50	16.6
근로여성	10	14.7	12	14.4	9	9.3	11	21.2	42	14.0
소속단체여성	—	—	1	1.2	2	2.1	—	—	3	0.7
무응답	—	—	—	—	—	—	—	—	—	—
Total	63	100.0	83	100.0	97	100.0	52	100.0	300	100.0

年齡이 많은 경우에 國民 전체를 對象으로 해야 한다는 反應이 높고 都市中下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傾向은 年齡이 젊은 層에, 그리고 勤勞女性을 대상으로 여기는 의견은 젊은 會員과 年齡이 많은 非會員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13〉

會員들이 기능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國民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平均보다 아주

낮으며 都市中上層, 農漁村女性, 勤勞女性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V-14>

<표 V-14>

소속 단체에 따른 상대계층

상대계층	국민전체		농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전체	14	31.1	50	52.5	42	61.8	106	51.0
도시 중상층 여성	7	15.6	13	13.7	3	4.4	23	11.1
도시 중하층 여성	4	8.9	11	11.6	7	10.3	22	10.6
농어촌 여성	6	13.3	3	3.2	2	2.8	11	5.3
근로여성	12	26.7	3	3.2	8	11.8	23	11.0
소속단체 여성	1	2.2	5	5.3	5	7.4	11	5.3
무응답	1	2.2	10	10.5	1	1.5	12	5.8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團體에 加入한지 오래된 會員에서 (10年以上) 國民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比率이 아주 높으며, 年限이 오래될수록 都市中下層女性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反應이 높아 짐은 <표 V-15>에서 알 수 있다. 또한 加入한지 얼마 안되는 會員들은 都市中上層女性을 對象으로 해 주기

<표 V-15>

가입 연한에 따른 상대계층

상대계층	1년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민전체	34	52.3	24	45.3	12	37.5	14	53.9	22	68.7	106	51.0
도시 중상층 여성	9	13.8	7	13.2	3	9.4	1	3.8	3	9.4	23	11.1
도시 중하층 여성	3	4.6	8	15.1	5	15.6	5	19.3	1	3.1	22	10.6
농어촌 여성	4	6.2	3	5.6	3	9.4	1	3.8			11	5.3
근로여성	5	7.7	9	17.0	4	12.5	1	3.8	4	12.5	23	11.0
소속단체 여성	7	10.8	1	1.9	3	9.4					11	5.3
무응답	3	4.6	1	1.9	2	6.3	4	15.4	2	6.3	12	5.8
Total	65	100.0	53	100.0	32	100.0	26	100.0	32	100.0	208	100.0

따라는 反應이 平均보다 높으며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소속단체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會員들이 단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國民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64% 가량) 團體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會員들은 活動對象을 都市中上層女性이나 勤勞女性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 표 참조>

非會員女性들이 생각하는 女性團體活動의 對象階層은 국민전체라야 한다는 의견이 中流地域에서

가장 높고 상층지역이 그 다음이며 下流층 地域에서 가장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표 V-16>

(표 V-16) 非會員 居住地域別 대상계층

소재구 대상계층	상복동	응암동	전농동	합 계	
	실 수	실 수	실 수	실 수	%
국 민 전 체	50	58	29	137	45.7
도시 중상층 여성	1	4	3	8	2.7
도시 중하층 여성	18	15	27	60	20.0
농 어 촌 여 성	19	8	23	50	16.7
근 로 여 성	10	14	18	42	14.0
소 속 단 체 회 원	2	1		3	1.0
합 계	100	100	100	300	100.1

下流층 地域 居住女性들은 女性團體活動은 都市의 中下層女性, 農漁村女性 및 勤勞女性을 對象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居住地域 階層에 따라 對象을 생각하는 데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女性團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女性보다 不必要하다고 보는 女性들이 團體活動의 對象을 國民全體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都市中下層女性을 對象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표 V-17>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현재의 團體活動이 一部 都市의 特殊女性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團體活動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게 되지 않았나 한다.

(표 V-17) 여성단체 필요여부에 대한 대상계층

대상계층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무응답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국 민 전 체	119	45.5	17	50.1			1	33.3	137	45.7
도시 중상층 여성	8	3.1							8	2.7
도시 중하층 여성	49	18.8	8	23.5	1	50.0	2	66.6	60	20.9
농 어 촌 여 성	47	18.0	3	8.8					50	16.7
근 로 여 성	36	13.8	5	14.7	1	50.0			42	14.0
소 속 단 체 회 원	2	0.8	1	2.9					3	1.0
Total	261	100.0	34	100.0	2	100	3	99.9	300	100.1

3. 女性團體의 問題點과 要望事項

女性團體가 어떠한 問題點들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位置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指導者의 位置에서 보는 問題點과 非會員이 느끼는 問題點과 다를 것이며 會員과 非會員과도 다를 것이다. 指導層人士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問題點 把握도 團體의 바람직한 活動方向 모델에 중요하겠지만 非會員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本 研究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①問題點이 무엇인지 ②女性活動을 하는 團體數에 대한 意見과 ③끝으로 이들 會員과 非會員이 團體에 대해 바라는 바가 어떠한 것 인지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① 女性團體의 문제점.

〈표 V-18〉에 의하면 會員들은 女性團體의 문제점이 ① 유사한 사업(30.8%) ② 목적과 실제 활동의 차이(26.9%) ③ 특수층 여성 상대(14.4%) ④ 도시 중심적(9.6%) 등이라고 보는데 비

〈표 V-18〉 교육정도에 따른 여성단체의 문제점

교육정도 여성단체 문제점	회 원								비 회 원							
	중졸이하		고졸정도		대 졸		Total		중졸이하		고졸정도		대 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목적과 실제활동차이	10	41.7	21	32.8	25	20.8	56	26.9	29	23.2	14	16.9	20	21.7	63	21.0
유사한 사업	3	12.5	17	26.6	44	36.7	64	30.8	5	4.0	14	16.9	18	19.6	37	12.4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			6	9.4	6	5.0	12	5.8	13	10.4	11	13.2	10	10.9	34	11.3
특수층 여성 상대	3	12.5	7	10.9	20	16.7	30	14.4	41	32.8	23	27.7	25	27.2	89	29.7
지나치게 직업 기 능							—	—	1	0.8	—	—	—	—	1	0.3
도시 중심적			5	7.8	15	12.5	20	9.6	19	15.2	15	18.1	14	15.2	48	16.0
활동 소극적			3	4.7	7	5.8	10	4.8	17	13.6	6	7.2	4	4.3	27	9.0
무 응답	8	33.3	5	7.8	3	2.5	16	7.7	—	—	—	—	1	1.1	1	0.3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해 비회원 女性들은 女性團體가 ①특수층 여성 상대(29.7%) ②목적과 실제 활동의 차이 (21%) ③도시 중심적(16%) ④유사한 사업(12.4%) ⑤실제활동 않는 단체가 많다(11.3%)고 하여 局外

〈표 V-19〉 연령에 따른 단체의 문제점

연 령 여성단체 문제점	회 원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목적과 실제 활동차이	18	26.1	12	23.1	15	30.0	11	29.8	56	26.9
유 사 한 사 업	18	26.1	21	40.4	17	34.0	8	21.6	64	30.8
실제활동않는 단체가 많다	7	10.1	1	1.9	1	2.0	3	8.1	12	5.8
특 수 층 여 성 상 대	13	18.9	6	11.5	5	10.0	6	16.2	30	14.4
지나치게 직업 기 능	—	—	—	—	—	—	—	—	—	—
도 시 중 심 적	9	13.0	7	13.5	2	4.0	2	5.4	20	9.6
활 동 소 극 적	4	5.8	2	3.8	1	2.0	3	8.1	10	4.8
무 응답			3	5.8	9	18.0	4	10.8	16	7.7
Total	69	100.0	52	100.0	50	100.0	37	100.0	208	100.0

〈표 V-19〉

연령 여성단체 문제점	비회원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목적과 실제 활동차이	14	20.6	16	19.3	21	21.6	12	23.1	63	21.0
유사한 사업	9	13.2	8	9.6	9	9.3	11	21.2	37	12.4
실제 활동하는 단체가 많다	6	8.8	5	6.0	18	18.6	5	9.6	34	11.3
특수 여성 상태	19	27.9	31	37.4	25	25.8	14	26.9	89	29.7
저나치계 직업 기능적	—	—	—	—	1	1.0	—	—	1	0.3
도시 중심적	14	20.6	13	15.7	14	14.4	7	13.4	48	16.0
활동 소극적	5	7.4	10	12.0	9	9.3	3	5.8	27	9.0
무응답	1	1.5	—	—	—	—	—	—	1	0.3
Total	68	100.0	83	100.0	97	100.0	52	100.0	300	100.0

者の立場에서 문제점提示가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非會員女性들이 지적한 문제점 중 對象面에서의 制限性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團體活動의 擴大계획에 많은 示唆를 준다고 했다.

會員들의 경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목적과 실제활동의 차이 즉 活動內容에 대한 點을 들고 있고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유사한 團體의 活動이 問題라는 比率이 높고 都市의 특수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들고 있어 加入한 위치에서 自己反省의 表現이 教育程度가 높은 層에서 강하다 하겠다.

年齡이 30~40대인 會員에게서 유사한 사업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으며, 20대에서 都市 中心的이며 특수層 女性을 상대로 하는 점이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높다. 〈표 V-20〉

非會員의 경우는 年齡이 많은 女性들이 문제점이 유사한 사업이라는 反應이 높고 年齡이 적

〈표 V-20〉

소속 단체에 따른 여성단체 문제점

소속단체 여성단체의 문제점	기능단체		봉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목적과 실제 활동과의 차이	15	33.4	17	17.9	24	32.3	56	26.9
유사 사업 단체가 많다	10	22.2	40	42.1	14	20.6	64	30.8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많다	6	13.3	4	4.2	2	2.9	12	5.8
너무 특수층 여성을 상대로	6	13.3	12	12.6	12	17.7	30	14.4
저나치계 직업 기능적	0	—	0	—	0	—	0	—
도시 중심적	5	11.1	6	6.4	9	13.3	20	9.6
활동 소극적	2	4.5	4	4.2	4	5.9	10	4.8
무응답	1	2.2	12	12.6	3	4.4	16	7.7
Total	45	100.0	95	100.0	68	100.0	208	100.0

을수록 도시중심적이고 특수층 여성상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比率이 높다.

〈표 V-21〉은 會員들이 어떤 종류의 단체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본 것으로 기능 단체와 宗教團體에 所屬된 會員은 목적과 실제활동의 차이가 문제라 보고 있으며, 봉사·친목단체 會員은 유사사업단체가 많음이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시중심적이며, 지나치게 특수층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宗教團體 所屬會員들이 다른 단체 소속회원보다 많은 비율로 지적하고 있다.

團體에 加入한 時日이 지나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團體들이 많음을 알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고, 단체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加入하고 보니 목적과 실제 활동에 차이가 있으며 권유에 의해서 加入은 했지만 女性團體가 특수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문제라 보고 있다. 〈부록 표 참조〉

소속團體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會員은 목적과 實際活動에 차이가 있음이 문제라 보며, 만족하는 會員보다 그지 그렇다고 여기는 會員은 각 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록표 참조〉

會員간에 交流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會員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목적과 實際活動의 차이이며, 교류가 잘 안된다고 보는 會員은 유사한 사업전개가 문제고 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부록표 참조〉

非會員의 居住地域別로 볼 때 上層地域에서는 여성단체가 특수층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점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은 것이 그 문제점이라고 보며, 中流層地域에서는 단체목적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 및 특수층 여성 상대인 점, 下流層地域에서는 도시의 특수층 女性을 상대로 소극적 활동을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 〈표 V-21〉

〈표 V-21〉 소재구에 따른 여성단체의 문제점

단체의 문제점	소재구			Total	
	성 북 동	용 암 동	진 농 동	실 수	%
단체 목표와 실제활동과의 차이	19	27	17	63	21.0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다	23	14	—	37	12.3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많다	8	17	9	34	11.3
특수층 여성 상태	31	14	34	89	29.8
지나치게 직업 기능적	—	—	1	1	0.3
도시 중심적	14	15	19	48	16.0
활동 방법이 소극적	5	2	20	27	9.0
무응답	—	1	—	1	0.3
Total	100	100	100	300	100.0

현재 團體에 加入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加入할 의사가 있는 女性은 목표와 실제 활동과 거리가 멀고, 특수층 여성만을 상대로 都市 中心的인 소극적 활동을 벌이는 것이 問題點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는 加入할 의사가 없는 應答者는 團體의 問題點이 특수층 여성을 상대로 한

다는 점과 목표와 실제 활동과 차이가 많다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 <표 V-22>

(표 V-22) 가입 의사에 따른 여성단체 문제점

여성단체 가입의사 단체의 문제점	가입 하겠다		가입 하지 않겠다		무응답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목표와 실제 활동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18	22.8	45	20.6			63	21.0
유사 단체 수가 많다	9	11.4	28	12.8			37	12.4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많다	9	11.4	24	11.0	1	33.3	34	11.3
너무 특수층 여성만을 상대로 한다	18	22.8	69	31.7	2	66.7	89	29.7
지나치게 직업기능적	—	—	1	0.5			1	0.3
도시 중심적	14	17.7	34	15.6			48	16.0
활동이 소극적	11	13.9	16	7.3			27	9.0
무응답	—	—	1	0.5			1	0.3
Total	79	100.0	218	100.0	3	100.0	300	100

② 活動團體數에 대한 意見

현재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3분의 1 가량이 여성단체의 문제점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수가 너무 많다고 하였다. 이 곳에서는 女性團體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하는 점과, 이들 회원과 비회원이 생각하기에 몇개 團體가 있으면 적절한가라는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표 V-23>와 같이 현존하는 團體數에 대한 認識程度는 다양하다. 中卒以下の 教育程度에서

(표 V-23) 교육 정도에 따른 여성 단체의 수

여성 단체의 수	중졸 이하		고졸		대졸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10개 미만	8	33.3	5	7.8	15	12.5	28	13.5
10개~20개	3	12.5	7	10.9	12	10.0	22	10.6
21개~30개	2	8.3	3	4.7	11	9.2	16	7.7
31개~60개	1	4.2	7	10.9	28	23.3	36	17.3
61개~80개			11	17.2	17	14.2	28	13.4
81개~100개	2	8.3	4	6.3	9	7.5	16	7.7
100개 이상	1	4.2	2	3.1	6	5.0	8	3.8
모르겠다			2	3.1	5	4.2	7	3.4
무응답	7	29.2	23	36.0	17	14.1	47	22.6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0

는 33% 가량의 응답자가 10개 미만의 團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현존

단체수에 가까운 수치를 들고 있다.⁽¹⁾

그러면 몇 개 정도의 團體가 있으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 <표 V-24>와 같이 會員의 32% 가량이 10個 미만이면 된다고 하며, 11~50개가 이상적 숫자라는 응답은 16% 가량이다. 또한 非會員들은 51~100개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31%), 그 다음이 11~50개 단체, 10개

<표 V-24> 교육 정도에 따른 여성단체의 이상적 숫자

여성단체의 이상적 숫자	회 원								비 회 원							
	중졸이하				고졸정도				중졸이하				고졸정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개만			1	1.6	1	0.8	2	1.0	4	3.2	6	7.2	11	11.9	21	7.0
2~5개	10	41.6	13	20.3	16	13.4	39	18.7	10	8.0	9	10.9	14	15.2	33	11.0
6~10개			5	7.8	23	19.2	28	13.5	7	5.6	6	7.2	12	13.0	25	8.3
11~50개	2	8.3	13	20.3	18	15.0	33	15.9	29	23.2	27	32.6	23	25.0	79	26.3
51~100개			2	3.1	7	5.9	9	4.3	53	42.4	24	28.9	16	17.4	93	31.0
100개 이상	1	4.2			6	5.0	7	3.4	10	8.0	5	6.0	3	3.3	18	6.0
말을수록 좋다	1	4.2			1	0.8	2	1.0	4	3.2	3	3.6	1	1.1	8	2.7
기능별 1개씩			1	1.6	4	3.3	5	2.4	—	—	1	1.2	2	2.2	3	1.0
모르겠다			1	1.6	4	3.3	5	2.4	2	1.6	1	1.2	2	2.2	5	1.7
기 타					1	0.8	1	0.5	—	—	—	—	—	—	—	—
무응답	10	41.7	28	43.7	39	32.5	77	37.0	6	4.8	1	1.2	8	8.7	15	5.0
Total	24	100.0	64	100.0	120	100.0	208	100.1	125	100.0	83	100.0	92	100.0	300	100.0

미만이 19% 가량이며, 女性團體는 1個면 족하다는 意見도 7%나 된다.

會員의 37%가 응답을 하지 않아 정확한 比較는 어려우나 非會員이 會員보다 더 많은 數의 團體를 希望한다고 볼 수 있겠다. 會員 가운데서도 중졸의 교육정도에서는 대부분의 회원이 (무응답 제외) 단체가 5개 미만이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고 大卒그들에서는 좀 더 團體數가 많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非會員의 경우에는 教育程度가 높은 집단에서 團體數가 적은 것을 원하며 낮을수록 단체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團體에 加入하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없거나 加入方法을 몰라서 못했다는 非會員들은 團體數가 많아 加入이 容易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으며 <표 V-25> 團體에 대해 否定的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加入하지 않은 女性의 경우에는 團體數도 적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非會員 가운데서도 女性團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단체수가 많기를 바라며, 불필요하다는 경우에는 團體數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意思表示를 하고 있음을 <표 V-26>에서 알 수 있다.

應答者의 居住地가 上層地域에서 보다 下流層地域일 경우 女性團體數가 많아서 都市中下層 女

(1)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女性團體의 수는 53個 團體이며 자세한 것은 본 연구의 부록편 참조바람.

性까지도 그 對象으로 해주기 바라는 反應이었음도 부기 해 둔다. 〈부록표 참조〉

〈표 V-25〉 여성단체 불가입 이유에 따른 여성단체의 이상적 숫자

단체인 불가입이유	관심이 없어서	가입방법 을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여성단체 라는그자 가싫어	단체에모 임이싫어	돈이 드니까	집안 일이많아	여성단체 가무슨활 동하는지 몰라서	기 타	Total
여성단체의 이상적숫자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무 응 답	6 9.2		6 3.8					1 3.7	222.2	15 5.0
1개만 필 요	4 6.2	2 13.3	7 4.4		480.0		2 14.3	2 7.4		21 7.0
2~5개	7 10.8	1 6.7	18 11.4	266.7	120.0		1 7.1	3 11.1		33 11.0
6~10	11 16.9		11 7.0				1 7.1		222.2	25 8.3
11~50	11 16.9	533.3	4830.4	133.3		250.0	535.8	4 14.8	333.4	7926.3
51~100	1624.6	640.0	5031.6			250.0	428.6	14 51.9	111.1	9331.0
100개 이상	4 6.2		10 6.3					3 11.1	111.1	18 6.0
말을수록 좋다	3 4.6	1 6.7	4 2.5							8 2.7
기능별로 1개씩			2 1.3				1 7.1			3 1.0
모 르 겠 다	3 4.6		2 1.3							5 1.7
Total	65 100	15 100	158 100	3 100	5 100	4 100	14 100	27 100	9 100	300 100

〈표 V-26〉 필요 여부에 따른 이상적 숫자

필요여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무 응 답	Total
이상적숫자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무 응 답	13 5.0	2 5.9			15 5.0
1개 만 필 요	15 5.7	6 17.6			21 7.0
2-5개	27 10.3	4 11.8	2 100.0		33 11.0
6-10개	21 8.0	4 11.8			25 8.3
11-50개	74 28.4	4 11.8		1 33.3	79 26.3
51-100개	83 31.8	8 23.5		2 66.6	93 31.0
100개이상	16 6.1	2 5.9			18 6.0
말을수록 좋다	8 3.1	— —			8 2.7
기능별로 1개씩	2 0.8	1 2.9			3 1.0
모 르 겠 다	2 0.8	3 8.8			5 1.7
Total	26 100.0	34 100.0	2 100.0	3 100.0	300 100.0

③ 團體에 대한 要望事項

女性團體活動의 期待되는 方向이 무엇인지를 把握하기 위해 會員과 非會員女性들이 團體에 대해 바라는 바가 어떠한 內容들인지 알아 보았다.

〈표 V-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團體에 加入한 會員들은 團體가 ① 여성·청소년을 위한 봉사 활동 (25.5%) ② 적극적 활동과 문화개방(24.1%) ③ 실질적 운동(13.1%) ④ 육사단체의 통합

과 재정확보(11.7%) 및 ⑤ 여성지위 향상과 지도자 육성에 힘써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적극적 활동과 문호개방을 바라는 의견은 기능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봉사·친구단체인 宗教단체는 문호개방에 대한 비율이 平均보다 아주 낮다. 실질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기능단체에서 많고 宗教團體에서는 아주 적은 응답을 보여 주었다.

〈표 V-27〉

소속 단체별 요망사항

요망사항	소속단체		기능단체		봉사친목단체		종교단체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극적인 활동과 문호개방	9	2.0	15	26.8	9	18.0	33	24.1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2	6.5	1	1.8	8	16.0	11	8.0		
실질적 운동	6	19.4	10	17.9	2	4.0	18	13.1		
법외성단체 활동	—		3	5.4	5	10.0	8	5.8		
유사단체의 통합과 재정확보	4	12.9	9	16.1	3	6.0	16	11.7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	7	22.6	14	25.0	14	28.0	35	25.5		
지도자 육성	1	3.2	3	5.4	1	2.0	5	3.6		
없다	2	6.5	1	1.8	8	16.0	11	8.0		
Total	31	100	56	100	50	100.0	137	100		

※ 무응답 제외

年齡이 적을수록 단체가 적극적 활동과 문호를 개방하고 실질적 운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고 女性地位向上에 힘썼으면 하는 反應은 年齡이 높은 層에서 많았다. 〈표 V-28〉

〈표 V-28〉

연령에 따른 요망사항

요망사항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극적인 활동과 문호개방	12	29.3	10	25.6	6	22.2	5	16.7	33	24.1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2	4.9	3	7.7	2	7.4	4	13.3	11	8.0		
실질적 운동	9	22.0	5	12.8	2	7.4	2	6.7	18	13.1		
법외성단체 활동	4	9.8	1	2.6	1	3.7	2	6.7	8	5.8		
유사단체의 통합과 재정확보	4	9.8	6	15.4	2	7.4	4	13.3	16	11.7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	6	14.6	11	28.2	9	33.3	9	30.0	35	25.5		
지도자 육성	1	2.4	2	5.1	2	7.4	—		5	3.6		
없다	3	7.3	1	2.6	3	33.3	4	13.3	11	8.0		
Total	41	100	39	100.0	27	100	30	100.0	137	100		

敎育程度가 낮을수록 적극적 활동과 문호개방을 바라며 실질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敎育程度가 높은 女性에게서 많았다. 〈표 V-29〉

宗教가 없는 會員들이 적극적 활동과 문호개방을, 그리고 실질적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비율이

〈표 V-29〉

교육정도에 따른 요망사항

요망사항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정도		초대졸+대졸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극적인 활동과 문호개방	4	33.3	13	31.7	16	19.0	33	24.1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1	8.3	1	2.4	9	10.7	11	8.0		
실질적 운동	1	8.3	3	7.3	14	16.7	18	13.1		
범여성단체 활동	—		4	9.8	4	4.8	8	5.8		
유사단체의 통합과 재정확보	—		6	14.6	10	11.9	16	11.7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	4	33.3	9	22.0	22	26.2	35	25.5		
지도자육성	—		—		5	6.0	5	3.6		
없다	2	16.7	5	12.2	4	4.8	11	8.0		
Total	12	100	41	100.0	84	100	137	100		

높았다. 〈부록표 참조〉

이들이 團體에 加入한 年限에 따라 어떠한 要望事項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것이 〈표 V-30〉이다. 즉 적극적인 활동과 문호개방을 바라는 比率은 加入연한이 얼마 되지 않을수록 높아지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加入한 年수가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층과 아주 적은 1년 미만층에서 많다.

〈표 V-30〉

가입 연한에 따른 요망사항

요망사항	가입연한		1년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극적인 활동과 문호개방	12	27.9	8	25.8	6	24.0	2	16.7	5	19.2	33	24.1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2	4.7	2	6.5	3	12.0	—		4	15.4	11	8.0		
실질적 운동	3	7.0	5	16.1	6	24.0	3	25.0	1	3.8	18	13.1		
범여성단체 활동	2	4.7	3	9.7	2	8.0	—		1	3.8	8	5.8		
유사단체의 통합과 재정확보	5	11.6	3	9.7	1	4.0	2	16.7	5	19.2	16	11.7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	12	27.9	7	22.6	3	12.0	3	25.0	10	38.5	35	25.5		
지도자육성	2	4.7	—		1	4.0	2	16.7	—		5	3.6		
없다	5	11.6	3	9.7	3	12.0	—		—		11	8.0		
Total	43	100	31	100	25	100.0	12	100	26	100	137	100		

非會員들은 會員과는 달리 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기 바라며 (43.4%) ② 女性團體의 문호개방과 적극적 P.R. (28.4%) ③ 女性地位向上에 힘썼으면 (12.8%) 하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표 V-31〉에 보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일을 要望하는 比率은 中후이하층과 大후以上層에서 많으며, 여성단체의 문호개방과 적극적 P.R.을 바라는 응답은 高후정도의 非會員에서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

(표 V-31)

교육정도에 따른 요망사항

요망사항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단체의 문호개방과 적극적 P.R.	39	31.2	29	34.1	23	20.9	91	28.4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11	8.8	14	16.5	16	14.5	41	12.8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일을 했으면	58	46.4	30	35.3	51	46.4	139	43.4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선도, 봉사 활동에 주력	11	8.8	6	7.1	5	4.5	22	6.9		
단체 수를 줄였으면	—		3	3.5	12	10.9	15	4.7		
없 다	6	4.8	3	3.5	3	2.7	12	3.8		
Total	125	100.0	85	100.0	110	100	320	100.0		

團體의 문호개방을 희망하는 比率은 下流層地域에서 높고 女性의 지위向上 및 단체수를 줄였으면 하는 反應은 上流層居住地域 응답자에게서 높음을 알수 있다. (표 V-32)

團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체의 문호개방과 PR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불필요하다는 경우보다 높으며, 女性地位向上,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썼으면 하는 응답도 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女性에게서 많다(표 V-33)

(표 V-32)

소재구에 따른 요망사항

요망사항	소재구		성 북 동		용 양 동		진 농 동		Total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여성단체의 문호개방과 적극적 P.R.	24	21.2	33	28.4	34	37.4	91	28.4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16	14.2	14	12.1	11	12.1	41	12.8		
실 생활에 도움이되는 일을 했으면	50	44.2	57	49.1	32	35.2	139	43.4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선도 봉사 활동에 주력	6	5.3	9	7.8	7	7.7	22	6.9		
단체 수를 줄였으면	11	9.7	3	2.6	1	1.2	15	4.7		
없 다	6	5.3	—		6	6.6	12	3.8		
Total	113	100	116	100.0	91	100	320	100.0		

(표 V-33)

단체 필요여부에 따른 요망사항

요망사항	필요여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무 응 답		Total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실 수	%
여성단체의 문호개방과 적극적 P.R.	81	28.9	8	22.6	—		2	66.6	91	28.4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면	40	14.3	1	2.9	—		—		41	12.8		
실 생활에 도움이되는 일을 했으면	120	42.9	17	48.6	2	100.0	—		139	43.4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선도 봉사 활동에 주력	21	7.5	1	2.9	—		—		22	6.9		
단체 수를 줄였으면	10	3.6	5	14.3	—		—		15	4.7		
없 다	8	2.9	3	8.6	—		1	33.3	12	3.8		
Total	280	100	35	100	2	100.0	3	100	320	100.0		

한편 團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女性團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비율이 높고 단체수를 줄였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平均보다 높은 比率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까지 간략히 살펴본 이들 응답자들의 團體에 대한 要望事項은 앞서 團體活動의 問題點에 대해 指摘했던 內容과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VI. 要 約

本 研究는 각종 女性團體組織을 통해, 그리고 現在 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會員들과, 女性 團體에 加入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을 통해 女性團體 活動現況과 參與關係 및 女性團體에 대한 그들의 評價와 앞으로의 團體活動을 위해 期待하는 바 등을 들어 보았다.

얻어진 意見과 發見된 事實들을 要約하되로서 結論에 대신하고자 한다.

① 團體의 實態面에서 볼 때 대부분의 團體가 서울에 集中되어 있으며 대상 57個 단체중 55個 단체가 서울에 所在, 서울에서도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다.

각 團體는 支會를 두고 있으나 組織의 擴散이 中小都市에 그쳐 전반적으로 과급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支會와의 紐帶도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대부분의 團體는 安定된 財政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직업기능별 단체에서는 會員의 會費로 運營하는 경향이다.

③ 團體의 指導者의 役割은 團體의 實務까지 총 지휘해야 할 정도 (66%)이며 指導者 즉 會長의 交替는 民主的인 節次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한편 團體의 民主的인 運營을 위한 會議의 開催頻度는 낮았다.

④ 團體의 規模와 參與程度와는 逆의 關係로 나타났다. 즉 會員數가 많은 團體일수록 加入會員들의 活動參與도가 낮았다.

⑤ 職場女性의 參與率이 家政主婦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團體에 加入할 때 親知의 勸誘를 받아 團體의 目的에 同調하여 加入하는 경향은 教育程度가 낮은 層에서 볼 수 있으며 教育程度가 높은 會員은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⑦ 所屬團體의 性格에 따라 會員들의 參與形態가 다를 수 있다. 즉 宗教的인 團體會員은 所屬感도 강하게 느끼며 團體의 活動에 대해 긍정적인 態度를 가지고 參與도가 높은 반면에 機能的인 團體所屬會員들은 그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⑧ 團體에의 參與는 會員間의 交流와 指導層과의 친밀한 關係유지와 관련이 깊다. 즉 會員간 에 교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및 지도층과 친밀한 關係가 유지되는 경우에 團體에 대한 參與도도 높고 團體活動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낀다.

機能團體 所屬會員인 경우 交流관계가 적고, 教育程度가 높은 會員일수록 會員間의 交流에 否定的이다.

⑨ 團體活動參與는 家族構成과 관련이 있어 核家族에서의 參與가 높으며 通念과는 달리 家事를 들을 家政婦나 기타 가족원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참여가 높다. 子女數보다는 막내子女가 어느정도 主婦의 보호가 필요한 年齡에 있는가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⑩ 女性團體에 加入하지 않은 非會員들은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젊은 世代일수록 女性團體에 대한 認識程度가 높으나 時間이 없어서 團體에 加入하지 못하였고 教育程度가 낮은 女性들은 女性團體를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⑪ 現在 여성단체에 加入하고 있지 않으나 권유한다면 加入意思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反應은 나타나지 않았다. 年齡이 많은 女性과,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女性團體에의 加入意思도 낮았다.

加入을 希望하는 理由중에서 가장 많은 反應이 自己發展을 위해서였다. 만일 加入하게 된다면 봉사활동하는 단체와 技術習得을 할 수 있는 단체에 加入하기를 원하고 있다.

⑫ 非加入女性들의 대다수(87%)가 단체의 必要性을 주장하고 있다.

教育程度가 높은 女性일수록 團體의 必要性을 主張하고 있으며, 필요한 이유로는 女性의 能力開發, 女性의 權益保護, 奉仕活動을 위해서 등을 들고 있다.

團體의 必要性에 대한 認定은 이들이 參加會員들을 긍정적으로 볼 때 높다.

⑬ 團體에 加入하고 있지 않은 女性들이 보기에 團體에 加入한 會員들은 中의 上層에 속하는 女性들이라고 하고 있다. 특수층 혹은 上流層에 있는 할 일 없는 女性들의 모임으로 도시중심적 이다라는 否定的인 意見도 적지 않았다.

女性團體會員들에 대한 이들의 態度가 肯定的이면 團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否定的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⑭ 女性團體는 주로 ㉠奉仕活動, ㉡女性의 權益保護, ㉢社交親睦을 하고 있다고 會員이나 非會員女性이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女性團體가 할 일은 實質的인 運動이어야 한다는 意見은 教育程度가 낮은 層에서 많았고 教育程度가 높은 層에서는 理想的인 運動을 展開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⑮ 이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취미강습 및 技術指導와 奉仕活動 등이며 특히 會員들은 社會啓蒙運動을 원하고 非會員은 教育과 見學 등을 원하는 경향이었다.

年齡이 많은 層은 奉仕活動에 관심을, 年齡이 젊은 層은 教育, 講演會 및 社會啓蒙에 관심이 깊다.

⑯ 이들 女性들이 지적한 女性團體의 問題點은 會員과 非會員이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주 會員들은 단체의 문제점이 ㉠類似事業을 하는 단체가 많고, ㉡목적과 實際活動의 차이, ㉢특수층여성들 상대로 活動을 展開함이라고 보는 데 비해 非會員女性들이 지적한 것은 ㉠特殊層女性을 상대로 활동하고, ㉡目的과 實際活動에 차이가 나며, ㉢都市中心的인 活動이라고 局外者의 立場에서 團體活動을 평가하고 있다.

⑰ 現存하는 女性團體는 70여개 단체인데도 類似團體가 많아 活動에 있어 중복과 난립의 성격

을 댈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類似團體를 統合해서 團體의 數는 적더라도 유기적 關係를 맺으면서 機能的 活動을 展開해 달라는 것이 會員女性들의 希望이다.

이와는 反對로 非會員女性들은 단체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反應을 보여 이들이 團體에 加入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指摘된 바 있지만 女性團體가 있는지를 몰라서 加入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물랐던 이유가 團體의 P.R.이나 對象範圍에서의 어떤 制限點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마치 團體의 數가 不足해서인 것으로 생각 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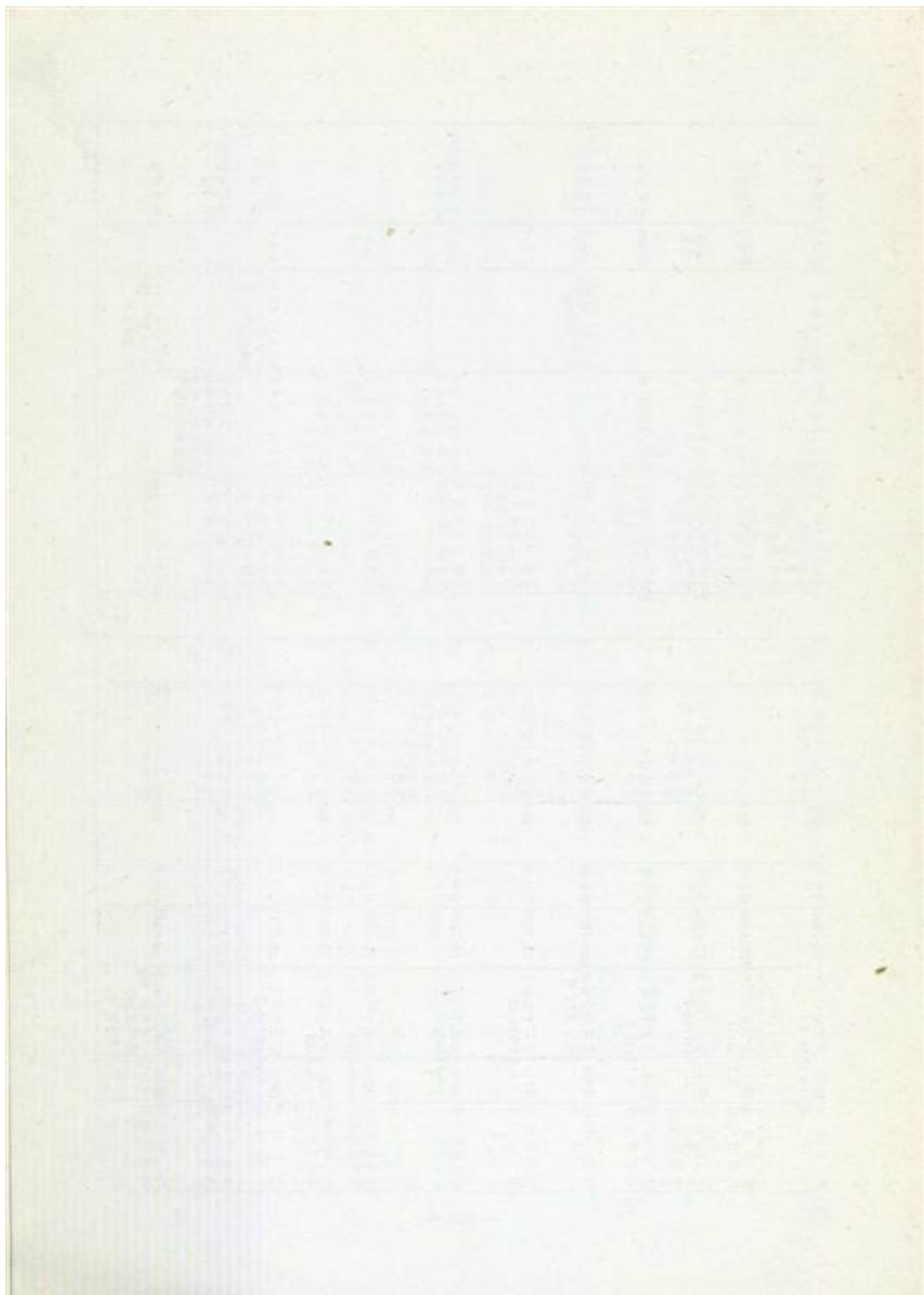
⑬ 글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요망사항으로 회원은 문화개방과 실질적인 운동을 원하고 비회원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동과 문화개방 및 적극적 P.R.을 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에 노력해 달라는 요망이다.

부 록

대한민국출판 경우의중요 부 부녀회	1969. 4종로구내 자동 201-11	74-1341집경회	2,500		9	5월경·월지 여정의 상호음대강화 및 대인관계의 개조 역화	주간·경수신보 4-6매판	문공부	
대한 불교 부 인 회	1965. 종로구 6.23아동1	최성실	200	본회의 취지를 참 통하는 불교 신자 여성	2	세계 여성의 자 각과. 과학, 문학 한 근본으로의 통행		문공부	
대한약사회 약사위원회	1954. 종로구관철동 11.818-3	74-0203집세진	9,000	여약사	22	2) 약사직 및 사 회활동 참여. 약 사제도		보사부	약사협회의 여 약사. 협회로 거동. 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이렇기 인 자체건물
대한여머니회	1958. 영등포구 3.17양산동121-81	63-7543고형경	40,000	성년이상의 여성	11	10) 어머니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자 각으로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함	종소자 브로 고역간 4-5매판 200~400page	문공부	
대한 여자 기 독교 청년회 (Y.W.C.A.)	1922. 중구 명동 1 4.20가1-3	776-9707손인실	353,330	본회의 목적을 참 통하는 크리스찬 여성	18	19) 젊은 여성들로 하 여군 예수의 교훈 을 생활에 실천함 을	기독교신앙강화 위원 YWCA "한국 여성의 인간화, 소비자보호, 등 총계 발. 성인으로 50page	문공부	국제교류, 전 국적 규모, 자 재건물, 여 업가업
대한 여 성 회 지 회	1963. 태구시중구봉 1.14인동3가192-2 (401호)	4-1252백경원	50	있다		부녀자의 사회 적위향상		보사부	회장자비로 단 회 운영
대한 여 학 사 학 회	1950. 양문동423-44 1.15	99-9378집우경	400	대학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여성	4	3) 회원 상호 의견 및 협동으로 국제 전 선도모	지월간 "여학사 협회소식" 16월 모조프린트 3~5page	문공부	여학가업
(부녀 구 호 분 사 부)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1946. 중구남산동 3가32	24-3301안경애 ~4	6,755	18세 이상의 대한 민국여성으로 적 십자사업에 뜻이 있는 자	11	13) 대한적십자사업 수행 (백매, 봉사, 질서)		보사부	
대한친목동계 미 방 인 회	1963. 영등포구이의 8.13도동1-17	68-6632유수자	27,232	연금을 받는 건물 (본회 192)11		친목동계미방인의 상부상조		영호처	
대한조선회의	1946. 중구양철동 4.11266-2	29-1972송선진	900	조선인 자격을 가 진 자	12	1) 회원간 친목 기술 보급으로 국가보 전사업에 헌신	세미나봉사	보사부	여학가업
대한 불 교 아 부 인 회	1953. 종로구안국동 2.740 신학원	72-3327장봉옥	300	여성불교신자		여성 불교로 상호 친목도모. 사 회적 복지증진	법회, 위문, 수 행인등기	문공부	여학가업

소문대미스트 원 독립 협 회	1965. 6. 4 도동1-868 역인회관內	영동구구의 영동구구의 영동구구의	한도정	156정문지여성 (각본이)	5	민간학교 및 친선봉사활동 도모	외무부
주 부 내 부 회	1976. 11.13 경북청주공회 11.13관공회관內	조윤남	50였다			이전 신장과 사회 복지 향상 (일손잡기)	보사부
제 내 부 회	1954. 7.183-28 성북구성북동 762-2438이소현	조윤남	41분의 사업에 찬동 하는 부녀자			군정유족 및 불우 한 부녀자의 직업 보도와 기술향상	보사부
여 성 단 회	1959. 12.163가 용산구한강로 793-5196이숙종	23개 여성단체	각 여성단체 장			10국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부녀자, 세계 여성지도도, 세계 여성지도도	보사부
여 성 단 회	1967. 9.1가 64-8 경북청주공회 307호	74-3584원신희	784.512동북원 여성 단체 및 여성회합	201		6여성의 저축생활 비안을 위한 부녀자 비지적 저축운동 주 선	여협가임
여 성 단 회	1928. 9.9136기독교회 관 307호	29-5558이연숙	60,000제한내수장로회 여성자	32		5국내의 신교사업 세월쓰미 교회와 세월쓰미 교회와 세월쓰미 교회와	비종교 단 체
여 성 단 회	1958. 4.5동325-9 성북구미아 5	99-9816전원혜	1,10050세 이상의 할머니	2		1영세 교령자의 복 지출진, 양도시설 지원	보사부
자 매 회	1966. 1.15119 남도빌 202호	23-2038이방자	180 분회의 복제출 찬 동하는 유제인사			2심신간내 아동들 경제적 지원과 교육제정, 아동복 지출진사업수행	학 교운영 가임
세 할 군 인 회	1968. 2.2317-2 강릉동2가	29-5171박순경	10,000제대한 여자군인	12		2지역학 이군의 친 문, 친신양양, 사 회봉사	국방부
전 국 주 부 회	1971. 12.2819-3 송파로 5가	25-3627이윤지 25-3628	217.334 분회 취지에 찬동 하는 여성	29		27주부들의 상호 합동한 이며의 지과와 프롤리타르 시의봉사정신함양	문교부
B.P.W. 지문 직업여성클럽	1969. 181-60 용산구이태원	792-9728이계순	300과 분아별 전문지 업여성	6		취업이성복자 상에 주역	비종교 단 체
주 부 회	1966. 7.20세로나메회관 22-4227	23-6645이정경 22-4227	15,000분회 취지에 찬동 하는 주부	86		7주부의 인제도와, 소비재모로, 라 사회봉사, 명량한술부 상담 등 사회지공조성	보사부

단 체 명	설립 일자	소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회원수 (명)	의원 자격	사무 장 (명)	실 업 종 류	활동 내용	경 리 장 비	동 무 부	비 고
중앙부업회	1953. 5.5	동대문구보문 2가17	92-2107	최영석	60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2	부유어장기술지도 실업교육		보사부	어업가업
부 어 생 회 본 부	1924. 3.25	창도에서이대 수문회관	72-8991 72-3956	김정숙	107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107	2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보사부	어업가업
한국전스카울 연	1946. 5.10	종로구인국동 163	73-4347	안순립	5,000	본 연맹에 찬동하 는 대한민국 소년 과 부녀자	25	17	전스카울의 총연 맹에 의한 교육 으로서의 양적 확대, 국제우 호의 향상, 국 악의 보급, 인 도주의의 불 파악제	원간 전스카울 4-6판 50page	문교부	어업가업
한 국 교 회 이 성 연 합 회	1967. 4.15	종로구인국동 2가17-2	70-7301	이우경	비회원	본 연맹에 찬동하 는 대한민국 소년 과 부녀자	없다	1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보사부	어업가업
한 국 꽃 붓 이 회	1971.2	서울중구명동 1-7	776-9079	김팔로	260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1	1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문교부	어업가업
한국노총조원 총연맹부녀회	1946. 3.10	영동구여의 도동1-117	47-3884	이필원	194,200	본 연맹에 찬동하 는 대한민국 소년 과 부녀자	428	7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연간 "노총보"	노동성	어업가업
한 국 부 녀 회	1965. 7.24			김이희	46,549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7	4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연간 "노총보"	보사부	어업가업
한 국 부 녀 회	1963. 10.31	종로구신봉로 25호 6층	72-8052	박금술	145명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225	8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연간 "노총보"	보사부	어업가업
한국식생학회 발원구회	1969. 2.15	종로구명동 2가17-2	73-4983	원준원	5명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6	8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연간 "노총보"	보사부	어업가업
한국식생학회 계원회	1975. 5.21	종로구신봉로 56-1	712-0909	김근자	60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60	8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연간 "노총보"	보사부	어업가업
한 국 어 성 크리스찬클럽	1966. 12.82	종로구무로 461-3 세운 호텔 205호	76-1139	최우자	300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2	1	본회의 목적에 찬 동하는 자	연간 "노총보"	보사부	어업가업



창립년월일 1952.11.11
문교부등록 1961.6.26 등록번호 56

韓國女性團體活動에 關한 研究

인쇄일 1977.12. 2
발행일 1977.12.17

발행인 박 경 자
편집인 하 서 연
인쇄음상인쇄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2-4
전화 22-7645

사단법인 여성문제연구회

Call Me